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담당교수 : 이형진 교수

목 차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강의계획서..... 3

중간고사 범위	1주차 1차시 - 발달이론(1).....	9
	1주차 2차시 - 발달이론(2).....	12
	2주차 1차시 - 태아기 발달(1).....	16
	2주차 2차시 - 태아기 발달(2).....	19
	3주차 1차시 - 영유아기 발달 (1).....	23
	3주차 2차시 - 영유아기 발달 (2).....	29
	4주차 1차시 - 아동기 발달.....	34
	4주차 2차시 - 청소년 발달.....	39
	5주차 1차시 - 청년기 발달.....	46
	5주차 2차시 - 장년기.....	50
	6주차 1차시 - 노년기.....	54
	6주차 2차시 - 프로이드의 성격이론.....	59
	7주차 1차시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이론.....	64
	7주차 2차시 -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성격이론.....	68
기말고사 범위	9주차 1차시 - 융의 분석심리학적 성격이론.....	75
	9주차 2차시 - 행동주의 학습이론(1).....	80
	10주차 1차시 - 행동주의 학습이론(2).....	86
	10주차 2차시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90
	11주차 1차시 - 인본주의 성격이론.....	94
	11주차 2차시 - 이상행동의 개념과 모델.....	100
	12주차 1차시 - 이상행동의 유형(1).....	105
	12주차 2차시 - 이상행동의 유형(2).....	113
	13주차 1차시 - 사회체계이론.....	119
	13주차 2차시 - 생태학적 이론과 가족.....	124
	14주차 1차시 - 집단.....	129
	14주차 2차시 - 조직과 지역사회.....	134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강의계획서

과목명	인간행동과사회환경	교.강사명	이형진	학점/ 이수시간	3학점/ 15주(45시간)
과목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속의 인간(person - in - environment)'이라는 사회복지실천의 주요관점에서 이에 대한 기초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 행동 및 인간 발달, 사회체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형성하여 적절한 사회복지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해 탐색한다. - 이를 위해 개인, 가족, 사회, 문화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 생애주기이론관점에 입각해서 본 인간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제에 대해 학습한다. - 또한 각각의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이 갖는 의미와 연관성을 파악한다. 나아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해 전반 적인 이해를 향상하고, 자신에 대한 분석, 타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 행동 및 인간 발달, 사회체계에 대한 이론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복지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수 있다. 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다양한 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여 인간의 성장과정 및 발달에 대해 사회복지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3. 개인, 가족, 사회, 문화적 요소 간의 상호작용, 생애주기이론관점에 입각해서 본 인간의 발달단계와 발달과제에 대해 학습하여 클라이언트의 환경적 요소의 상호작용과 발달과제에 대해 사례분석할 수 있다. 4. 각각의 이론을 파악하고,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이 갖는 의미와 연관성을 이해하여 이론별 유형에 대해 개념적인 차이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5.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실무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에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콘텐츠 접속 URL	http://www.koreahrd.org				
평가기준	중간고사: 25 %, 기말고사: 25 %, 과제물: 20 %, 출석: 15 %, 수업참여도(자료실,Q&A 등): 10 %, 토론: 5 % ※ 출석을 80% 미만인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F학점)				
성적분포	총점 90점 이상(A ~ A+) : 총 정원의 20%이하, 총점 80점 이상 90점 미만(B ~ B+) : 총 정원의 40%이하 총점 60점 이상 80점 미만(D ~ C+) : 총 정원의 30%이상 ※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낙제(F학점)				
주교재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저 자 : 전남련 외 2명 출판사 : 형성출판사 출판년도 : 2010		부교재 (저자,출판사, 출판년도 포함)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최옥채 외, 양서원, 2011	

주차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원격/출석)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포함)
1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인간의 발달과 성장(1) 2)강의주제 : 발달이론(1) 3)강의세부내용 : (1)발달의 개념 (2)발달의 원리 (3)발달단계와 과업	원격	주교재 제1장 13p~20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인간의 발달과 성장(2) 2)강의주제 : 발달이론(2) 3)강의세부내용 : (1)발달단계의 구분 (2)발달단계와 과업 (3)인간의 발달과 사회복지실천의 영역 (4)연구과제	원격	주교재 제1장 19p~21p 동영상, 교안, MP4, MP3
2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3) 2)강의주제 : 태아기발달(1) 3)강의세부내용 : (1)태내기의 발달 (2)유전요인	원격	주교재 제2장 24p~25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4) 2)강의주제 : 태아기 발달(2) 3)강의세부내용 : (1)태아기의 환경요인 (2)태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제	원격	주교재 제2장 27p~32p 동영상, 교안, MP4, MP3
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5) 2)강의주제 : 영유아기 발달 (1) 3)강의세부내용 : (1)신체운동발달 (2)인지발달 (3)정서발달	원격	주교재 제3장 34p~60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6) 2)강의주제 : 영유아기 발달(2) 3)강의세부내용 : (1)언어발달 (2)사회성발달 (3)사회복지실천과제와 연구과제	원격	주교재 제3장 60p~84p 동영상, 교안, MP4, MP3
4주차	1차시	1)강의제목 :인간발달과 성장(7) 2)강의주제 : 아동기 발달 3)강의세부내용 : (1)신체운동, 인지, 사회정서, 언어발달 (2)아동기의발달과 사회복지실천과제 (3)연구과제	원격	주교재 제4장 88p~95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8) 2)강의주제 : 청소년 발달 3)강의세부내용 : (1)신체운동, 인지, 심리·사회적 발달 (2)청소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실천과제 (3)연구과제	원격	주교재 제5장 100p~110p 동영상, 교안, MP4, MP3

5주차	1차시	<p>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9) 2)강의주제 : 청년기 발달 3)강의세부내용 : (1)신체운동, 인지, 심리·사회적 발달 (2)청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실천과제 (3)연구과제</p>	원격	<p>주교재 제6장 114p~123p 주교재 제7장 127p~136p</p> <p>동영상, 교안, MP4, MP3</p>
	2차시	<p>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10) 2)강의주제 : 장년기 3)강의세부내용 : (1)신체, 인지, 심리·사회적 발달 (2)장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실천과제 (3)연구과제</p>	원격	<p>주교재 제8장 140p~149p</p> <p>동영상, 교안, MP4, MP3</p>
6주차	1차시	<p>1)강의제목 : 인간발달과 성장(11) 2)강의주제 : 노년기 3)강의세부내용 : (1)신체, 인지, 심리·사회적 변화 (2)노년기의 사회복지실천과제 (3)연구과제</p>	원격	<p>주교재 제9장 155p~172p</p> <p>동영상, 교안, MP4, MP3</p>
	2차시	<p>1)강의제목 : 성격이론(1) 2)강의주제 : 프로이드의 성격이론 3)강의세부내용 : (1)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적 성격이론 (2)안나 프로이드의 자아방어기제이론</p> <hr/> <p style="text-align: center;"><과제/토론출제> ※ 과제물 제출 시 유의사항</p> <p>1) 분량 A4 3매, 글씨 크기 10.0으로 통일 2) 과제는 hwp(한글), doc, docx(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 3) 파일명, 본문에 학습자 성함과 과목명을 반드시 기입 4) 제출기한 초과 시 제출 불가하므로 제출기한 확인(기한 내 수정/재업로드 가능) 5)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 - 똑같은 답안이 두 개 이상 나왔을 시 같은 답안 제출자 모두 0점 - 분량(10포인트 기준 A4 2매)이 90% 이하인 경우 (참고문헌 미포함)감점 - 참고문헌이 없을 경우 감점 - 인터넷 검색자료를 복사해 그대로 사용한 경우 감점 - 필수 기재사항(성명, 과목명) 미기재시 감점 ※ 주의 : 타인의 과제를 도용할 경우(모사답안) "0" 점 처리함</p>	원격	<p>주교재 제10장 180p~191p</p> <p>동영상, 교안, MP4, MP3</p> <p style="text-align: center;"><과제> 10주차 종료일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11주차 종료일까지</p>

7주차	1차시	1)강의제목 :성격이론(2) 2)강의주제 :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성격이론 3)강의세부내용 : (1)에릭슨의 생애와 인간관 (2)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3)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비교	원격	주교재 제11장 195p~206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성격이론(3) 2)강의주제 :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성격이론 3)강의세부내용 : (1)아들러의 생애와 인간관 (2)아들러의 주요개념 (3)성격의 발달과 유형	원격	주교재 제12장 210p~217p 동영상, 교안, MP4, MP3
8주차	-	<p style="text-align: center;"><중간고사></p> 1) 시험범위 : 1주~7주차 강의내용 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1점) 총 25점 만점 3) 시험시간 60분 4)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	원격	-
9	1차시	1)강의제목 : 성격이론(4) 2)강의주제 : 융의 분석심리학적 성격이론 3)강의세부내용 : (1)융의 생애 (2)주요개념 (3)성격의 발달	원격	주교재 제13장 221p~227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성격이론(5) 2)강의주제 : 행동주의 학습이론(1) 3)강의세부내용 : (1)파블로프의 행동주의 학습이론 (2)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이론	원격	주교재 제13장 237p~243p 동영상, 교안, MP4, MP3
10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성격이론(6) 2)강의주제 : 행동주의 학습이론(2) 3)강의세부내용 : (1)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원격	주교재 제14장 248p~253p 주교재 제15장 269p~277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성격이론(7) 2)강의주제 :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3)강의세부내용 : (1)피아제의 이론과 생애 (2)인지발달 기제 (3)주요개념 (4)인지발달단계	원격	주교재 제15장 270p~278p 동영상, 교안, MP4, MP3 리포트 제출 마감

11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성격이론(8) 2)강의주제 : 인본주의 성격이론 3)강의세부내용 : (1)로저스의 현상학적 성격이론 (2)매슬로우의 인본주의 성격이론	원격	주교재 제16장 289p~293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이상행동(1) 2)강의주제 : 이상행동의 개념과 모델 3)강의세부내용 : (1)이상행동의 개념 (2)이상행동의 모델	원격	주교재 제18장 298p~309p 동영상, 교안, MP4, MP3 토론 제출 마감
12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이상행동(2) 2)강의주제 : 이상행동의 유형(1) 3)강의세부내용 : (1)불안, 기분(정동)장애 (2)정신분열증	원격	주교재 제18장 310p~320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이상행동(3) 2)강의주제 : 이상행동의 유형(2) 3)강의세부내용 : (1)인격, 신체형, 섭식장애 (2)성 도착증	원격	주교재 제19장 323p~330p 동영상, 교안, MP4, MP3
13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체계와 이상행동(1) 2)강의주제 : 사회체계이론 3)강의세부내용 : (1)체계의 개념과 기능 (2)주요개념 (3)사회체계의 역동성	원격	주교재 제20~21장 334p~344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체계와 이상행동(2) 2)강의주제 : 생태학적 이론과 가족 3)강의세부내용 : (1)생태학적 체계의 개념 (2)기본가정 (3)생태학적 환경 (4)가족	원격	주교재 제22장 347p~351p 동영상, 교안, MP4, MP3
14주차	1차시	1)강의제목 : 사회체계와 이상행동(3) 2)강의주제 : 집단 3)강의세부내용 (1)사회환경으로서의 집단체계 (2)집단체계의 유형 (3)집단구성원의 행동 역할	원격	주교재 제23~24장 355p~364p 동영상, 교안, MP4, MP3
	2차시	1)강의제목 : 사회체계와 이상행동(4) 2)강의주제 : 조직과 지역사회 3)강의세부내용 : (1)사회환경으로서의 조직체계 (2)조직의 유형과 인간행동 (3)사회환경으로서 지역사회와 기능 (4)문화	원격	주교재 제9주~14주차 221p~367p 동영상, 교안, MP4, MP3

15주차	-	<p style="text-align: center;"><기말고사></p> <p>1) 시험범위 : 9주~14주차 강의내용 2) 문항수(배점) : 객관식 20문항(각 1점), 주관식 5문항(각 1점) 총 25점 만점 3) 시험시간 60분 4) 유의사항 (1) 시험 응시 기회는 1회이며, 시험 제한 시간 내 응시 완료해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 시 다른 대체방법은 없습니다. (단, 공결로 인한 미응시는 일주일 이내 재응시 기회 1회 부여)</p>	원격	-
------	---	---	----	---



1. 발달의 개념

1) 발달의 개념

- 발달이란 어원적으로는 유기체 내에 잠재해 있는 본질 또는 가능성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 인간발달에 대해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Specht와 Craig는 “인간의 발달(development)이란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신체구조, 사고, 행동의 변화를 가리킨다.
-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축적되며, 그 결과로 신체의 확장, 복잡한 활동수행 능력의 증가 등을 가져온다”고 했으며 Greene는 “발달은 신체.심리.사회적 변인을 포괄하며,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역동이다”라고 했으며, Birren과 Woodruff는 “발달은 덜 분화된 상태에서 더 분화된 상태로, 덜 복잡한 유기체로부터 더 복잡한 유기체로, 능력과 기술의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했으며 Zanden은 “발달이란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질서정연하고 연속적인 변화이다”라고 하였다.

2) 뉴만의 인간발달 정의

뉴만은 인간의 발달에 관한 기본 전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 삶의 모든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 그러므로 인간 발달은 태내에서 수태되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긴 인생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모두 포함한다.
- ② 인간의 삶이란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지속성(continuity)과 변화(change)를 보인다. 즉, 인간의 발달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하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 ③ 인간을 전체로서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발달은 언어, 인지, 신체, 사회, 정서적인 발달의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닌 통합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면서 인간발달을 연구해야 한다.
- ④ 인간의 발달과 행동은 그에 관련된 상황이나 인간관계의 맥락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인간은 사회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으므로 인간의 행동양식이나 변화는 인간이 성장해 온 그 문화와 사회적 환경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3) 성장, 발달, 성숙, 학습

- 성장(growth)은 신체 크기의 증대, 근력 증가 등과 같은 양적인 확대를 의미하며, 유전인자에 계획되어 있는 계획표(programing)에 따라 크기, 복잡성, 기능이 정점(optimal point)에 이를 때까지 계속적으로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다가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정지되는 인간의 신체적 부분에 한정하여 변화를 설명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 발달(development)은 신체뿐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모두 포함하며, 양적인 확대 뿐만 아니라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상승적 또는 퇴행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 성숙(maturation)은 유전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에 따라 전개되는 유기체의 형태, 조직, 복잡성, 통합성, 기능상의 변화를 가르키는 것으로, 경험이나 훈련에 관계없이 인간의 내적 또는 유전적 기제의 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태아의 태내 발달이나 영아들의 치아 출현, 영구치나 사랑니의 출현, 폐경기의 도래 등을 들 수 있다.

학습(learning)은 경험, 훈련, 또는 연습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개인 내적인 변화이다. 즉, 경험과 훈련에 의해 가치관, 태도 등을 형성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지식을 얻는 과정을 의미한다.

2. 발달의 원리

1) 발달의 원리

- 발달이란 임신에서부터 출생, 성장, 노화 과정을 거쳐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통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를 말한다. 인간의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질서정연하면서도 안정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을 따라 이루어지는 규칙적인 변화이다. 인간의 전생애에 걸친 발달은 일관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진행된다.

2) 발달의 진행원리

①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와 방향이 있다.

발달은 머리에서 꼬리방향(cephalo → caudal direction)으로 즉, 머리(head)에서 미부(tail)의 방향으로 진행되며, 가까운 곳에서 먼 방향(proximo → distal direction) 즉, 신체의 중심부위에서 말초 부위로, 전체에서 특수 방향(mass → specific direction)으로 대 근육에서 소 근육으로 발달해 나간다.

② 발달은 계속적이며 점진적이다.

발달은 일생 동안의 계속적이고, 점진적이며, 순서적인 과정으로 일어난다. 즉, 유아기를 거쳐야 아동기가 오고 아동기를 거쳐야 청년기가 오는 것이다. 그러나 발달은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지만 그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

③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달은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④ 발달은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발달은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중요한 발달적 특징이 있다. 각 발달영역에는 급격한 성장을 보이는 시기가 있는데, 이를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라 한다. 즉, 영.유아기에 말을 배워야 할 시기에는 말을 배워야 하고 걸음마를 배워야 할 시기에는 걸음마를 배워야 한다. 언어발달, 지적발달, 신체발달 사회.정서 발달에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다음 시기에 배운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⑤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

발달은 개인이 타고난 소질과 주어진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발달의 속도, 정도, 질이 동일하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신체적인 성장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춘기에 급격하게 발달하는 경우가 있다.

⑥ 발달은 분화와 통합성이 있다.

인간의 행동은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신체운동으로부터 부분적이고 행동으로 분화 발달된다. 이러한 분화된 기능은 또 다시 통합되는 과정을 겪는다. 발달은 이렇게 분화와 통합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루어진다. 발달의 영역은 서로 상호 관련되어(interrelated) 있다. 신체발달, 인지발달, 언어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 등의 각 발달 영역은 상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달해 나간다.

3. 발달단계와 발달과업

- 인간은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인간이 그러한 과제를 그 시기에 잘 해결하면 그 이후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시기는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Havighust는 인간의 삶을 기술하는 데 있어 특정한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발달시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발달과업이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그 개인은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후속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발달과업에 실패하면 불행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후속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Havighust의 발달시기와 발달과업은 다음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발달 단계의 구분

인간의 발달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인간의 삶을 나누는 방법에는 시기(phases), 단계(stages), 계열(sequence)의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1) 발달의 시기(developmental phases)

- 첫 번째로, 발달의 시기(developmental phases)는 생활 연령에 따라 인간의 삶을 나누는 것으로 흔히 한 문화권에서 인정되는 특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사춘기와 같은 신체적 성장이나 아기를 낳아 부모가 되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 성인이 되면 투표권을 얻는 것 등과 같은 법적 지위 등의 변화에 관심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를 일생 동안 나누면 다음과 같이 여섯 시기로 나눌 수 있다.

2) 단계(stage)

- 두 번째로, 생물학에서 빌어 온 개념인 단계(stage)를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나비의 일생을 알에서 유충, 번데기, 나비의 네 단계로 나누는 것처럼 몇몇 심리학자들은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단계의 개념을 빌어 인간의 삶도 단계로 나누고 있다. 즉, Erikson의 성격발달을 출생에서 노년까지 8단계로 나눈 것이 좋은 예가 된다.

3) 계열(sequences)

- 세 번째로, 계열(sequences)을 이용하는 것이다. 계열이란 서로 관련된 사상의 연속으로, 각각의 사상은 다음 사상의 원인이 되거나 기초가 된다. 예를 들면 아동이 수 개념을 배우고 덧셈에 익숙하게 되면 곱셈을 쉽게 배우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계열은 아동이 한 과제에서 다음 과제로 학습의 전이를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계열은 단계와는 달리 완만한 발달 과정을 그린다.

2. 발달단계와 발달과업

- 인간은 전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느 시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인간이 그러한 과제를 그 시기에 잘 해결하면 그 이후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시기는 불만족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 Havighust는 인간의 삶을 기술하는 데 있어 특정한 발달 과업을 중심으로 발달시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발달과업이란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면 그 개인은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후속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성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발달과업에 실패하면 불행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후속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1) Havighust의 발달시기

발달시기	연 령
1. 태아기 발아기 배아기 태아기 출생	수정부터 9개월간 0 ~ 2주 2 ~ 8주 8주 ~ 출산까지 수정 후 평균 266일
2. 유아기 신생아기 유아기	출생 후부터 18개월까지 출생 ~ 2주까지 2주 ~ 18개월까지
3. 아동기 초기 중기 말기	18개월부터 13세까지 18개월 ~ 6세까지 6세 ~ 10세까지 10세 ~ 13세까지
4. 청소년기 초기 후기	13세부터 20세까지 13세 ~ 15세까지 15세 ~ 20세까지
5. 성인기 초기 후기	20세부터 60세까지 20세 ~ 40세까지 40세 ~ 60세까지
6. 노년기	60세 이후

2) Havighust의 발달과업

발달단계	발달과업
1. 영.유아기	· 걸음마배우기.고형음식물 먹기.말배우기.배설물 통제.성차 인식과 성적 성숙학습.생리적 안정.사회적.물리적 환경에 대한 간단한 개념형성.타인과 정서적 관계 형성 학습.선악의 구별과 양심의 발달
2. 아동기	· 놀이에 필요한 신체 기술 학습.자신에 대한 건전한 태도 형성하기 · 친구사귀는 방법 배우기.성 역할 학습.읽기.쓰기.셈하기(3R)의 기초기능학습.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양심.도덕 가치체계 발달 · 인격적 독립의 성취.사회집단제도에 대한 민주적 태도 발달
3. 청소년기	· 자신의 신체 및 성역할 수용.동성 또는 이성 친구와의 새로운 관계형성.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역할학습.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 독립.경제적 독립의 필요성 인식.직업선택 및 준비.결혼과 가정생활 준비 .사회적 책임에 맞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하기.유능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적 기능과 개념 획득.과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가치체계의 발달
4. 청년.성인 초기	· 배우자 선택.배우자와의 생활방법 학습.가정형성.자녀양육과 가정관리.시민으로서 의무완수.친밀한 사회적 집단 형성
5. 중.장년기	· 사회적 의무의 완수.경제적 표준생활 확립과 유지.10대 자녀의 훈육과 선도.적절한 여가활용.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유지 · 중년기의 생리적 변화 인정 및 적응.노년기 부모에의 적응
6. 노년기	· 신체적 건강 쇠퇴에의 적응.은퇴와 수입감소에의 적응 · 배우자의 사망에 대한 적응.동년배와의 유대관계 재형성 · 사회적 시민의 임무수행.생활에 적합한 물리적 환경의 조성

3. 인간발달과 사회복지 실천 영역

1) 인간발달이론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기여

- 생활주기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준거틀을 제공해 준다.
- 임신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발달 과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준다.
-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안정성과 변화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생활전이(life transition)에 따른 안정성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 특정 발달단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요인을 설명해 준다.
- 발달을 구성하는 다양한 신체.심리.사회적 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전 단계의 결과가 다음 생활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 이전 단계의 결과에 의해서 형성된 각 단계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수 있다.
- 개인적인 발달상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4. 연구과제

1. 사회복지사가 인간발달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2. 성장, 성숙, 학습, 발달의 개념을 각각 비교해볼 과제.
3. 발달의 원리 중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와 관련된 예를 살펴본다.
4. 인간 발달은 유전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 하였다. 그러면 유전과 환경 중 어떤 요인이 발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이론적 근거를 중심으로 제시해 본다.
5. 발달의 원리를 설명해 본다.
6. Havighust의 발달 시기와 관련된 발달과업 외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과업을 추가하여 정리해 본다.



1. 태내기의 발달

1) 태아기발달

- 인간의 발달과 성장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 태아기의 발달도 인간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보기 때문에 본서에서는 인간발달의 시기를 구분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저자의 견해를 접목하여 태아기를 임신에서 출산까지로 보고 영.유아기를 0세에서 6세까지로 본다.
 -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이 만 6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여 0세~6세까지를 포괄적으로 본다(원칙적으로는 0~2세를 영아기, 2세~6세를 유아기로 나누어야 하나 더 세분화하기가 힘들어서 영.유아기를 한 기로 본다).
- 아동기는 6세~13세로, 청소년기는 13세~20세, 청년기는 20세~35세, 장년기는 35세~60세, 노년기는 60세 이후로 보고 각 시기별로 나타나는 발달적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의 발달시기 구분과 저자의 발달시기를 구분하여 표로 제시하면 <표 I - 4>와 같다.

2) 인간발달시기 구분 비교

	Havighust	이종복.전남련	이인정.최혜경
1	태아기(수정 ~ 9개월간)	태아기(임신 ~ 출산)	태아기(임신 ~ 출산)
2	유아기(출생후 ~ 18개월)	영.유아기(0 ~ 6세)	유아기(0 ~ 2세)
3	아동기(18개월 ~ 13세)	아동기(6 ~ 13세)	학령전기(2 ~ 4세)
4	청소년기(13세 ~ 20세)	청소년기(13 ~ 20세)	전기(4 ~ 6세) 후기(6 ~ 12세)
5	성인기(20세 ~ 60세)	청년기(20 ~ 35세)	전기(12 ~ 18세) 후기(18 ~ 22세)
6	노년기(60세 이후 ~)	장년기(35 ~ 60세)	청년기 (22 ~ 35세)
7		노년기(60세 이후 ~)	장년기 (35 ~ 60세)
8	앞의 <표 I - 1> 참조		전기(60 ~ 75세) 후기(75세 ~)

3) 태내기의 발달

- 태내의 발달에 관한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그 발달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발달은 대개 부드럽고 고정된 순서와 고정된 시간 간격으로 여러 가지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성숙의 영향을 받아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태아는 손톱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학습하지 않으며 외부의 어떤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눈, 귀, 내부기관, 신경 계통 등은 모두가 유전인자 내에 있는 발달적 암호에 의해 어떤 식으로 통제를 받는 것이다. 태아의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유전요인

1) 유전(1)

- 유전적 요인은 유전 인자(gene)에 의해 결정된다. 유전 인자는 염색체(DNA)에 의해 전달되므로 염색체가 바로 유전적 요소를 통제하는 주 단위가 된다. 정자와 난자는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갖게 된다. 이러한 23쌍의 염색체는 복사되어 새로 형성된 신체의 세포 각각에 전달된다. 즉, 인간의 모든 세포는 복사되어 정자와 난자만을 제외하고 23쌍의 염색체를 갖는다. 이러한 염색체 중 23번째의 염색체가 바로 한 생명체의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이다. 만약 이 염색체 하나가 큰 염색체(X염색체)와 작은 염색체(Y염색체)로 구성되면 이 염색체는 XY가 되어, 그 생명체는 남성이 된다. 그러나 두 개의 큰 염색체로 구성된 경우(XX)는 여성이 된다. 난자는 오직 X염색체만 운반하므로 수정시 정자가 갖고 있던 23번째 염색체가 X염색체인 경우에는 여아가 되며, Y염색체인 경우에는 남아가 된다.

2) 유전(2)

- 유전인자는 신체의 크기, 피부색 등 여러 가지 유전적 요소를 전달하게 되며 양쪽 부모가 갖는 질병이나 이상 특질도 전달하게 되는데 PKU나 혈우병도 이에 속한다. 염색체 결합에 이상이 있으면 특수 아동을 낳게 된다. 정신지체의 원인이 되는 다운증후군(몽골리즘이라고도 함 Down's Syndrome, trisomy 21)이 그 예이다. 다운증상은 12, 15, 21번째의 염색체쌍이 또 하나의 염색체를 갖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즉, 정자나 난자가 적절한 감수분열을 하지 못하여 염색체 21이 정상적인 2개가 아닌 3개로 복사된 것이다. 여아이면서 23번째 염색체 중 X가 하나 더 있거나(XXX), X가 하나뿐인 경우(XO)도 있다. 이런 경우 신체적인 결합은 없으나 불임이나 정신지체의 증상을 나타낸다. 남아의 경우는 X가 하나 더 있거나(XXY), 또는 Y가 하나 더 있는 경우(XYY)가 있다.

3) 유전(3)

- 35세 ~ 39세의 여성들에게서 다운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280명 중 1명, 40세 이상 여성에게서는 100명 중 1명, 45세의 어머니에게서는 30명 중 1명 꼴이 된다. 또한 유전병 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환경적 독소에 대한 노출이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낳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연구에 의하면 기계공, 농부, 제재소 노동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용해제, 석유, 납, 살충제에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기를 낳는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이 나타났다.

4) 유전(4)

- 가장 흔한 성염색체의 이상은 XXY형태이다. 이것은 클라인펠터 증후군(Klinefelter Syndrome)으로 1,000명의 남성 중 한두 명에게서 생긴다. 이러한 남아는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검사해보면 발달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성인이 되면 정자가 부족하게 되며, 정신지체는 없으나 언어와 학습면에서 무능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리 흔하지는 않지만 XYY형태가 있는데, 이 남아들은 발달하면서 비정상적으로 키가 크고 가벼운 정신지체를 갖는다. 단일 X형태(XO),

5) 유전(5)

- 즉 터너 증후군(Turner's Syndrome)과 트리플 - X형태(XXX)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의 경우에는 여아로 발달한다. 터너 증후군을 가진 여아들은 아슬아슬한 성장을 보이며, 대개 불임이고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춘기 때에 월경이 없거나 가슴이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이들은 인지적 기술에서 흥미로운 불균형을 보여서 공간능력에서는 부진한 수행을 보이지만, 언어 기술에서는 정상아들보다 더 높은 수행을 보인다. 트리플 - X 형태를 가진 여아들은 신체의 크기는 정상적이지만 발달의 면에서는 정상아동들보다 더 늦으며, 터너 증후군의 여아들과 반대로 언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1. 태아기의 환경요인

- 임신 중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크게 영양, 임신부의 특성 및 습관, 약물과 질병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양

- 태아에게 가장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부적절한 영양공급이다. 태아에게 필요한 영양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칼로리와 단백질이다. 임신을 하면 평상시보다 많은 염산, 철분, 칼슘 등이 임신부에게 필요하게 된다. 아연과 같은 미량 원소들은 비록 양이 아주 적더라도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영양소이다. 적절한 영양공급은 임신부의 영양 상태에서 결정된다. 영양섭취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는 사산아, 저체중아의 출산을 들 수 있으며, 출생 후에도 지적 결함, 구루병, 뇌성마미, 발작, 일반적인 허약증세, 질병에 걸릴 가능성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2) 임신부의 특성

- 임신부의 특성으로는 임신부의 정서적 상태, 임신연령, 체격, 혈액(Rh), 혈액의 산소수준, 피로 등을 들 수 있다.

① 임신부의 정서적 상태 : 임신부의 정서적 긴장은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Emmy Werner(1986)는 중산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에서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임신에 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거나 임신기간 중에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들은 스트레스나 불안이 낮은 중산층 여성들의 경우보다 더 많은 출산 합병증을 나타냈고, 그들의 자녀들 중에는 저 체중 신생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임신 중에 정서적 긴장을 느끼게 되는 원인으로는 부부 간의 불화, 남편 이외의 다른 가족들 간의 갈등, 가정의 문제, 또는 원하지 않았던 임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임신부의 정서적 긴장은 태아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만 임신부가 행복하고 안락함을 느끼는 경우는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임신에 대한 태도는 그 아이를 임신부가 얼마나 바라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것은 자녀의 수, 경제적 여건, 남편과의 관계, 정서적 성숙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② 임신부의 연령 : 임신부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동을 낳을 확률은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임신부가 가장 높다. 10대 임신부의 경우 저체중아, 지체아를 낳거나 출산시 결함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10대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는 습관을 갖고 있어 영양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 또한 10대들은 아직 신체적인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태와 임신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임신부의 연령이 높을 경우에는 사산율이 높고 정신지체아, 특히 다운증후군과 같은 염색체 이상의 아동을 낳을 확률이 높다. 사산율은 임신부의 연령이 20~24세일 경우가 가장 낮고, 35세 이상일 경우가 가장 높다. 다운증세의 아동을 낳을 확률은 30세 이전에는 약 1/1,000이고 40세 때는 1/100이며 45세 때는 1/45로 높아진다

- ③ 임신부의 체격 : 임신부가 비만증일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다.
- ④ 임신부의 혈액 : 부모의 혈액형이 불상승(Rh)일 때, 태아는 심한 빈혈증을 일으키게 되어 사산아 또는 조산아가 되거나 뇌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 ⑤ 임신부의 혈액의 산소 수준 : 태아의 혈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산소 공급이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산소결핍증 : anoxia), 태아의 신경 조직과 뇌에 손상을 주어 유아가 뇌성마비, 발작, 지적결함 및 과활동 증상이나 학습 장애를 보이게 된다. 산소결핍증(anoxia)은 주로 출산 중에 일어나기 쉬우며, 임신부의 피로 상태와도 관련이 높다.

3) 임신부의 습관

임신부의 습관으로 크게 고려되는 요소로는 흡연, 음주, 카페인 등을 들 수 있다.

- ① 흡연 : 흡연하는 여성의 자녀들은 비흡연 여성의 자녀들보다 출생시 평균적으로 0.2kg 가량이 더 적다(Floyd, etal., 1993).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며 태반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태아에게 보내지는 영양물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영양의 결핍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학령기 때에 주의집중시간이 짧아지거나 학습에 장애를 갖게 될 위험이 커진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심하게 흡연한 자녀들 중에서 문제 행동이 높은 비율로 발생한다는 증거도 나타나고 있다
- ② 음주 : 임신부가 심한 음주가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그 자녀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FAS)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정상 아동들보다 신체가 더 작으며 뇌도 더 작다. 또한 심장결함을 갖고 있으며 얼굴 모습도 현저하게 다르다. 이들은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정상인보다 더 작은 머리와 신체를 가진다. IQ점수도 낮아서 약한 정신지체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임신부가 하루에 포도주 두 컵과 같이 적절하거나 '사교적인' 음주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음주를 한 어머니의 자녀들도 IQ 85 이하가 될 위험이 증가했으며 주의집중시간이 짧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 ③ 카페인 : 커피나 차, 콜라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 역시 양수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유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4) 약물과 질병(1)

- 약물과 질병도 태아의 발달에 손상을 준다. 그 영향은 임신 3개월경까지가 가장 큰데 이 기간에는 임신부가 자신의 임신 여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약물의 치명적 영향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1960년대 유럽에서 임신부가 복용한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진정제의 사례이다. 임신부가 아침에 생기는 구토증을 진정시키느라고 배아기(embryonic period : 임신 3~8주) 때 이 약을 복용하였는데, 아기에게 사지 발달의 지체가 나타났다. 팔과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거나, 팔과 다리가 배아기의 형태와 유사한 미발달된 상태로 태어났다. 이러한 사지의 발달은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의 섭취와도 관련이 있고, 아스피린 같은 약도 안전하지 않다.

5) 약물과 질병(2)

- DES(Diethylstilbestrol)는 임신한 여성의 유산을 막기 위해 한번에 투여되는 합성 에스트로겐이다. DES를 투여한 여성의 여아는 암에 걸리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남아의 30%는 생식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osenblith, 1992). 아스피린은 임신 초기(3개월)에 섭취하게 되면 태아의 신체적 기형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홍역과 같은 질병은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부가 임신 3개월 이내에 홍역이 걸렸을 경우 지체아, 빈혈 등의 특수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

일반 감기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독감의 경우는 다르다. 또한 매독, 당뇨, 임질 등도 태아의 발달에 큰 해를 준다.

방사선(X-ray)의 영향도 빼 놓을 수 없다. 임신 중에 암 치료나 건강 진단을 위해, 또는 핵 방사능이라는 직업상의 경우로 방사선을 쬐일 경우, 태아가 죽거나, 기형아가 되거나, 뇌 상해 또는 특정한 종류의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난자가 수정되어 자궁에 착상을 하게 되는 임신 2주 사이에 방사능을 쬐었을 경우에는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그 후의 방사선의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으나 계속 위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뇌와 다른 신체 조직에 결함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2. 태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제

1) 생물학적 문제

- 태아기의 발달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생물학적 문제,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물학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불임의 문제이다. 만약 결혼한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실현 가능한 불임대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임신부의 연령, 영양상태, 질병 등은 태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 최고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가임여성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신 전에 철저한 의료적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하며, 또한 임신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유전적 질병, 흡연, 음주, 방사선, 환경오염, 약물복용 등으로 인한 선천성 장애의 예방 방법과 대책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임신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건이 존재하면 철저한 의료적 진단과 그에 따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심리적인 문제

- 심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원하지 않는 아이의 임신으로 인한 임신부의 부정적인 심리반응이다. 특히 성폭력에 의한 임신, 계획에 없던 아이의 임신 등은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영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가족 및 사회생활계획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사회적인 문제

-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는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정의 문제이다. 재정적인 결핍으로 임신 중에 필요한 영양과 의료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사는 이들이 적절한 의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여야 한다. 의료적 지원 이외에도 직접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가사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신체운동발달

1) 신체 발달

- 신체발달은 유전과 성별, 영양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신체적 성장에서 가장 뚜렷한 지표는 키와 몸무게이다.

특히 영아기의 키와 몸무게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영아의 몸무게는 생후 5개월경에는 출생시의 2배가 되며, 1년경에는 3배가 된다. 신장은 1년간 1.5배가 되어 신장보다 체중의 증가가 더 두드러진다. 그리고 뇌의 급격한 성장으로 머리는 다른 신체부위에 비해 크다. 머리 둘레는 생후 1년이 되면 가슴둘레와 거의 비슷해진다.

2) 운동 발달

아동의 대근육 기술발달

연 령	대근육 기술발달 내용
2세	뛰 수 있다. 한 번에 한 층계씩 계단을 올라가며 큰 공을 찰 수 있다.
3세	한 발로 설 수 있다. 양발을 교대로 사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며, 맨 아래 계단에서 강충 뿔 수 있다. 양발로 뿔 수 있다.
4세	세발자전거를 타며, 매우 자연스럽게 뿔다. 공을 머리 위로 해서 멀리 던질 수 있으며, 한 발로 뿔 수 있다.
5세	직선을 따라 걷는다. 발을 바꿔가며 층계를 내려간다. 음악에 맞추어 걷는다. 땅에서 튀어 오르는 공을 잡는다.
6세	한 발 뛰기, 뛰어넘기, 오르기 등을 할 수 있다.
7세	자전거를 탄다.

3) 감각 발달

- 여기서는 신생아기의 감각발달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출생에서 5개월 사이의 영아는 매우 빠른 신체적 발달을 보인다. 출생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사 운동을 나타내고 점차로 신체의 여러 부분은 통제적이고 협응적이게 되며,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알아내는 감각 능력이 정교해진다.

반사 행동은 신생아들이 나타내는 매우 조직화된 행동 패턴을 말한다. 밝은 빛 앞에서 눈을 감는 반사, 눈 깜박이기, 하품, 재채기, 구역질과 같은 자기보호적인 생존반사는 평생 지속되지만 신생아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반사(빨기반사, 모로반사, 바빈스키 반사)는 생후 6개월경이면 사라진다.

※ 신생아기에 나타나는 반사용어해설(1)
(1). 모로 반사(moro reflex)

신생아가 보이는 반사 행동의 하나로서 커다란 소리나 밝은 불빛에 의하여 놀라거나, 혹은 갑자기 목이 뒤로 젖혀질 때 팔을 벌리고 손가락을 짹 펴며 목을 쭉 폼다가 가슴에 모으고 손을 짹 쥐는 것을 말한다.

(2). 바빈스키 반사(Babinski reflex)

유아기(乳兒期)에 나타나는 반사행동의 하나로서 아기의 발바닥을 툭툭 건드려 간질이면 발바닥을 부채처럼 짹 펴면서 발을 안으로 비튼다. 이런 행동은 성인들의 발바닥을 똑같은 방법으로 자극하였을 때 발가락과 발바닥을 안쪽으로 움츠리는 행동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 반사행동은 생후 6~9개월 사이에 사라진다.

(3). 빨기 반사(sucking reflex)

입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빠는 반사 운동

(4). 삼키기 반사(swallowing reflex)

음식물을 삼키는 반사운동, 이 반사는 출생시에 존재하나 처음에는 호흡과 잘 결합되지 않는다.

(5). 찾기 반사(rooting reflex)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원초적 반사」 중의 하나로 손가락이나 젖꼭지로 아기의 뺨을 건드리면 머리를 그 쪽으로 돌려 입을 열어서 빨기 동작이 시작된다. 이 반사 행동은 생후 9개월경에 사라진다.

(6). 파악 반사(grasping reflex)

신생아에게 나타나는 반사 중 하나로, 아기의 손바닥을 두드리거나 손바닥에 물체를 대면 꼭 잡는 행동

2. 인지 발달

1) 인지발달의 개념

- 인지(Cognition)란 지각, 판단, 추리, 결정, 이미지 형성, 기억, 이해 등 외적세계 및 내적 세계로부터 단서를 근거로 사물, 사상에 대한 지식을 획득할 때에 작용하는 능동적인 정보수립 및 처리활동을 의미한다.
- 그 과정은 생득적 내지는 경험적으로 획득하고 있는 기유지식에 의거하여 외계로부터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변환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기억하는 과정이다.
- 인지과정으로서 지각, 기억, 사고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인지발달이란 아동의 사고과정, 즉 아동이 이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지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이 발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2) Piaget의 인지발달의 단계

(1) 감각운동기 1단계 (전조작기의 인지발달)

- 생후 1개월 된 아기는 '감각운동기' 1단계에 있으며 반사기(modification of reflexes)에 해당된다. 빨기반사, 파악반사 등의 반사반응이 나타난다. 이 단계의 도식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보기, 잡기, 치기, 때리기와 같은 행동패턴도 포함한다. 최초의 도식은 타고난 반사들로 이루어지며 가장 우세한 반사는 빨기반사이다.
- 모든 대상을 빨기 도식에 동화시켜 보게 된다. 아기들은 반사적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반사적 자극이 없을 때도 반사를 닮은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지적 활동의 기초가 된다.

(2) 감각운동기 2단계

- 감각운동기 2단계는 1차 순환반응(Primary circular reaction 1~4개월경)이 나타난다. 아기는 우연히 행한 움직임으로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내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려고 한다. 손가락 빨기와 같이 아기는 자신의 벌려진 입 속에 우연히 손가락을 넣게 되고 빨기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손가락이 입에서 빠지면 재미있는 빨기 행위를 반복할 수 있도록 다시 손가락을 입 속으로 넣으려고 한다. 여기에서 1차적이란, 영아의 행동이 기본적인 반사 기능이거나 기본적인 운동 기능이기 때문에 붙여진 것으로 즉, 자신의 신체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1차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1차 순환반응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도식(예 : 빨기 도식)을 연습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다.

(3) 감각운동기 3단계

'감각운동기'의 3단계는 2차 순환반응(Secondary circular reaction : 4~8개월경)이다.

4개월 정도가 되면 영아는 비로소 자신의 신체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활동으로 주의를 돌릴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몸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외부세계에 대한 행동이 반복해서 일어나므로 2차 순환반응이라고 부른다. 이는 선천적인 반사가 아니라 영아가 학습을 통해 획득한 반응이다.

▶ 예)

- 영아가 손을 내젓다가 모빌을 건드렸을 때 뜻밖에 모빌이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게 되었다.
- 이때 영아는 다시 모빌을 건드려 그 소리를 다시 한 번 들어본다.
- 다음에는 좀 더 자신있게 흔들어서 모빌의 움직임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
- 그리고 나서 상당한 동안 이 행위를 되풀이하게 된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전에 획득한 반응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려는 것이 이 단계의 특징이다.

(4) 감각운동기 4단계

- Piaget의 인지발달단계 '감각운동기' 중 제4단계 2차 순환반응의 조정(통합)(coordination of secondary reaction : 8~12개월경)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제 영아는 자신이 바라는 목표를 획득하기 위하여 이미 전에 획득한 도식을 병합하고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즉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전에 획득한 두, 세 가지 도식을 결합시킬 수 있다.

▶ 예)

- Piaget는 어린 딸이 성냥갑을 잡으려는 행동을 보이자 손으로 성냥갑을 가림으로써 장애물을 제시했다.
- 처음에는 그것을 무시하거나 넘어서 돌아가려고 애를 썼다.
- 며칠 후에 손을 치움으로써 방해물을 제거하고 성냥갑을 잡는 데 성공했다.
- 즉, 두 가지 도식인 잡는 것과 치우는 것을 협응시키게 된 것이다.

(5) 감각운동기 5, 6단계

- Piaget의 감각운동기 제5단계 3차 순환반응(tertiary circular reaction : 12~18개월경)과 제6단계 : 표상적 사고(representational thought : 18~24개월경)에 해당된다.

▶ 3차 순환반응(tertiary circular reaction : 12~18개월경)

- 12개월이 되면 영아는 단지 목표를 획득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고자 한다.
- 즉, 행동의 결과를 살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경을 탐색하기 시작한다.

▶ 예)

- 목욕을 하다가 고무로 된 장난감 오리를 물 밑에서 놓아 보았더니 오리가 물 위로 떠올랐다.
- 아기는 다시 오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어 본다. 이번에도 오리는 물 위로 튀어 올랐다.
- 이제 오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래도 오리는 물 위로 튀어 올랐다.
- 아기는 계속 몇 번이고 오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다.
-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장난감에 붙어있는 끈을 잡아당기거나, 장난감이 놓여있는 작은 깔개를 잡아당김으로써 장난감을 손에 넣을 수 있다.

▶ 표상적 사고(representational thought : 18~24개월경)

- 직접해보지 않고서도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좀 더 내면적으로 사고한 후 행동함
- 표상적 사고란, 행동하기 전에 문제에 대해 정신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의미

* 표상 행동을 통해 이루어짐

▶ 예)

- Piaget의 딸 루시엔느는 조금밖에 열려져 있지 않은 서랍형 성냥 중에서 고리를 꺼내기 위해 애를 썼으나 실패했다.

- 그러자 갑자기 행동을 멈추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자기 입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더니 재빨리 성냥갑 서랍을 열어서 고리를 꺼냈다.

- 이것은 비언어적인 상징 표상으로서, 행동하기 전에 상황에 대해 행동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사고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 이와 같은 감각운동단계의 행동적 지능을 Piaget는 감각적 지능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후기에 발달하는 개념적 지능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6) 전조작기

-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는 2~6.7세까지로 유아가 언어와 같은 상징적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사고 기술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는 시기이나 사고가 직관적이어서 효율적인 논리를 사용할 수 없다. 상징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전조작적 단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막대기가 총이 될 수도 있고, 우유컵이 될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물을 상징하는 상(像), 단어, 행동 등을 어떤 기호로 쓸 수 있게 된다.

전조작기 유아의 특징은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아 중심성, 물활론적 사고, 도덕적 실재론, 꿈의 실재론, 보존 개념 등에서 잘 나타난다.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아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는 뒤의 사고의 발달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도덕적 실재론, 꿈의 실재론, 보존 개념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3. 정서 발달

1) 영.유아의 정서 발달 과정

- 영아는 출생 후 처음 3개월 동안에 기쁨, 분노, 경악, 괴로움 등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고 출생 후 일 년 이내에는 신중성, 두려움, 싫증, 화, 놀라움 등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부끄러움, 수줍음, 죄책감, 애정, 반항심 등은 두 살이 되기 전에 나타나고, 정의감, 자신감, 질투심, 사랑, 경멸감 등은 그보다 훨씬 뒤에 생긴다고 한다.

- 그러면 아동의 언어적인 정서 표현의 발달은 어떠한가? 에크만(Ekman, 1972)에 의하면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서의 개념은 성인의 정서 개념과 매우 다르다. 그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서의 재인, 명명, 분류 등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 결과, 사람들이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보편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특정 정서에 대해 공포, 혐오, 화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 방식에는 공통성이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서에는 원형(prototype : 기쁨, 슬픔, 공포, 화 등)이 있고 이 원형이 혼합된 정서가 있으며, 원형은 선천적인 것이고 혼합된 정서는 학습된 것이라고 보았다. 영아는 '기쁨과 슬픔', '공포' 등의 원형적인 정서는 구분할 수 있지만 혼합된 정서는 구분하지 못한다.

2) 영.유아의 정서적 특징

- ① 아동의 정서 표현은 강렬하다. 이들은 사소한 상황에서건 심각한 상황에서건 똑같은 강도로 강렬하게 정서를 표현한다.
- ② 아동은 정서적 반응을 매우 자주 보인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때로는 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③ 아동의 정서는 일시적이다. 금방 울다가 웃거나, 화를 내다가 미소를 짓고, 금방 질투를 보이다가 애정을 보이는 등 아동의 정서는 쉽게 변한다.
- ④ 영아의 정서 반응의 유형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러나 학습과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아동의 정서 반응이 점차 개별화되기 시작한다.
- ⑤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각 정서의 강도가 변한다. 질투심이 강하게 작용하는 연령이 있는가 하면, 약해지는 연령이 있다. 반대로 어떤 연령에서 약한 정서가 다른 연령에서는 강해지는 경우도 있다.
- ⑥ 아동의 정서는 행동적 증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느끼는 어떤 정서가 직접 표현되지 못할 때 이것이 왜곡되어 백일몽, 언어 장애, 손가락 깨물기 등의 행동적 증후로 나타날 수 있다.

1. 언어 발달

1) 영.유아의 언어 발달

- 유아의 언어발달(language development)은 크게 언어획득 이전의 시기와 언어시기로 나누어진다.
- 유아의 언어발달은 신체발달이나 인지발달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발달 순서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물론 유아 개인의 발달 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비슷한 과정과 순서를 밟으면서 이루어진다. 언어획득 이전 시기란 유아가 아직 말을 시작하기 전에 소리를 내는 시기를 말한다.
- 신생아가 출생한 후 시간이 흐르면 목적의식을 갖고 우는데, 이것은 울음을 자기 표현의 초보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생후 1개월경부터 신생아는 울음소리 외에 호흡과 관련되는 'ㅎ'소리와 모음 비슷한 소리인 웅얼거리는 소리(Cooing Sound)를 내는데, 웅얼거리는 소리는 3개월경에 웅얼이(babbling)로 이어지고 웅아리는 첫 단어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된다.

2) 언어 발달 이론

-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은 언어발달이 유전과 환경요인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으로 설명된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 ① 언어는 경험적인 훈련에 의한 후천적으로 강화된 환경의 결과라는 입장 - 학습이론
 - ② 선천적이고 생득적인 능력으로서 지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 - 생득주의관점
 - ③ 생득적인 능력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입장 - 상호작용 주의관점
- 여기서는 언어발달이론 중 대표적인 학습이론, 촘스키와 렌네버그의 이론 생득주의, 상호작용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본다.

(1) 행동주의 이론

- 행동주의 이론은 유아의 언어습득이 선천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험적인 훈련과 강화작용, 모방, 반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입장으로 1960년대에 지배적이었던 이론이다.
- 행동주의자 Skinner는 유아의 언어발달은 부모들이 제공하는 강화에 의해 학습되어진다고 했다. Skinner는 1957년 「언어행동(Verbal Behavior)」이라는 책을 출간하여 언어는 하나의 행동이며, 언어의 출현과 발달 역시 학습의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고 했다. 강화와 모방이 음운론, 의미론, 실용적 규칙에 대한 유아의 획득을 설명하는 체계로 이용된다.

(2) 생득주의 이론

- 1950년대 말과 1960년대에 행동주의 이론의 제한점이 제기되면서, 언어의 형태와 이들 형태의 표현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정신과정에 대해 설명하려는 생득주의 이론이 대두하였다. 이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Noam Chomsky를 들 수 있다.
- Chomsky는 인간 언어의 선천성(innateness)과 보편성(universality)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언어획득장치(Language Acquisition Device, LAD)와 변형생성이론(transformational generation theory)이라는 개념으로 요약하였다.
- Chomsky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물학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언어능력이 있어서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이 언어획득장치(LAD)의 도움으로 자신의 모국어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인종이나 지능 등의 개인차에 관계없이 자신의 모국어를 획득하여 사용하는 일에는 그리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3) 상호작용주의 이론

-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언어발달에 있어서 상호작용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두 이론의 주장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두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유아의 능동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소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 상호작용주의 이론에서는 사회적, 언어학적, 성숙적, 인지적 제 요인들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수정하면서 언어가 발달한다고 본다. 이는 언어습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에 대한 생각에 따라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이론과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 인지적 상호주의자들은 언어발달이 인지발달에 의존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3) 언어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정서적 접촉

- 유아의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보호자와 애정적이며 신체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

(2) 후속반응

유아 언어발달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유아가 내는 소리에 대한 후속반응이다.

(3) 보호자와의 대화

성인이 아기와 효과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아동을 그들의 대화상대로 생각하는 것이다.

(4) 성차(Sex differences)

언어발달에 관한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면 여아는 언어획득의 모든 측면, 즉 어휘 수, 문장 길이, 발음, 문장의 복잡성 등에서 남아보다 우수하다.

(5) 가정환경과 사회계층

일반적으로 하류층의 아동은 어휘가 제한되고 문법적으로 부정확하며 덜 세련된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 속에서 의사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들 사회에서 통용되는 문장 형태나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선호된다.

(6) 형제 수 출생순위, 형제 간의 연령차

형제가 많은 가정에서 성장한 유아는 형제가 적은 가정에서 자란 유아에 비해 어휘수가 적은 동시에 언어추리와 같은 언어능력 전반에서 열등하다.

(7) 지능

아동의 지능과 언어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지능지수와 어휘의 양, 조음능력, 언어성숙 간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면 지능이 높은 우수아는 언어발달이 빠르며 정신 지체아는 언어발달에 문제가 있다.

2. 사회성 발달
1) 영.유아기의 사회성 발달

- 첫 1개월 동안에 영아는 안전감과 신뢰감의 감정을 발달시킨다. Erikson도 출생 ~1세까지는 신뢰감 형성에 중요한 시기라 했다. 그러나 영아는 그들 스스로 이러한 감정을 발달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로부터 이러한 감정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주 양육자는 영아가 안전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형성된 안전감이나 신뢰감은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중요한 양육자의 행동은 영아의 고통, 요구, 기쁨의 신호에 즉각적이고, 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2) 자아존중감(Self-esteem)

- 자아존중감은 유아가 자기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며 자기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며, "나는 가치로운 사람이며,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유아 자신이 갖고 있는 자아상과 자신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타인(타자)들로부터의 반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과소 또는 과대로 평가하며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된다.

- 유아가 자아 존중감을 갖고 사회화되는 첫 단계는 부모나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이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또는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등에 영향을 준다.

-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의 특성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
.자신의 성취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 .좌절감을 잘 참는다.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다양한 감정을 나타낸다.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피한다. .자신의 재능을 낮게 평가한다. .타인에 의해 자신이 옳게 평가되지 않는다고 느낀다. .타인을 비방한다. .자기방어적 태도를 갖는다. .쉽게 좌절한다.

자료출처 : 유효순·홍순정 공저, 「유아사회지도」, p. 117.

3) 자아의 발달

- 영아기에 접어들면서 영아들은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자신과 물체(object),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면서 자기의식이 발달하고 자신을 개체화한다. 자아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된 자동화된 정체감이 형성되면서 발달한다. 타인과 분리된 자아감과 자아와 타인의 개념은 사랑, 미움, 질투, 죄책감 등 복잡한 정서의 발달에 필수적이고, 이를 통하여 진정한 사회적 관계가 유지되고 발달한다.

- Sarbin(1959)은 "자아란 인지구조 또는 추론의 하나이며, 자아는 경험적으로 유도되는 경험의 산물이며, 자아는 다른 인지구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하며 단순지각에 대한 하위수준의 추론에서 복잡한 인지에 대한 고위수준의 추론으로 변화한다."라고 했다.

3. 사회복지 실천과제와 연구과제

1) 사회복지실천과제

- 사회복지실천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아기의 신체적 발달과 관련된 문제는 선천성 질병과 장애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는 선천성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영아들이 조기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나 방임의 문제는 영.유아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사회복지사는 아동복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유아를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가족의 욕구와 학대를 받는 유아들의 욕구를 조사해 보고 지지적 서비스 제공뿐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과 함께 아동복지전문 기관에 연결해 줄 수 있어야 한다.

2) 연구과제

① 아동학대(신체적.정서적.성적학대)나 방임을 꾸준히 당하는 영.유아가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이럴 때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개입하고 원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구체적 연구해봅시다.

② 현재 우리나라는 남아 선호사상으로 인해 심각한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을 겪고 있다. 보육시설에서도 남아와 여아의 짝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합시다.

③ 어머니의 사회활동이 영.유아와 애착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단점을 논의해 보시오.

④ 언어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유아가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원조해 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⑤ 유아가 인지발달은 성장이 빠르나 사회성 발달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시오.

1. 신체운동, 인지, 사회정서, 언어발달

1) 신체.운동발달

- 아동기의 성장 속도는 영아기나 유아기에 비해 느리다. 학동기 동안 평균적으로 매년 2~3인치 정도 성장하며, 3~5파운드 정도 몸무게가 늘어난다. 외형적으로 학동기에는 키는 커지고 살은 빠져서 말라보이며, 팔과 다리가 유난히 길어 보인다.
- 이러한 신체적 성숙은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성숙이 더 빠르지만 11~12세경에는 여아의 신체적 성숙이 남아보다 더 우세해진다.
- 또한 학동기 초기에 유치(20개)가 빠지기 시작하여 보통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새로이 영구치(28~32개)가 나오게 된다.
- 이 시기 동안 뇌의 크기는 성인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 머리의 성장은 더디어지나 기능에 있어서는 발달이 계속된다. 12세경이 되면 뇌 중량이 성인의 95% 정도에 이르게 된다. 학동기 무렵 아동의 면역적 저항력이 보다 발달하기 때문에 유아기에 비하여 질병 감염률이 떨어지고 나은 건강 상태에 머무른다.
- 성장과 증진된 공간적 신체 협응 능력으로 인하여, 아동들은 달리기, 점핑하기, 균형잡기와 같은 운동 통제력이 발달된다.
- 반응 시간이 짧아지면서 아동들은 공을 던지고 잡는 기술이나 팀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다른 기술들에 있어서 유능해진다.
- 학동기의 소근육 운동 발달은 정교화 단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아동들의 쓰기와 그리기는 보다 통제적이며 정확해진다. 전반적으로 여아들이 소근육 발달에 있어서 남아들을 앞서고, 남아들은 힘이 필요한 대근육 운동에서는 여아들을 앞선다.
- 12세경이 되면 팔, 어깨, 손목의 근육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성인의 수준으로 되므로 성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대부분 할 수 있다.

2) 인지 발달

- 이 시기의 아동들은 사고와 추론 능력에 있어서 전형적인 유아기와는 다르며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아동은 이제 초기 사고의 기초였던 물리적 활동에 반대되는 정신적 표상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유능하고 유연하게 된다. 사물과 사건에 대한 정신적 표상을 사용함으로써 아동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한 번에 여러 가지의 측면에 집중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물리적인 조작의 가역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보존 개념을 갖게 된다. 또한 학동기 동안 아동들은 길이, 무게, 크기와 같은 준거에 따라 순서적으로 사물을 배열할 수 있는 서열화 능력을 완성한다.
- 이 시기 아동들은 가설적이고 추상적인 상황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삼단논법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공간적인 사고에서는 보다 유능성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5~6세 아동은 마주한 사람이 있을 때, 오른쪽.왼쪽의 방향을 혼란스러워하지만, 7~8세 무렵 정신적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고할 수 있고, 마주한 사람의 측면에서 오른쪽.왼쪽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학동기 아동은 매우 호기심이 많다. 아이들은 모험을 즐기고, 바깥 세상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축적시킨다. 이러한 아이들은 꿈과 환상의 동화나 재미있는 책, 동물.모험.초자연(신비).영웅 등에 관련된 이야기를 즐겨 읽는다. 학령기 아동은 구체적(실제)이고 추상적(단지 생각 속에 존재) 경험을 모두 필요로 한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과 학습을 하며, 자유시간에는 예능이나 취미활동에 관심을 갖는다. 이 시기의 아동은 구체적 조작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으며 분류, 서열화, 유목포함(상위유목과 하위유목을 이해하는 능력)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학습뿐만 아니라 이야기, 놀이 등을 창조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3) 사회.정서 발달(1)

- 아동은 성장함에 따라 분화된 다양한 정서적 감정을 느끼며, 정서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도 유아기와는 몇 가지 차이를 드러낸다. 학동기의 정서 표현 방식은 언어와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기는 모방성이 강하므로 성인과 같은 정서 표현을 학습하여 성인과 같은 정서 표현을 하며, 점차 유아적 정서 표현 방식은 억제된다.
- 학동기에 정서 발달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되는데, 즉 애정, 기쁨, 공포, 불안, 분노, 질투, 호기심 등의 정서 유형이 발달하며, 정서 이해 능력에 있어서도 인지 발달의 영향으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 아동의 애정은 먼저 그들의 부모나 가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발달되어 학동기가 되면 생활의 장이 확대되어 교사나 친구에 대한 애정이 나타난다. 애정의 발달면에서 보면 6~7세경에는 부모와의 애정 관계가 중심이 되며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많다. 8세경에는 남녀같이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며, 9세경에는 부모의 애정에 비판적이 되고 10~12세경에는 애정이 교사나 친구에게로 향한다.

4) 사회.정서 발달(2)

- 아동기의 공포 요인은 유아기와는 달리 직접적인 자극으로 인한 공포는 점점 줄어지고 상상적, 비현실적, 가상적,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공포가 많아지며, 특히 이 시기는 학동기이므로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진다. 특히 4~5학년 시기에 학교 공포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
- 분노의 정서에 있어서는 유아기에는 구속이나 간섭에 부딪쳐 분노를 일으키지만 학동기에는 소망의 금지, 진행 중인 활동의 방해, 꾸짖기만 하는 것, 다른 아동과의 불리한 비교를 하는 것 등이 분노의 원인이 된다. 가급적 분노를 자극해서는 안 되며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일로 분노를 유발할 때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아지므로 적절한 지도로 제거해 주어야 한다.
- 질투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애정이 혼합된 정서로서 자신에게 향하던 사랑이나 관심이 다른 대상에게 옮겨질 때 나타난다. 자신이 받고 있는 사랑이나 관심의 정도가 강할수록 질투도 강해진다. 대체로 질투심은 내성적인 아동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아동일수록 강하며 남아에 비하여 여아가 더 강한 편이다.
-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학동기 아동은 충동적이고 장의존적인 성격 특성이 보다 사려적이고 장독립적인 경향으로 발달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도덕성이 발달하고, 성 역할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5) 사회.정서 발달(3)

- 아동의 사회화 과정은 도덕성의 발달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도덕성의 발달은 어린 시기에 이미 기초가 형성되며 학동기 동안에 확고하게 형성되어 간다. 4~10세 아동은 타율적 도덕성의 단계에 있다.

- 학동기 아동은 확고한 성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어 성 향상성을 갖게 되고, 동성의 또래와 더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학동기는 또래 문화가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개념과 역할 수용능력이 증진된다.

학령기 아동은 혼자서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공상하며 보내기 때문에, 조용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 아이들은 연극이나 음악회에 실제로 참여하며 즐거워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좋아한다.

- 친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시기에는 가족보다도 친구의 영향을 더 받는다. 또래집단은 대개 동성집단으로 같은 연령층, 같은 취미, 그리고 지능이 비슷하다. 학령기 아동은 종종 집단의 일부가 됨으로써 타인을 모방한다. 이때는 유행, 우상(가수, 영화배우, 스포츠 선수)과 수집활동이 공통적인 관심거리다. 텔레비전과 영화가 행동모델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보통 단체 활동에 가입한다. 우주소년단,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스포츠, 캠프 등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확고하고 일관성 있는 지도지침은 아이들이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 여아들의 관심 영역은 스포츠, 게임, 인형놀이, 가사 돕기, 독서, 어린 동생과 놀기, 친구 집에 가서 자며 놀기, 춤추기, 전화 걸기, 비밀 이야기하기, 일기 쓰기 등이 포함된다. 한편, 남아들의 관심 영역은 스포츠, 게임, 모기 부리기, 독서, 어린 동생과 놀기, 탐험과 자연탐구 등이다.

- 또한 이들은 인정받고 비평받는 것 모두에 민감하다. 아이들은 남이 자기를 좋아해 주도록 관대하고 협조적이 된다. 긍정적인 강화는 아이들이 바람직한 태도로 행동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의 발달을 강화시킨다.

6) 사회.정서 발달(4)

- 학령기 아동은 또래집단에 동조하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또래의 압력에 쉽게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도 학업에서의 실패, 무서운 이야기, 상처, 부모나 친구 또는 자신의 죽음 등에 두려움을 느낀다. 이런 아이들에게 자신의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표현하도록 해주며, 노력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켜 준다. 그리고 상상력의 사용을 타당화시키고 안전에 관한 예방책을 가르친다.

- 아동기의 정서장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등교 거부증(school refusal) 또는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이다. 특히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 공포증이라는 정서 장애로 나타나게 된다. 아동기의 친구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7~8세경에는 동성친구하고만 어울려 놀며 이성친구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9세경이 되면 아동은 집단을 형성하여 함께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집단을 짝패(clique) 또는 도당(gang)이라고 하는데, 이는 집단으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것이지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는 않다.

7) 언어 발달

- 아동기의 언어 능력은 인지적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아 시기의 극적인 언어 확장은 학동기에서는 단순한 언어적인 자기표현에서 자기표현을 문자로 적을 수 있는 상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수용적 언어 능력에서는 단지 듣기에서 읽기로 증진을 의미하며, 표현적 어휘는 말하기에서 의사소통 과정을 쓰는 것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학동기 아동의 새 단어 습득 능력은 이전의 시기에 비하여 월등한 진전을 보인다.

-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다양한 관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은 학동기 아동의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도 다양한 화자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에 있어서, 학동기 아동들은 유머나 농담을 즐기며, 지나치리만큼 말이 많은 경향을 나타낸다. 창의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많이 한다. 이야기 꾸미기, 동극, 인형극 등을 좋아하고, 성공적으로 읽고 쓰기를 학습한다.

2. 아동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제

- 아동기에도 신체적 성장에 필요한 영양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결식아동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의 신체발달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나친 영양 공급으로 인해 비만아동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아동기의 비만은 아동의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아동의 영양관리 프로그램이나 비만교실 등을 개설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위축된 아동을 지원해야 한다.

- 또한 장애아동의 조기치료와 재활을 위해서 장애아의 조기치료 및 특수교육기관이 증설되어야 하며 특수교육을 받은 전문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장애아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비장애인과 함께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기의 아동학대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유아기 때 격리불안을 느껴 아동기에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개인상담이나 가족치료 프로그램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아동기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모를 둔 자녀들이 방과 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방과 후 반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방과 후 아동보호 프로그램으로 연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기의 사회성 미발달로 인해品行장애(conduct disorder)를 보이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의品行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상적 지식과 실천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외 학습장애를 겪는 아동을 원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3. 연구 과제

- 1)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결식아동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연구해보도록 합시다..
- 2) 비만 아동이 아동기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
- 3) 아동학대 사례를 찾아보고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오
- 4)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발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장.단점을 제시해 보시오.
- 5)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방과 후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원조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6) TV가 아동기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논의해 보시오.
- 7)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교육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오.
- 8) 우리 주변에品行장애(conduct disorder)를 보이는 아동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개입하고 원조할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1. 신체운동, 인지, 심리, 사회적 발달

1) 신체 운동 발달

-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의 특징은 급속한 성장과 생식능력의 획득이다. 이러한 신체적 발달특성 때문에 제2의 성장급등기(second growth spurt)라고 부른다.

- 청소년기에는 생식기관의 성숙과 제2차 성징의 출현을 보이고 소화기, 폐, 심장과 같은 내부 기관도 급속하게 성장한다.

-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장비율이 이전보다 2배 정도 빨라지고, 성장급등기간은 약 2.5~3년 동안 지속되며,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가 2년 정도 빠르게 성장하지만 청소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남자의 신체적 발달이 더 우세해진다.

- 성장급등이 이루어지는 시기의 남자는 1년에 10cm 정도, 여자는 8cm 정도씩 성장하여 청소년기가 끝날 즈음에는 남자는 170cm 정도, 여자는 157cm 정도에 이른다. 신장의 증가와 더불어 몸무게의 증가도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남자는 20kg 정도, 여자는 16kg 정도 증가하며, 여자의 경우 체지방이 증가하여 둥근 외모를 갖게 되는 반면, 남자는 오히려 체지방이 감소되어 모가 난 외모를 갖게 된다.

- 남자는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어깨가 넓어지는 반면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 골반 부위가 넓어진다.

- 여자에게 나타나는 사춘기의 분명한 징후는 생리(menstruation)이다. 초경(menarche)은 일반적으로 12~13세에 시작되고 평균 50세경이 되면 폐경(menopause)이 된다. 생리 초기에는 배란이 되지 않고 초경 후 12~18개월이 지나야 임신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생리 주기는 여자의 기분과 감정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신보건 전문가들 중에는 여자의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데 생리주기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 남자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숙 때문에 한동안 혼란스러워 한다. 신장이 커지고 근육의 힘이 절정에 달하면서 스스로 신체에 대해 어색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운동 활동과 경쟁력을 증가시켜 긍정적인 신체상을 낳게 된다. 또한 목소리도 굵어지고 수염이 자라며 체모가 생기고 음경이 자라면서 사정(ejaculation)을 경험하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80% 정도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몽정을 한다. 이러한 경험은 성적 쾌감과 동시에 죄의식을 동반하기도 한다.

◎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성인에 가깝게 해 준다.
- ② 성역할에 대한 동일시를 강화한다. 즉,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는 남자는 좀 더 남자로서, 여자는 좀 더 여자로서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 ③ 신체적 변화 중에서도 특히 성적 성숙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을 청소년들로 하여금 양면적인 감정으로 반응하게 한다.
- ④ 이와 같은 급속한 자신의 신체적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어서 청소년들은 자기도취적인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2) 인지 발달

- 청소년기의 사고는 점차 성인과 유사해지면서 아동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고를 한다.

Piaget는 청소년기를 그의 인지 발달 이론의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로 보았다.

- Piaget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 능력은 11, 12세에 시작해서 15~20세 사이에 완성된다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청소년 자신의 지각과 경험보다는 논리적인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며,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즉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리고 모든 가능한 개념적 조합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건이나 현상과 관련된 변인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사고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출현하는 새로운 개념적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 ① 두 범주 이상의 변수를 실제로 조작하지 않은 채 정신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
- ② 사건이나 관계가 미래에 변화한다는 것을 사고에 고려해 넣을 수 있다.
- ③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의 연속에 관해 가설을 세울 수 있다.
- ④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 ⑤ 일련의 진술이나 문장에서 논리적 일관성의 유무를 구분한다.
- ⑥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상대론적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신의 가치관이나 행동양식은 자기가 속한 사회의 규범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은 그 사회의 규범에 따라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증가한다.

◎ 형식적 사고의 질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 ① 다양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두 개 이상의 변인을 정신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 ② 이질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동년배 집단에 참여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고
- ③ 학교수업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능력을 길러나가야 한다.

3) 심리적 발달

(1) 정서 발달

-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경험을 한다. 이러한 정서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storm and stress period)라고 부른다.

- 청소년기의 극단적 정서변화는 성적 성숙과 많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 청소년은 2차적 성적 특징의 발달과 그로 인한 성적 충동으로 인해 성적 색채가 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도 있으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허세적인 반항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청소년기는 감정이 격하고 기복이 심하여 낙관적·비관적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자부심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나 형제, 친구들이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양한 감정 중에서 강한 수치심, 죄의식, 우울, 분노, 수줍음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고 변화가 심한 청소년 시기의 주요과제는 자신의 감정에 보다 관대해지는 것이다.

- 이것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감정상태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령 감정의 표현이나 수용에 엄격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한 감정상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나 부적응 행동을 가져올 수 있다. 반면에 충동적이고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에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비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 청소년기에는 자아의식이 서서히 발달하면서 청소년은 혼자 있고 싶어 하고 고독에 빠지기 쉽다. 또한 자신을 타인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타인 앞에서 위축되는 느낌이 강화되어 열등감에 휩싸이기도 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목격하고서 실존적 공허감에 빠지기도 한다.

- 청소년기의 이러한 급격한 정서 변화로 어떤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지나치게 억압하여 우울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에 걸리기도 하는 반면에 정서에 대한 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에는 비행행동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서변화에 대한 인내를 길러야 하며,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자아정체감 발달

- Erikson(1959)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시기에 제시되는 의문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다.

-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통합성, 지속성을 경험한다고 한다. 개별성은 가치나 동기, 관심을 타인과 공유하더라도 자신은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성은 자신의 욕구, 태도, 동기, 행동양식 등이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지속성은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경과해도 자신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자아정체감 형성은 아동기의 동일시 경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의 감정, 태도, 가치관,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총체로 통합함으로써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 그러므로 정체감 형성은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정서적인 분리를 포함한다. 청소년들이 안정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숙과 성적 성숙, 추상적 사고 능력의 발달, 정서적 안정성의 확보, 그리고 부모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Marcia는 역할실험과 대안적 선택 중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위기(crisis)와 직업 활동, 종교, 정치이념 등의 수행에 몰입할 수 있는 정도 즉, 전념(commitment)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활용하여 정체감 형성에 관련된 위기를 경험하였는가, 역할에 대한 전념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자아정체감의 발달 상태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누었다.

① 정체감유실(identity foreclosure)은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선택하므로 위기도 경험하지 않고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② 유예(moratorium)는 정체감 위기 상태에 처하여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역할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서, 정체감 성취 또는 정체감 혼란 중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학은 청소년들이 유예상태에 머물면서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그 결과로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기관이다. 대학시절은 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시절을 심리사회적 유예기간(psychosocial moratorium)이라고 한다.

③ 정체감혼란(identity diffusion)은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개인적 신념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으며, 직업역할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④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념체계를 확립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 의사결정을 하며,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4) 사회적 발달

(1) 친구관계

- 청소년기에는 우정이 가족 간의 애정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되므로, 청소년들은 가족과의 대화보다는 친구를 만나거나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친구와 연락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 청소년들이 특정한 또래집단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계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치관, 거주지역과 학교의 성격, 특수한 능력이나 재질, 자신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일단 한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들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회적 활동, 공부방식, 이성교제, 취미 활동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또래집단과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집단 내 지위와 역할을 예측·평가하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된다.

-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통하여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동성의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며 가장 친한 친구 역시 동성의 친구인 경우가 많으며, 자신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는 상대도 동성의 친구인 경우가 많다.

(2) 이성관계

- 청소년기 초기에는 아직도 동성의 친구관계가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이성관계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다. 이성관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성적인 성숙과 사회적 기대의 결과이다. 이성교제를 하는 단계를 처음에는 동성친구관계의 연장된 형태로 동성과 이성의 친구가 집단으로 접촉을 하다가 점차 개인적인 데이트를 하고 사랑에 빠져드는 단계로 옮겨간다. 이러한 이성교제의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이성을 대하는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 즉, 청소년기에는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지만 막상 이성을 만나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아직도 청소년기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남아 있고 학업부담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으로 이성교제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 그러나 최근 들어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보다 유연성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이성교제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이 아니며 대체적으로 정신적 사랑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2.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제

-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년기로 전환하는 중간기 즉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만 성인이 되었을 때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학입시라는 제도상의 문제로 청소년기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시기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발달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무관심을 바로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실천과제로서 청소년기의 발달과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구조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 신체불균형 현상을 경험하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신체적 이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 식이요법지도, 몸매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와야 한다.

②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과 더불어 성적인 성숙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 성매매, 원조교제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보다 실질적인 성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부모와 교사는 개방적으로 청소년들과 의논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도 필요하다.

③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약물중독 등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중독 현상이 있는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외부의 평가에 민감하고 외부자극을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해석하는 데 왜곡될 가능성이 높고 또래 경험에서 위축되고 소외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돕고 제도권 밖으로 이탈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적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비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책은 거의 사후대책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복지정책과 학교사회사업 등을 통하여 청소년비행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처벌위주보다는 성격과 행동의 교정과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다. 비행 또는 범죄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와 같은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⑤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단상담프로그램개발, 진로지도, 자원봉사활동, 자아발달프로그램 등을 개발·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개성과 자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원조할 필요가 있다.

3. 연구 과제

- ① 청소년기에 급격한 정서적 변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
- ② 자위행위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고 가정하고 이때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 ③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 비속어 특히 컴퓨터 통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지 그 방법에 대해 토론.
- ④ 인터넷 중독이나 약물중독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여 원조해 줄 수 있겠는지 그 방안을 제시.
- ⑤ 어떤 청소년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떻게 원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 ⑥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가 청소년의 신체.정서.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
- ⑦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이 청소년기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
- ⑧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 ⑨ Erikson은 대학은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인도하는 기관이라고 했고 대학시절을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보고 대학시절을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라고 하였다. 현재 나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

1. 신체운동, 인지, 심리적, 사회적 변화

1) 신체 운동 발달

- 인간의 신체적 발달은 25세에서 30세가 가장 강건한 시기이다. 30세가 지나면 신체적 기능이 감퇴하기 시작하여, 손이나 손가락의 동작도 점차로 둔감해지기 시작한다. 시력, 촉각, 후각, 미각 등은 20세경에 최고에 달했다가 40세 정도가 지나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한다. 인간의 신체적 성숙은 청년기에 거의 완성되며 이 시기에는 신체적으로 활기, 힘, 건강의 최고 수준을 보이며 근육과 내부 기관의 기능도 이 시기에 최고 수준에 달한다.

- 청년기의 성장과 발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 중 신장과 체중, 골격, 생식기의 발달, 호르몬의 변화 등이 두드러진다. 청년기가 되면 신장, 체중, 간을 포함하는 일반 곡선(general curve), 생식기관의 성장곡선(reproductive curve), 두뇌, 눈, 귀 등을 포함하는 두뇌곡선(brain and head curve), 아데노이드, 림프노이드 등의 임파선 곡선(lymphoid curve) 등이 성장률 100에 도달하는 등 성장의 최고 수준이 된다.

- 청년기는 아동기보다 더 건강하고 질병률도 낮으며 이러한 최적의 근육발달의 시간적 차이로 인한 청소년기의 어색한 모습은 사라지고 청년기에는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추게 된다. 육체적인 힘은 25세~30세 사이에 최고조에 이르며 그 후에는 점진적으로 쇠퇴하나 대부분의 신체적 능력과 기술은 규칙적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그 기능이 청년기 이후에도 지속된다.

2) 인지 발달

- Piaget는 청소년기에 형식적 조작 사고가 발달한 이후에는 인지 발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반면 Arlin(1975)이나 Riege(1973)은 그 이후에도 인지발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인지능력 중 기계적 암기나 지적과제의 수행속도 등은 10대 후반이 가장 뛰어나지만 판단, 추론, 창의적 사고 등은 전 생애를 통하여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Bultes와 Schaie는 연령에 따르는 지능의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에서 지능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네 차원의 지능 중에서 시각 - 운동적 융통성은 청년기, 즉 25세 전후를 정점으로 하여 쇠퇴하였으나 인지적 융통성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결정성 지능과 시각화 능력은 오히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되었다고 한다.

- ① 결정성 지능 : 언어적 이해력, 수에 관련된 기술, 귀납적 추론과 같이 교육과 경험이 축적을 통해 습득되는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됨
- ② 인지적 융통성 : 동의어나 반대어를 생각해내는 것처럼 익숙한 지적 운용의 맥락에서 한 사고로부터 다른 사고로 전환하는 능력은 변화가 없음
- ③ 시각 - 운동적 융통성 : 시각과 운동능력의 통합을 요구하는 과제에서 익숙한 방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청년기를 정점으로 쇠퇴함
- ④ 시각화 : 복잡한 그림에서 간단한 형상을 찾아내거나 불완전한 그림을 확인해내는 것처럼 시각적 자료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향상됨

3). 심리.사회적 발달

(1) 이성교제 및 결혼

- Lesis(1973)는 배우자 선택과정을 유사성(similarity)단계, 라포(Rapport)단계, 자기공개(self-disclosure)단계, 역할탐색(role taking)단계, 역할조화(role fit)단계, 상호결정단계 등 6단계로 제시하였다.

- ① 유사성단계 : 상대방의 사회적 배경, 가치관, 성격 등이 유사함을 지각한다.
- ② 라포단계 : 상대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호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 ③ 자기공개단계 :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증진되며 서로 자유롭게 솔직한 자기 표현을 하는 단계
- ④ 역할탐색단계 : 밀접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구축해가고 상대방의 역할에 대해 기대를 형성한다.
- ⑤ 역할조화단계 :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와 역할 수행이 상호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 간다.
- ⑥ 상호결정단계 : 서로의 역할을 수용하여 확정하고 동반자로서의 정체감과 일체감을 느낀다.

(2) 직업의 선택과 준비

- Super는 직업선택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직업선택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① 직업개념 형성기(14세 ~ 18세) : 직업 활동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자아개념에 포함시킨다. (결정 단계)
- ② 희망직업 세분화 단계(18세 ~ 21세) : 선택가능한 직업의 범위를 좁히고 그에 필요한 기술과 전문 지식을 습득한다. (구체화 단계)
- ③ 직업수행단계(21세 ~ 24세) : 직업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직업세계로 진입한다. (실행 단계)
- ④ 안정단계(25세 ~ 35세) :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평가한 직업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는 단계(안정화 단계)
- ⑤ 공교화 단계(35세 이후 ~) : 자신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성공하는 단계

여기서 구체화 단계와 실행 단계, 안정화 단계는 청년기에 속하며 직업에 대한 준비와 선택의 중요한 시기이다.

(3) 성역할 정체감 확립

- 성인이 된 이후에 사회적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에 성역할 정체감(sex-role identity)을 형성해야 한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사회가 특정 성에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남자 또는 여자로서 특정 지어질 수 있는) 특성, 태도, 가치관, 흥미 등을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그 성에 따른 사회의 역할기대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 성역할(sex-role)을 정신분석이론에서는 Freud의 성심리 발달이론 5단계 중 3단계인 남근기에 남아아이는 Oedipus Complex, 여자아이는 Electra complex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 역할 동일시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된다고 하였다.

-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성역할은 직접학습과 관찰학습 즉, 어떤 model을 보고 학습한다고 한다. 직접학습이란 부모, 교사, 친구가 성에 적합한 행동은 강화하고 성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은 벌을 줌으로써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남자는 단호하고 경쟁적이며, 여자는 양전하고 협동적으로 자기 성에 적합한 행동을 학습하고 이러한 행동 유형은 강화를 통해서 내면화된다고 한다.

2. 청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제

- 우리나라 청년들은 2년 정도 군대 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적인 군대 생활은 기존에 자신이 영위했던 행동양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행동양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많은 부적응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 군대 생활 중에 종종 일어나는 총기사건 등은 우리나라가 아직 군인복지(military welfare)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군대 생활을 하는 청년들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복지욕구를 분석하여 군인사회복지 실천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 청년기는 직업선택과 준비가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이므로 자신의 적성, 취미, 흥미, 성격, 가치관, 태도, 자아 기대 등에 맞추어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전문적인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자들이 많은 관계로 청년들이 직업선택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기에 선택한 직업에 따라 성인기의 삶의 방식이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의 인성과 사회·경제적·환경적인 면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직업훈련,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 청년기에는 이성교제와 결혼도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이므로 청년기의 사랑과 결혼생활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예비 부모 교육프로그램, 예비부부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여 원만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결혼초기에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3. 연구 과제

- (1) 청년기의 인지발달이론을 Piaget의 이론과 다른 학자들의 이론을 비교하여 정리해 보시오.
- (2)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 실태를 원인별로 분석해보고 이혼가정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3) Super가 제시한 직업선택 단계 중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 알아보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무엇이며 왜 그 직업을 선택하고 싶은지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 (4) 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청년들의 직업을 원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으며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어져야 하는지 분석해 보시오.
- (5) 남성, 여성이 갖춰야 할 성역할 정체감을 설명해 보시오.
- (6) 군인복지(military welfare)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떠한 실천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시오.
- (7) 청년기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지 토론해 보시오.



1. 신체, 인지, 사회정서, 언어발달

1) 신체 발달

(1) 신체적 변화

-장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어려움에 처한다. 신체적으로 지방조직이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에너지의 지출이 제한된다. 장년기의 신체적 변화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체구조상 변화를 보면 40세 이후부터는 신진대사활동이 둔화된다. 허리둘레와 체중이 늘기 시작하며 머리는 은백색으로 변하거나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 피부의 탄력도 줄어들고 주름이 생긴다.

② 신체적 기능의 쇠퇴를 보인다. 장년기가 시작되면서부터 활기를 잃고, 육체적 힘이 약화되기 시작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이 약해질 뿐 아니라 질병이 회복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관절염, 당뇨병, 심장마비, 고혈압, 암 등과 같은 만성적이고 심각한 성인병에 걸릴 가능성이 어떤 시기보다도 높다.

③ 감각기관의 능력도 감소한다. 노화로 인하여 시력이 낮아지고 원시가 되어가며 청각도 예민성이 줄어든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과 음식물 섭취의 조절로 청년기의 모습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년기의 신체적 여가 활동은 노화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성적 변화

- 장년기에 이르게 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적 능력의 저하가 이루어진다. 장년기의 성적 능력의 저하로 나타나는 현상을 갱년기 장애라고 부르고 있다.

- 여성의 경우에는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생리가 중지되는 폐경기(menopause)를 경험하게 된다. 폐경이 되면 생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홍조현상(red flushes)이다. 난소는 작아지고 더 이상 난자를 생산하지 않으며, 나팔관도 짧고 작아진다. 폐경기에 이르게 되면 생식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에스트로겐(estrogen)이라는 여성호르몬이 1/6 정도로 줄어들고, 자궁과 유방의 퇴화가 이루어진다. Neugarten과 Kraines(1965)에 의하면 폐경기 여성에게는 얼굴의 홍조현상,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골반통, 유방통증, 호흡장애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여성이 폐경증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폐경 이후에도 정상적인 성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폐경으로 인한 증상 자체보다는 이에 따른 불안, 우울, 자신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역할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

2) 인지적 변화

- 장년기의 인지적 변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지적 반응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장년기에도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언어 능력에 있어서도 어휘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장년기 사람들은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과거의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갖고 대처하고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① 첫째 유형은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으로서 광범위한 기능 영역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영역은 운동속도, 새로운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것, 기억 등과 같은 지적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유동적이라는 말은 지적기능이 여러 다양한 형태의 지적활동 - 지각, 인식, 새로운 정보를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유동성 지능은 청소년기 때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점점 쇠퇴한다.

② 둘째 유형은 결정성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으로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록하는 능력이다. 이 기능은 형식적인 교육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유동성 지능과 달리 결정성 지능은 전 생애를 통해 증가하기 때문에 장년기에도 계속 증가한다.

장년기의 성인들은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과제나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하지 못하지만, 어휘, 기억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요구하는 과제나 문제는 적절히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기억능력의 감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기 기억 능력은 약화되지만 장기기억 능력은 변화가 없다. 장년기에는 새로운 것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은 저하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능력은 오히려 높아진다.

3) 심리.사회적 발달

(1) 부부관계 유지

- 부부관계는 모든 가족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매우 중요하다. 부부관계는 역동적인 것으로 부부의 성숙,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족의 위기나 사건의 발생과 같은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뉴만과 뉴만(B. M. Newman. & P. R. Newman)은 건강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부부는 각자의 개인적인 성장과 부부로서의 성장을 위한 헌신을 하여야 한다.

② 부부는 효과적인 대화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직업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역할에만 몰두하면 부부 상호 간의 대화기회가 감소하고 고립되기 때문에 부부 간의 효과적인 대화체계를 만들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③ 갈등을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각자의 개별성과 동등성을 인정하는 결혼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갈등을 이해하고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50대 중반 이후에는 성인 자녀들이 결혼하여 집을 떠나 독립을 하기 때문에 중년기 부부만 남는 시기이다. 자녀들이 집을 떠난 후 부부만 남는 상태를 '빈 둥지(empty nest)'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남성은 사회생활과 직장의 일로 바쁜 반면에 여성이 직업이 없으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고 자신이 살아온 과거에 대한 삶의 회한과 후회를 느끼는 경우에는 소외감과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소위 갱년기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빈 둥지 증후군(empty nest syndrome)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성인 자녀의 출가 이후에 부부 간에 정서적 유대감을 발전시키고 관심을 유지시키는 것이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2) 자녀교육 및 훈육

- 부모는 아동의 발달과 변화에 맞춰 적절한 자녀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장년기에 있는 부모들의 자녀는 대략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인 초등학교 시기에는 초등학생에 맞는 발달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모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가 출가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과 성인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자녀를 갖고 기르는 것이 성인기의 의무라기보다는 점점 더 선택사항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 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조사대상의 75% 정도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영역을 어려움 영역으로 지적하였다.

- ① 자녀에 대한 신체적 보호와 물질 제공
- ② 훈육과 순종의 확보
- ③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
- ④ 자녀의 외부관계 적응
- ⑤ 자녀의 행동에 대한 관용과 인내

(3) 직업관리

- 장년기의 직업생활은 가족의 생계유지, 사회적 관계의 유지뿐만 아니라 전체 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장년기는 직업적 성취도가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도 있고 직업을 전환해야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긴장이 많은 편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 성인들이 다른 연령층보다 직업적 성취를 위한 열의가 가장 높기 때문에 직업적 성공에 대한 긴장도 많은 편이다. 사회계층에 따라서는 중산층에 속하는 중년 남성은 젊은이와의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직업적 성공에 가장 많은 긴장을 경험한다.

(4) 여가생활

- 현대사회에서는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 가족생활의 변화, 근로여건의 변화, 주 5일제 근무시행 등으로 인하여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있고 여가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변화되고 있다.

여가는 직업활동, 생리적 욕구충족,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성취 및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므로 장년기에는 여가(recreation)에 대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이나 여가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좋다.

2. 장년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제

- 장년기에는 신체구조의 변화와 신체기능의 저하로 여러 가지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교육이나 건강상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갱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신체적인 변화에 잘 적응하고 개인상담, 집단상담, 부부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원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부갈등, 이혼 등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상담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가선용 프로그램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장년기의 실직은 심각한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보호, 재정지원에 관한 상담, 재취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등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장년기 연구 과제

- (1)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갱년기의 징조를 비교해 보시오.
- (2) 현재 장년기를 맞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에서 겪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3) 비자발적인 직업전환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고 가정해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토론해 보시오.
- (4) 장년기에 있는 여성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시오.
- (5) 실업으로 고용보험을 수급해야 할 경우 수급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6) 남성들이 성기능 장애가 직업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 보시오.
- (7) 자신이 장년기에 속했다고 가정하고 여가 활동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해 보시오.
- (8) 자신의 자녀가 청소년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부모로서 어떤 자녀교육을 할 것인지 설명해 보시오.

1. 신체, 인지, 심리, 사회적 변화

1) 노년기의 정의

-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노년기의 시작 연령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 서에서는 장년기가 끝나는 60세 이후를 노년기로 보고 노년기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 노년기의 사회복지 실천과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에는 신체적 능력의 쇠퇴 및 질병, 사회적 관계 축소,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과 같은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 책은 노년기의 발달에 관련된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자아분화

직업역할에 대한 몰두 - 은퇴의 영향으로 오랫동안 종사해 온 직업에서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활동들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개인적인 가치가 재평가 되고 재정의되어야 한다.

(2) 신체초월

신체몰두 - 은퇴 시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적 약화를 경험하는데 삶의 안락을 신체적 건강과 동일시해 온 사람들은 건강의 쇠퇴를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다.

(3) 자아초월

자아몰두 - 노년기에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2) 신체적 변화(1)

- 생물학적 노화는 모든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며 그 주요 원인은 신체 내적인 것이다. 노화는 신체적 기능의 약화를 가져오고 결국 이것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

- 이러한 신체적 노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노인의 신체 외적 특성은 흰머리, 구부정한 허리, 불안정한 걸음걸이 등을 들 수 있다. 체중은 60세부터 점차 줄어들며 연골조직의 퇴화로 인해 키도 줄어들게 된다.

- 노인의 피부는 창백해지고, 얼룩반점이 생기고, 건성화되며, 피하지방의 감소로 주름살이 생기며, 피하조직과 피부의 신경세포 감소로 인하여 체온 유지 능력이 감소되어 추위를 많이 느낀다.

- 팔, 다리 및 골격 일부에 붙어 있는 수의근의 수축력이 약화되어 운동능력이 감퇴되며, 머리카락은 은색으로 변화된다.

- 치아는 60대에 14개, 70대에 11개, 80대에는 6개 정도에 이른다.

- 폐와 심장의 능력도 감소하여 75세가 되면 휴식시에 심장의 출력은 30세 성인의 79%이며, 호흡능력은 30세 성인의 43%이다.

- 질병의 가능성도 급증하여 노인의 70% 정도가 적어도 하나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복합적인 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심장병, 당뇨, 관절염, 고혈압, 신경통 등이 노년기에 흔히 앓는 만성질환이다.

노인 사망의 주 요인이 되는 질병은 순환기 질환, 암, 뇌출혈, 폐렴, 기관지염, 동맥경화, 당뇨 등이다.

3) 인지적 변화

- 노년기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의 하나는 반응속도의 감소이다. 즉, 노년기에 이르게 되면 운동반응, 반응시간, 문제해결, 기억력, 정보처리과정에서 반응속도가 둔화된다.
- Birren의 연구에 의하면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과제에서 노인들은 느리며, 자극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고 한다. Botwinick은 노년기에는 단기간에 걸친 기억이 장기간의 기억보다 더욱 심하게 쇠퇴한다고 한다. 따라서 새로 습득한 정보를 잠시 저장했다가 더듬어 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오래 기억하는 장점이 있다.
- 노년기에 주로 일어나는 사고 능력과 기억력의 심각한 장애인 노인성 치매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치매는 뇌질량의 감소, 뇌혈관 장애, 알코올 등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되는 대표적인 기질성 정신장애로서 기억장애, 추상적 사고장애, 판단장애, 고위 대뇌피질장애, 성격변화 등이 수반됨으로써 직업, 일상적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복합적 임상증후군이다.

4) 심리.사회적 변화

(1) 역할 변화에 대한 적응

- 조부모의 역할

- ① 공식적인 유형으로 조부모의 약 1/3이 해당되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이다. (공식형)
- ② 즐거움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손자녀들과 비공식적 재미있는 상호작용을 갖는 유형이다. (재미추구형)
- ③ 대리부모의 역할을 하는 조부모로 엄마가 집 밖에서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을 책임진 조부모들이다. (대리부모형)
- ④ 가족의 지혜 원천으로 조부모 특히 조부가 지혜, 기술, 자원을 베풀고 부모 및 손자녀들은 이에 복종하는 다소 권위적 관계이다. (가족지혜저장용)
- ⑤ 원거리형으로 생일 또는 명절 때나 방문하며 보통 손자녀와 거의 접촉이 없는 유형이다. (원거리형)

(2) 미망인 역할

- 배우자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립감의 위기는 배우자와 사별하고 난 직후 2~3년 사이에 홀로 남은 이의 사망률이 가장 높고, 미망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홀아비가 과부보다 더 사별에 적응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재혼은 이 시기에 적응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황혼의 결혼(december marriage)은 새로운 상대와의 유대관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노인의 재혼은 가정과 사랑과 성 그리고 동반감 등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성적 욕구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성적인 이유 외에도 건강상의 이유, 경제적 독립, 자녀에게 얽혀 살지 않아도 되는 자립의 이유, 누군가와 남은 생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동반감 등의 이유 때문에 노년기의 재혼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퇴직자 역할

- 1 단계 : 퇴직 전 단계로서 퇴직이 아주 가까워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 및 그에 관련된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할 준비를 한다.
- 2 단계 : '허니문'의 단계이다.
- 3 단계 : 퇴직 후 일상생활이 자리를 잡는 시기로 이것을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확립하면 미래의 삶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 4 단계 : 휴식과 긴장완화의 단계이다. 활동을 재개한다.
- 5 단계 : 꿈에서 깨어나는 단계이다.
- 6 단계 :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 7 단계 : 일상(routine)의 시기로 사람들은 어떤 변화든지 쉽게 다룰 수 있는 몇몇 기준을 개발한다.

(2) 죽음에 대한 태도

- Erikson(1963)은 노년기의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자아통합 대 절망(ego integration vs despair)이라고 하였다. 자아통합은 자신의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바라던 대로 살았다고 받아들이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게 생각하며 다가올 죽음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절망은 자기의 과거 및 현재의 인생을 후회스럽고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주어진다면 다르게 살겠다는 생각이며 죽음 앞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망에 이른 경우에는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타인을 원망하며 우울증의 경향을 보인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 ① 죽는 과정에 관련해 모른다는 걱정, 자신이 고통받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 자신의 사고와 신체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는 것 등이다.
- ② 죽음의 결과에 관련된 공포는 죽음 이후의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자기가 잊힐 것이라는 점,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겪을 슬픔, 신체가 소멸되는 것, 사후의 세계에 존재할지도 모를 벌과 고통 등이다.

- Kubler-Ross(1969)는 죽음에 적응해 가는 과정

- ① 부정단계 : 불치의 병을 인정하지 않고, 의사의 오진이라고 생각한다.
- ② 분노단계 : '왜 나만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면서 건강한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 ③ 타협단계 : 죽음을 받아들이고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과업을 해결할 때 까지라도 살 수 있도록 기원하며 불가사리한 힘과 타협한다.
- ④ 우울단계 : 주변사람과 일상생활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이런 것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우울증이 나타난다.
- ⑤ 수용단계 : 죽음 자체를 수용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임종에 직면한다.

2. 노년기와 사회복지 실천과제

1) 만성질환과 심리발달 지원

-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만성질환으로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1994)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의 86%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했다. -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진료사업, 물리치료, 독거노인들을 위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건강교육 및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 노년기의 심리적인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노인상담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여가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대학, 경로당 및 주간보호시설 등에서 노래교실이나 여가 프로그램,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2) 치매 예방과 경제적 지원

- 노년기에 인지적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치매로 의심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치매노인의 부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교육사업,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하여 심리.사회적으로 위축 될 수 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고용 및 소득보완사업에 역점을 둘 필요성이 있다.
-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이나 노인취업알선, 부업알선 등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해야 한다.

3. 연구 과제

1) 노년기를 위한 연구과제

- (1) 노인의 은퇴와 관련하여 심리적인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
- (2) 노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방안.
- (3) 자신의 집에 치매노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 (4) 사회복지기관에서 만성질환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노인을 어떻게 원조할 수 있는지 설명.
- (5)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 노인인구 증가 현상으로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도래하면 사회복지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안.
- (6) 노인복지시설(silver town)에서의 생활이 노년기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
- (7) 노인의 재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
- (8) 노년기의 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
- (9) 자신이 노인이라고 가정하고 죽음이 내 눈앞에 도래했을 때 나는 죽음에 적응해가는 과정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왜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설명.
- (10) 부모의 부양을 꺼려하는 자식들이 부모를 유기,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원조할 수 있겠는지 토론.
- (11) 치매의 원인, 예방, 치료방법을 설명하고 치매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1.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성격이론

1)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기초

-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1920년대 이후 사회복지실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성격이론은 인간의 심리 내적 역동성에 관한 분석을 기초로 임상적 실천(clinical practice)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사업을 발전하게 만들었다.
- 인간의 환경보다는 정신 내적인 현상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나치게 기계론적이고 결정론적인(인간의 성격은 5세에 모두 결정된다는) 인간관과 이에 따른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상의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다.

2) Freud의 생애

- Sigmund Freud는 1856년 5월 6일 현재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가 된 모라비아의 프라이버그에서 3남 5녀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출생 후 생애의 대부분을 비엔나에서 보냈다.
- Freud는 매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었으며 하루에 18시간이나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그의 전집은 총 24권이나 되었고 턱에 암이 걸렸던 생애 후반부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다.
- 생애의 마지막 20년 동안 그는 33번씩이나 수술을 받았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1938년 나치를 피해 영국 런던으로 이주해 1939년 9월 23일 83세의 나이로 생을 마쳤다.

3) 인간관

- Freud는 인간을 의식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무의식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보고 있다.
- Freud는 인간은 거대한 빙산에 비유되는 무의식적 본능에 의해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 Freud는 인간의 기본 성격 구조는 초기 아동의 특히 만 5세 이전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성격구조는 성인기가 되어서 변하지 않고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 현재보다는 과거를 중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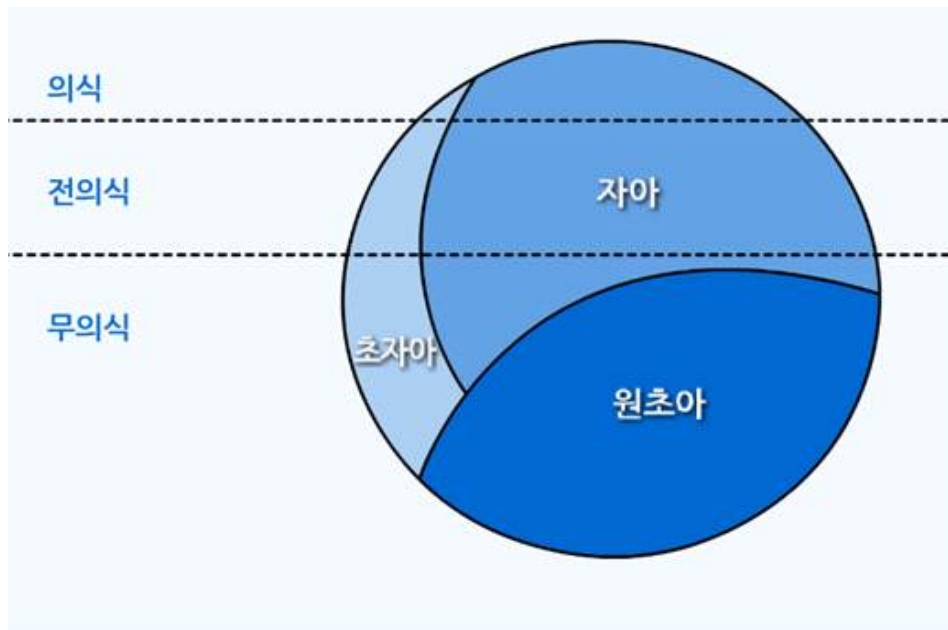
4) 마음의 경제적 모형

- Freud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본능의 지배를 받으며, 정신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본능은 원천, 목표, 대상, 추동(drive)이라는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본능의 원천은 신체 내의 긴장상태(예: 위가 비어서 느끼는 허기)
- 목표는 신체적 긴장상태의 해소를 통한 쾌락의 획득(예: 음식섭취를 통한 포만감)
- 대상은 목표 성취에 활용되는 수단(예: 음식물)
- 추동은 특정 본능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 즉 본능의 강도(예: 음식물을 섭취하려는 소망의 강도)

- 정신에너지의 배분은 생리적 욕구, 개인의 발달단계, 과거의 경험, 현재의 환경 등과 같은 복잡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정된 양의 정신 에너지가 삶의 본능(eros)과 죽음의 본능(thanatos)에 어떠한 비율로 배분되는가에 따라 각 개인이 보이는 행동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5) 마음의 지형학적 모형

- Freud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을 일종의 지도로 제시하여 보여주었다.



출처 : 김동배.권중돈, 앞의 책, p. 182.

6) 마음의 구조적 모형

(1) 원초아(id)

- 원초아는 성격의 원형이며 본질적인 체계로서 본능을 포괄하고 있으며, 출생시부터 타고나는 것이며, 정신에너지의 저장고이다. 원초아는 전적으로 무의식이다.
- 자아와 초자아는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원초아는 단지 활동이나 꿈, 환상과 같은 상상에 의하여 긴장을 해소시키려고 한다.
- 원초아는 성격의 기초이며, 그 기능과 분별력은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라 움직인다.
- Freud의 두 가지 사고 유형 - 1차적 사고 과정과 2차적 사고 과정 중 원초아는 1차적 사고 과정(primary process)이다. 1차적 사고 과정은 논리와 시간성이 없고 질서정연하지 못하여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며 낙천적이고 전지전능하다.

(2) 자아(ego)

- 자아는 외부 세계의 직접적 영향에 의해 수정된 원초아의 일부이다. 자아는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에 입각하여 작용한다.
- 원초아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아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 현실에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
- 현실검증을 통하여 충동을 더욱 잘 지배할 수 있게 되며,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된다.
- 만약 정신적 현실검증 결과 실현가능하지 않다면,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3) 초자아(super ego)

-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 측면이다. 따라서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 현실이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완전을 추구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 즉, 초자아는 외부세계의 대변자인 것이다.
- 초자아는 사회적 원리(social principle)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 초자아의 주요기능 중 한 가지는 자아가 지향하는 현실원리에 의한 이기적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다.
- 초자아는 자아이상(ego ideal)과 양심(conscience)이라는 두 개의 하부체계를 발달시킨다.
- 자아가 강하고 원초아, 초자아, 환경의 요구 간에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만족을 느끼기 쉽다. 환경의 압력이 강하고 자아가 약할 때 그 개인은 압도당할 수 있다.

7) 심리 성적 발달단계

- Freud는 성격 발달의 세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 ① 정신적 결정론으로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전의 초기 생활경험이나 행동의 결과로 보는 것
 - ② 무의식의 중요성으로 인간의 행동이 의식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인식할 수 없는 무의식에 의해 동기가 유발됨
 - ③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libido)의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는 행동과 사고의 동기가 된다고 간주

◎ 프로이드의 발달단계

(1) 구강기(oral stage) : 출생 ~ 1세

- 구강기에는 생리적 쾌감을 주는 주 기관 즉, libido가 집중하는 부위가 구강 (입, 입술, 혀)이다. 이때 영아의 libido는 구강 영역에 집중되며 빨기와 삼키기가 긴장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성취하는 주된 전략이 된다.
- 이 시기에는 입, 입술, 혀, 잇몸 등을 자극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빨고, 삼키고, 깨물면서 만족을 얻는다.
- 출생 후 6개월 동안은 음식을 빨고 삼키는 데서 쾌감을 느끼지만 6개월 후 이가 나면서부터는 이유의 좌절감을 깨무는 것으로 해소하며 쾌감을 얻는다.
- 생후 8개월 정도가 되면서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영아는 좌절감을 경험할 때 깨물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구강기에는 수동적으로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기 때문에 의존적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2) 항문기(Anal stage) : 2 ~ 3세

- 이 시기의 유아는 신경계의 발달로 괄약근을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대로 배변이나 배뇨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며, 배설 행동을 중심으로 성격이 발달된다.
- 부모들은 대소변을 가리게끔 하는 청결습관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바로 배변훈련(toilet training)이다.
- 유아는 항문의 긴장을 즉각 해소하는 데서 오는 쾌감을 늦추고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 배설하도록 요구되어진다.
- libido가 항문 영역으로 몰입된 아이와 대소변을 가려서 청결습관을 기르려고 하는 부모와 일종의 싸움이 전개되고 부모의 현실적 요구에 대응하면서 자아가 발달한다.

(3) 남근기(phallic stage) : 4 ~ 6세

- 이 시기에는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영역이 바로 성 기관이 된다. 즉 libido가 성기 부위에 집중되며 성기의 자극으로부터 쾌감을 느끼는 시기이다.
- 이 시기에 아동은 자신의 성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며 출산, 성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한다.
- 이때 남아는 어머니에 대해 이성적 관심을 갖고 아버지를 적수로 생각하여 아버지와의 사이에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것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라 부른다.
- Oedipus Complex라고 하는 것은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아버지를 제거하려는 욕망이다.
- 실제로 아버지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의식 중에 마음 속 깊이 억압되어 버리고, 이 억압된 것은 결과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아버지처럼 되어야 한다는 현상,

(4) 잠복기(Latency Stage) : 7~12세

- 이 시기는 성적 욕망이 억눌러지고 비성적 활동, 예를 들면 지적 호기심, 운동, 친구관계의 활동이 싹트는 시기이다.
- libido가 무의식 속에 잠복하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성적 욕구를 일시적으로 잊어버리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Freud는 이 시기에 성적 흥미나 관심도가 줄어드는 것을 생리적 현상으로 보았으며,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 잠복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시기에 아동들은 상대방의 성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상대방의 성에 대하여 흥미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5) 생식기(Genital Stage) : 12세 이후

- 이 시기는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 아동이 사춘기가 되면서 성적·공격적 충동이 이성애에 대한 흥미와 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생리적·생화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성기의 성숙, 내분비선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등 제2의 성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 잠복기 이전에는 자신의 신체에서 성적 쾌감을 추구하는 자기애착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생식기에는 타자인 이성으로부터 성적만족을 얻으려 하는 이성애착적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는 이성 애착기(heterosexual period)이다.
- 이 시기에 순조로운 발달을 성취한 청년은 타인에 관심을 갖고 협동의 자세로 성숙시켜 간다.

2. Anna Freud의 자아방어기제이론

- 안나 프로이드의 가장 큰 공헌은 정신역동적인 방어기제의 규명과 분석이라 할 수 있다. Anna Freud는 자아방어기제가 정상적인지 또는 병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 ① 한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균형
 - ② 방어기의 강도
 - ③ 사용한 방어기제의 연령적합성
 - ④ 위험이 사라졌을 때 사용한 방어기제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네 가지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Freud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방어기제들은 퇴행, 억압, 반동형성, 투사, 합리화 등이다.

1. 에릭슨의 생애와 인간관

1) Erikson의 심리사회적 이론(Psychosocial Theory)

- Erikson은 인간은 일생 동안 여러 단계의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 위기의 결과로 인해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 그의 심리사회적 이론(Psychosocial Theory)은 인간의 발달이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 Erikson의 이론은 Freud의 정신분석학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Freud의 이론을 확장하였기 때문에 Erikson을 신프로이트학파라고 말한다.
- Erikson은 개인적 기능의 중추적 요소로서 자아기능을 강조하여 자아가 성격을 통합시키는 구조로 간주했고 Freud가 주장한 libido의 역동과 이동이나 본능, 초자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2) Erikson의 이론과 Freud의 정신분석적 성격이론과 구별

- Erikson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Freud의 정신분석적 성격이론과 구별된다.
 - ① 인간의 행동과 기능의 기초로 원초아보다 자아를 강조하였다. 자아를 성격의 자율적 구조로 간주했다.
 - ② 가족상황 속에서 개인과 그 부모의 관계뿐 아니라 그 가족이 위치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의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
 - ③ 삶의 심리사회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능력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개인적, 사회적, 위기(crisis)가 성장으로 이끄는 요소를 제공한다고 보았다. 위기가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3) Erikson의 생애

- Erikson은 1902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덴마크 사람이었으며 그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와 이혼하여 어머니가 친구들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로 가게 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출생하게 된 것이다.
- Erikson이 세 살 때 어머니는 에릭의 소아 질병을 치료했던 소아과 의사 홈 부르게르(Theodor Homburger) 박사와 재혼하였다.
- 이를 계기로 1927년부터 1933년까지 Anna Freud의 아동연구소에서 Anna Freud와 아이크호른(August Aichhorn)에게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다.
- 1951 ~ 1960년까지 매사추세츠주의 오스틴릭스센터(장애인청소년 입원치료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일했고 그 동안 피츠버그대 의대에서 강의를 맡았다.
- 1960년 하버드대 의대로 옮긴 후 은퇴해 있다가 1994년에 세상을 떠났다.

- ◎ Anna Freud는 자아방어기제가 정상적인지 또는 병리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 ① 한 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와 관련된 균형
 - ② 방어의 강도
 - ③ 사용한 방어기제의 연령적합성
 - ④ 위험이 사라졌을 때 사용한 방어기제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네 가지 요소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했다.
- Freud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방어기제들은 퇴행, 억압, 반동형성, 투사, 합리화 등이다.

4) 인간관

- Erikson은 모든 인간이 다음과 같은 질서를 따른다고 보았다.
 - ① 환경과 다른 유기체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통합성을 유지하려는 신체적 질서(somatik order)
 - ② 개인적 경험과 행동의 내적 세계 및 외적 세계를 통합하는 개인적 질서(personal order)
 - ③ 지리적, 역사적 환경을 공유하는 개인 유기체가 연합하여 유지시키는 사회적 질서(social order)
- 그는 인간의 행동은 생물학적 성숙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영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사회적 힘(social forces)의 영향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2.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1) Erikson의 저서

- Erikson은 그의 저서 「아동과 사회(Childhood and Society)」에서 인간은 일생 동안 여러 번의 심리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그 결과 성격이 발달 하게 된다고 하였다.
- 그는 인간의 심리발달은 생물학적 성숙과정과 일상생활 중에 직면하는 사회의 요구 및 사회적 압력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 즉, 성숙의 힘에 의해 지배되는 일련의 발달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의 시작을 자극하는 힘은 생물학적 성숙이며, 이 단계를 이끄는 것은 사회의 요구로 이 요구가 심리사회적 위기를 낳는다고 보았다.

2)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의 8단계 특성

◎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의 8단계 특성을 표로 제시하면 <표 II - 1>과 같다.

인간발달시기 구분 비교

단계	생활주기 및 연령	심리사회적 위기	심리사회적 능력 (기본적 감정)	중요한 대상	Freud의 성심리 발달단계
1	유아기(0~1세)	신뢰감 대 불신감	희망	어머니	구강기 (0~1세)
2	초기아동기 (2~3세)	자율성 대 수치감과 의심	의지(의지력)	부모	항문기 (2~3세)
3	놀이기(유희기)	주도성 대 죄의식	목적	가족	남근기(4~6세)
4	아동기(학령기) 7~12세	근면성 대 열등감	능력(유능성)	이웃.학교	잠복기 (7~12세)
5	청소년기 (12~20세)	자아정체감 대 역할혼란	충성심(성실)	또래집단	생식기 (12세 이후~)
6	청년기(20~35세)	친밀감 대 고립감	사랑	결혼.배우자 우정.성.협동상대	
7	장년기 (35~60세)	생산성 대 침체감	배려(보호)	직장.자녀.지역사회 함께 사는 가구	
8	노년기 (60세 이후~)	자아통합 대 절망	지혜	인류 동족	

※ 학자마다 연령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본 서에서는 앞의 발달이론에서 정한 연령을 수용하여 연령을 제시하였다.

3. Freud와 Erikson의 이론 비교

1) Freud와 Erikson의 이론의 공통점

- Freud와 Erikson의 이론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의 성격발달을 설명하고자 할 때 Freud, Erikson 모두 인간의 자아 분석에 기초를 두고 자아의 성장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 ② 두 이론 모두 출생 후 인생 초기의 경험이 인생 후기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③ 두 이론 모두 인간의 성격 단계는 미리 예정되어 있으며 그 순서도 불변하는 것으로 보았다.
- ④ 두 이론 모두 과학적인 정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2) Freud와 Erikson의 이론의 차이점

- ① Freud는 인간 행동의 동기를 id에 두고 인간은 본질적으로 충동적이라고 했으나 Erikson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과정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자아(ego)를 강조했다.
- ② Freud는 자아가 유아기의 꿈이나 사고, 기억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개인적 인성발달에 치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Erikson은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자아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이라고 보았다.
- ③ Erikson은 문화적인 요인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성장발달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사회, 문화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보았으나 Freud는 단지 부모의 중요성만 강조하였다.
- ④ Freud는 개인의 성격 발달이 뚜렷한 5단계를 거쳐서 완성된다고 보았으나 Erikson은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전 생애를 통하여 계속적인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⑤ Freud는 한 단계의 실패를 고착(fixation)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실패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였으나 Erikson은 실패의 수정은 언제라도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이 주어지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⑥ Freud는 심리성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정신생활의 무의식적 작용과 존재를 해명하고 초기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외상(trauma)이 성인기에 어떻게 병리를 일으키는가를 설명하려고 했으나, Erikson은 인간생활에서 오는 정신 사회적 유형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의 능력 즉 인간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아자질에 관심을 가졌다.
- ⑦ Freud는 만약 인간을 본능적인 추구만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인류는 멸망으로 운명지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적인 견해를 주장한 반면, Erikson은 인간의 모든 개인적.사회적 위기는 오히려 외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도전감을 갖게 한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다.

1. 아德勒의 생애와 인간관

1) 아德勒의 개인심리학

- Alfred Adler의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은 신프로이트 학파의 한 이론으로 분류된다. -
- Freud는 인간의 성격이 생물학적 기원을 가진 무의식적인 원초적 본능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나 Adler는 사회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이 개인의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 Adler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의해 움직이는 사회적 존재인 점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더욱 중시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원시적 욕구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인간의 성격은 유전이나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각 개인의 주관적 결정에 의해 창조되며 인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등에서 우월로의 상향이동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 Adler는 인간은 유일(unique)하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고(indivisible), 자아일치적이고(self consistent), 통합된 총체(unified entity), 즉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삶의 표현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부분으로 나누어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전체 성격과 관련시켜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Adler의 개인심리학의 전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인간은 통일된, 자아일치된 유기체라는 것이다. Adler는 이 통일되고 자아일치된 성격구조를 생활양식이라 일컬었다.
 - ② 인간은 역동적으로 완성을 추구하고 개인적으로 중요한 인생목표를 향해 전진한다는 것이다.
 - ③ 개인은 창조적 힘을 갖고 있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
 - ④ 모든 사람은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천적 능력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 ⑤ 개인이 자신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 Adler의 이론은 가족분위기, 가족형태, 가족구성원의 생활양식 등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가족상담에 유용한 지식기반이 될 수 있다. 열등감은 집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도전받고 극복될 수 있으며 사회·정서적 문제의 근원인 잘못된 생활양식은 집단경험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므로 Adler의 이론은 집단사회사업(group work)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Adler의 생애

- Alfred Adler는 1870년 2월 7일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인근지역인 펜지히에서 5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곡물상 주인으로 집안은 재정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맏이인 형에 대한 질투로 인해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냈으며, 만성적 질환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동생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으나 동생이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학교 공부는 보통 정도였으나 아버지의 격려와 신뢰성에 힘입어 그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였고 나중에는 우수한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

- Adler는 다섯 살 때 심한 폐렴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고 사고로 두 차례나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다. 그는 만성적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놀이에서는 형이나 친구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않았으나 자신의 허약함과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 1859년에 박사 학위를 받고 얼마 동안 안과 의사를 하였다. 곧 그는 정신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1902년 경에 Freud의 회합에 참여하여 1902년~1911년까지 Freud와 같이 활동했으나 점차 Freud의 이론적 입장과 대립하게 되면서, 1911년 비엔나 정신분석학회를 떠나 자유정신분석학회를 창설해 1912년 학회명칭을 개인심리학회로 변경했다. 전문가로서의 지위가 높아지자 그는 아동지도운동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최초의 지역사회 정신과 의사 중 한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 Adler의 가족경험이 그의 이론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직접 경험한 열등감과 보상추구, 출생서열, 사회적 관심 등을 토대로 훌륭한 이론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20년대에 그는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강연을 하였고, 1934년 그는 뉴욕시로 이사하여 수많은 사회사업가, 임상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들에게 계속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37년 강연 여행 중 5월 28일 스코틀랜드의 애버딘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사망하기까지 300여권의 책과 논문을 발표하였다.

3) Adler의 인간관

- Adler는 그의 개인심리학이론에서는 인간에게 우연성이나 결정론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각 개인의 성격은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주관적 선택에 의해 창조된다고 보았다. 즉, 그는 인간의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지만 각 개인이 지닌 창조적 힘이 인간의 본성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의 인간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Adler는 인간이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직시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그들의 목적과 가치가 일치되는 여러 가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 ② 그는 인간을 총체적 존재로 보고 있다. Adler가 각 개인을 통합된 총체(unified entity), 즉 인간은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삶의 표현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 ③ Adler는 인간을 주관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그는 인간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그 사실을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 ④ 그는 인간을 성취지향적 동기를 지닌 존재로 보고 있다. 즉, 인간의 모든 행동은 미완성을 극복하여 완성에 도달하려는 힘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본다. 그는 인간의 완성추구의 동기는 내적 요인이나 외적 요인에 의해 뒤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부터 당겨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⑤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예외 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며 인간본질의 핵심은 사회적 관계의 이해를 통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서로 협동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천적 능력, 즉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2. 아德勒의 주요개념

1) 열등감과 보상

- Adler는 병적 열등감에 이르기 쉬운 (어린 시절에 아주 잘못된 상황 속에 있는) 세 가지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 신체적 결함(허약한 체질로 고생한 아이들) : 신체적으로 불완전하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은 다른 아동과의 경쟁 속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열등감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② 응석받이로 키운 아동은 다른 사람들이 항상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해 주므로 타인에게 요구하는 방법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부족하게 되어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고비에 부딪혔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깊은 열등감에 빠져들게 된다.

③ 무시된(방임) 아동은 사회라는 것은 자기에게 매우 냉혹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애정을 얻거나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감을 잃고 세상을 살아간다.

- Adler는 심한 신체적 약점이나 결함이 있는 사람은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 보상하려는 노력을 하며, 이들 중 일부는 결국 그 약점을 보상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 보상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이다. 그는 인간은 항상 좀 더 나아가고 싶어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열등감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열등감은 항상 긴장을 낳기 때문에 우월감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자극이 된다.

2) 우월을 향한 노력

- Adler는 우월을 향한 노력(striving for superiority)은 인간에게 공통된 기본적인 동기라고 보았다. 우월을 향한 노력은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나오며 환경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도록 권력 혹은 힘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 Adler는 우월을 향한 노력이 선천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월을 향한 선천적인 노력은 잠재적으로 존재하나 이 잠재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다. 이것은 우월을 향한 목표가 각 개인마다 고유한 것이며, 각자의 인생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우월의 목표는 긍정적인 경향 또는 부정적인 경향을 취할 수 있다.

- 긍정적인 경향은 사회적인 관심이나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향하는 이타적인 목표이며 부정적인 경향은 개인적인 우월성을 추구하는 자기존중, 권력, 개인적인 허세 같은 이기적인 목표이다.

Adler는 우월을 향한 노력의 본질과 그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① 우월을 향한 노력은 분리된 충동들의 결합이라기보다는 기본 동기의 하나로서, 유아기 때 자기가 주위의 사람들보다 무력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에 근거한다.
- ② 우월을 향한 욕구는 보편적인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람이나 신경증적인 사람 모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 ③ 우월의 목표는 긍정적인 경향이나 부정적인 경향 모두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기존중, 권력, 개인적인 허세(과장)와 같은 것은 이기적인 목표로서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
- ④ 완성을 위한 노력은 상당한 정력과 노력을 요구한다.
- ⑤ 우월을 향한 노력은 개인과 사회 두 가지 수준에서 일어나므로 개인으로서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사회적 관심

- Adler는 인간은 사회적 충동에 의해 주로 동기화된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란 각 개인의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회에 공헌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 Adler는 인간은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 이익을 포기하는 선천적.사회적 본능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생각했다. 즉, 개인은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회를 원조하려 한다고 보았다.
- 그는 어머니의 역할을 양면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나는 성숙한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키고 격려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 방향을 어머니 이외의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고 아동이 어머니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Adler는 아동의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을 어머니로 보았다. 사회적 관심은 모자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어머니는 아동이 협동심, 연대감, 동료의식을 가지도록 양육하여야 하는 것이다. Adler는 사회적 관심과 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 이상적으로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안락함을 위한 사랑, 진실되고 깊은 사랑을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건강한 애정관계는 사람들에게 대한 진실한 관심으로부터 발달하고 어머니가 아동의 사회적 관심을 육성하게 해준다. 어머니가 남편, 다른 자녀, 일반적인 사람에 대해 갖는 애정이 아동에게 본보기가 된다. 아동은 어머니의 이러한 넓은 사회적 관심을 통하여 이 세상에는 다른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 사회적 관심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중요한 인물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아내, 일,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Adler는 이상적인 아버지란 자녀 모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아내와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자녀를 돌보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의 정서적 격리나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는 자녀가 사회적 관심을 갖는 것을 방해한다.
- 마지막으로 Adler는 자녀의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부관계라고 한다. 만약 부모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경우, 자녀는 사회적 관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아내가 남편 대신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과잉보호가 되고 사회적 관심을 억누르기 때문에 자녀가 피해를 입게 된다.

4) 생활양식

- Adler의 생활양식(life style)은 인생의 목표뿐 아니라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감정, 세상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한 개인의 독특한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자아, 성격, 성격의 통일성, 개성,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삶에 공헌하려는 소망 등으로 정의된다.
- Adler에 의하면 생활양식은 4~5세경에 거의 형성되며 그 이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릴 때 정착된 기본구조의 개정이나 확대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독특한 생활방식은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일단 생활방식이 형성되면, 이것은 개인의 외부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
- Adler는 개인의 생활양식은 인생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직업, 우정, 사랑과 결혼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인생과업이다. Adler는 이러한 인생과업의 해결방법은 개인의 생활양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 Adler는 많은 사람이 신체기관의 열등, 허약한 체질,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결핍 때문에 잘못된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문제들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예를 들어 실패를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지배한다.

5) 창조적 자아

- Adler는 생활양식이 개인의 창조적 행위라고 믿었다. 그는 개인의 창조적인 힘에 의해 생활양식이 발달한다고 주장했다. 즉,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의 생활양식을 창조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와 행동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 이 창조적인 힘은 그의 인생목표와 그 목표를 추구하는 방법을 결정하며,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도 공헌한다. 이와 같은 창조력은 지각, 기억, 상상, 환상, 꿈에도 영향을 주어 각 개인을 자주적인 사람이 되게 만든다.
- Adler는 인간행동을 형성하는 결정요인으로 유전과 환경을 부인하지 않았다. 각 개인은 유전과 환경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여 성격을 형성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소지하고 있느냐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따라서 성격형성에 있어서 주어진 재료는 2차적인 것이며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재료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성격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3. 성격의 발달과 유형

1) 성격의 발달

(1) 첫째 자녀(만이)

- 태어났을 때 혼자라는 것 때문에 부러워할 만한 독특한 위치
- 집중된 관심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버릇이 없어짐(외동자녀와 비슷함)
-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그 다음 아이가 태어나서 그의 즐거웠던 자리를 빼앗기 전까지는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생활을 즐김
- 동생이 늦게 태어날수록 만이의 행동변화는 더 합리적이고 이해가능한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음
- 동생이 너무 일찍 태어나면 만이는 적대감, 반항, 동생공격, 아기노릇을 하려고 하는 등 부모가 자기의 존재를 재고할 수 있도록 노력

(2) 둘째 자녀(중간아이)

-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의 관심을 다른 아이와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동생에 대해 덜 예민하다.
- 만이는 둘째에게 노력하도록 자극을 주며, 둘째는 위의 형제가 있으므로 협동, 타협의 기술을 좀더 쉽게 배울 수 있다.
- 첫째보다 훨씬 빠른 비율로 성장한다.
- 예) 둘째아이가 첫째아이보다 훨씬 빨리 말하고 걷기 시작. Alder의 묘사 - 마치 경주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한 두 발짝 앞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앞지르기 위해서 서둘러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항상 전속력을 다하고 있다.
- 둘째 아이는 아주 경쟁심이 강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진 성격이 된다.

(3) 막내

- 항상 가족들 사이에서는 아기이며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동생에게 빼앗겨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가족의 귀염둥이로 부모나 형제들에 의해 응석받이로 자라게 된다.
-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자기 것이 없이 늘 물려받아야 하는 '늘 귀찮게 붙어 다니는 아이'의 위치로 전락할 수 있다.
- 자기보다 크고 힘세고 특권이 있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독립심이 부족하고 강한 열등감을 경험하기 쉽다.
- 경쟁할 형제들이 있으므로 둘째 아이와 비슷하게 경쟁심이 강할 수 있다.
- 가끔 가장 빠른 수영선수, 훌륭한 음악가, 재능있는 예술가 또는 가족 중에 가장 야망있는 구성원이 된다.
- 때때로 도전적인 막내가 혁명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

(4) 외동 자녀(독자)

- 경쟁할 형제가 없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 약점
 - ① 어머니가 응석받이로 기르기 쉽다.
 - ② 아버지와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갖게된다.
 - ③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 생활양식에서는 의존심과 자기중심성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나중에 그들이 더 이상 만인의 귀염둥이가 아닐 때 현실적 문제를 야기)
- Adler의 출생순위에 따른 생활양식은 모두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족 내의 위치가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각 가정마다 역할이 다르다.

2) 성격의 유형
① 지배형

- 활동수준은 높으나 사회적 관심은 낮다.
- 독단적이고 공격적이며 활동적이다.
- 사회적인 인식이나 관심이 거의 없다.
- 이러한 사람은 비사회적인 측면에서 활동적이며 타인의 안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한다. 그들은 외부세계에 대해 지배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생과업에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간다.

② 획득형

- 활동수준은 중간이고, 사회적 관심은 낮다.
- 기생적인 방식으로 외부세계와 관계를 맺는다.
-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다.
- 이들의 주된 관심은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활동수준이 낮으므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③ 회피형

-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여하려는 사회적 관심도 적고 활동 수준도 낮다.
- 어떤 형식으로든 인생에 참여하려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성공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인생과업으로부터 도피하는 사회적으로 무익한 행동이 주가 된다.

④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 사회적 관심과 활동수준이 모두 높다.
- 사회적 관심이 커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
- 인생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협력한다.

1. 융의 생애

1) Jung의 생애(1)

- 칼 융(Carl Gustav Jung)은 1875년 7월 26일 스위스 Lake Constance시의 케스빌(Kesswyl)에서 개혁파 목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 부모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서 그의 유년시절은 고독하고 불행했다. 아버지는 짜증이 심하고 까다로웠으며 실패에 대한 자책과 종교적 신념에 대한 명상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며, 어머니는 지배적인 성격이었으며 정서장애와 우울증이 심했다고 한다. Jung은 아버지가 목사였으나 교회를 싫어해서 아버지와 종교적 논쟁을 자주 벌였다.
-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것은 후에 그가 그의 업적과 관련된 꿈, 환상, 공상 등에 몰두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Jung의 생애(2)

- Jung의 가계에는 아버지, 친사촌 두 명, 외조부와 외삼촌 여섯 명 모두가 목사였다. 어머니와 외조부, 외삼촌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융의 사촌 중 한 명은 자신이 영매라고 주장하였다.
- 융이 종교와 초자연적인 현상에 조예가 깊은 것은 이런 가정배경과 관련이 있다. 융은 아홉 살이 되어서야 누이동생이 태어났다. 그는 누이동생이 태어난 후에도 동생에게 무관심한 내향적 성격이었으며, 그 내향성은 일생 동안 지속되었다.
- Jung은 의학의 전공분야를 결정해야 할 때 식탁이 쪼개져 있고 빵 자르는 칼이 산산조각이 나는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신의학을 하겠다고 결정하였다.

3) Jung의 생애(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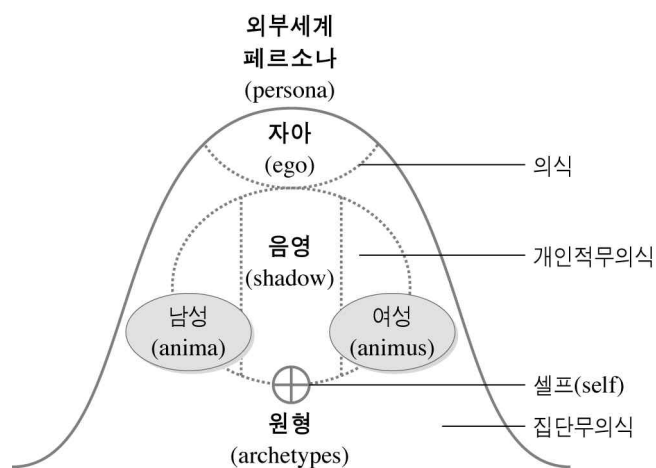
- 그는 바젤(Basel) 대학교에서 1900년 의학학위를 받은 후 Freud의 「꿈의 해석(Interpretation of dream)」을 읽고 감명을 받아 그의 임상실체에 활용하고 검증했다. 1907년 Jung이 Freud를 처음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13시간이 넘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후 6년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Freud는 Jung을 자신의 후계자로 정하고 1910년 국제 정신분석학회가 창설되었을 때 융이 첫 회장이 되었다.
- 그러나 그 후 Freud와 융의 개인적인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하여 1914년 4월에 융은 회장직을 사임했고, 그 후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그는 연금술, 점성술, 예언, 텔레파시, 투시, 요가, 강신술, 영매, 강령술, 종교적 상징, 환상, 꿈 등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으며 1961년 스위스에서 8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2. 주요개념

1) 융의 성격(정신)구조

- Jung의 분석심리학적 성격이론에서는 인간의 성격구조를 자아(ego), 페르조나(Persona),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ness), 집단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및 그것의 원형(archetypes)인 아니마(anima)와 아니무스(animus), 음영(shadow)와 성격의 조화와 통일성을 조정하는 전 성격 중후의 셀프(self)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융의 성격(정신)구조



2) 자아(ego)

- 자아(ego)는 의식되는 정신(마음)이다.
- 자아는 우리가 의식하는 감정, 생각, 기억, 지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아는 내 마음속에 있는 나로서, '나'의 감정을 대표하며 현실생활을 선택하는 집행자이다.
- 자아는 의식의 개성화 과정(individuation process)에서 형성된다.
- 개성화(individuation)란 "한 사람이 정신적으로 '개 - 인'(in - dividual), 즉 독립되어 있으며,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통일체 또는 '전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칭한다.
- 개성화란 또한 자기 자신의 자기(self)로 되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 개성화의 과정은 성격구조의 여러 체계와의 관계에서 보완, 대립,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달한다.

3) 페르조나(persona)

- 페르조나(persona)는 자아의 가면이다.
- 즉 밖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이미지이다.
- Jung은 페르조나에 대해 "한 개인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체계 또는 그가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라고 했다.
- 페르조나는 문화의 가면을 쓴 공적 성격(public personality)이다.
- 그러나 이 페르조나는 사람들이 그 자신과 이 페르조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위험한 것이다.

- 즉, 교수들이 자신의 교과서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든지 테너 가수들이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 그 때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4) 음영(shadow)

- 음영은 자신 속에 있는 정열, 충동성, 공격성, 잔인성, 부도덕성 등 Freud의 id와 유사하다.
- 즉, 음영은 동물적 본능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생활의 활력과 추진력이며 삶의 원천이다.
- 음영은 우리 인격의 열등한 부분, 우리들의 의식이 선택한 태도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겉으로 드러나기가 거부되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인격의 파편'이 되어 무의식 속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성향들과 유착되어 있는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심리적 요소들의 총체이다.

5)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ness)

- Jung은 인간의 무의식은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의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 개인적 무의식(personal unconsciousness)은 자아와 인접된 영역이다.
- 개인적 무의식은 Freud의 전의식(preconsciousness)과 같이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화될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음영(shadow)의 대부분은 개인적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 개인적 무의식은 개인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억압되고 망각된 모든 사건, 성향, 감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6)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

- 집단 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의 개념은 융의 성격이론 중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특징적인 이론이다.
- 집단 무의식은 그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들로 형성되어 있다.
- 집단 무의식은 성격의 전체구조의 유전적 종족적 기반이다.
- 집단 무의식은 개인 무의식과 달리 개인적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 집단 무의식이 정신의 청사진을 제공한다고 했다.
- 집단 무의식은 현재의 모든 행동을 지시하므로 성격에 큰 힘을 미치게 된다.

7) 원형(archetypes)

- 원형(原型)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 정신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핵으로서 인간의 행동유형을 가능케 하는 힘과 조건이다. 그러나 이 원형은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으로서 형태를 형성케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 원형이란 그 자체로서는 표현 불가능한 것이며, 무의식적이다. 그리고 이 원형은 우리들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정신구조의 한 부분인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그것이 나타날 만한 여건이 갖춰지면, 우리의 의식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8) 아니마와 아니무스(anima and animus)

- 융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양성동물이라고 표현했다. 즉 인간은 생리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면에서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양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양성과 관련하여 남성 속의 여성적 원형을 아니마(anima)라고 했고, 여성 속의 남성적 원형을 아니무스(animus)라고 불렀다. 이러한 원형들은 비록 성염색체와 성선에 의해 결정되지만 남성이 여성과, 여성이 남성과 가졌던 종족적 경험의 소산들이다.
- 즉, 오랫동안 여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남성이 여성화되고, 남성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여성이 남성화되어 온 것이다.

9) 자기(self)

- 자기(self)는 중심성, 전체성, 의미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원형이다. 의식과 무의식을 포함한 전체 정신의 중심인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원형이므로 의식의 중심인 자아(ego)는 의식의 영역밖에 볼 수 없지만 자기(self)는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통합시킬 수 있다.
- 자아와 무의식과의 관계에서 자기(self)는 무의식을 자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자기(self)의 원형은 중년이 될 때까지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는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퍼스널리티가 개성화(individuated)를 통해 충분히 발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셀프의 원형은 궁극적으로 자아실현에 있다.

3. 성격의 발달
1) 성격 발달의 의미

- 융(Jung)은 성격이론의 특징인 원형, 집단 무의식의 개념과 함께 성격발달의 향상성(forward-going)에 강조점을 두었다.
- 그는 인간이 미숙한 발달단계에서 보다 완전한 단계로 계속 발전하거나 발전을 시도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발달의 궁극적 목적을 그는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이라고 하였다.
- 자아실현이란 전체 성격체계의 조화와 융합을 의미한다. 성격의 발달은 성격구조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 즉 한 체계가 다른 체계의 약점을 보완(보상)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며 둘 이상의 체계들이 통합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2) 성격의 체계 발달

- 보상(compensation)은 내향성 - 외향성의 대조적인 태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만약 외향성이 자아에게 지배적이거나 우세한 태도라면 무의식은 내향성의 억압된 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보상한다. 마찬가지로 남성의 자아와 아니마, 여성의 자아와 아니무스는 서로 보상적인 관계를 갖는다.

- 모든 성격체계 간에 대립(opposition)과 갈등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자아와 음영 간에, 자아와 개인적 무의식 간에, 페르조나와 개인적 무의식 간에, 집단 무의식과 자아 간에, 집단 무의식과 페르조나 간에 대립이 있다. 자아는 사회의 외적 요청과 집단 무의식의 내적 요청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그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페르조나가 발전한다.

- 성격체계 간에 대립과 갈등은 통합(integration)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통합은 융이 말하는 초월기능(transcendent function)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기능의 작용은 대립적인 체계들의 통일을 가져와 균형 잡힌 통일된 성격을 형성케 한다. 이러한 성격의 중심이 자기(self)이며, 성격발달은 여러 체계들의 조화와 통일성을 위해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셀프에 의해서 영향 받는다.



1. Pavlov(파블로프)의 행동주의 학습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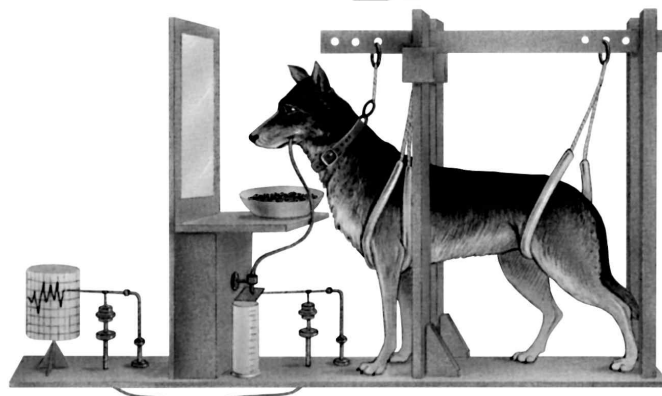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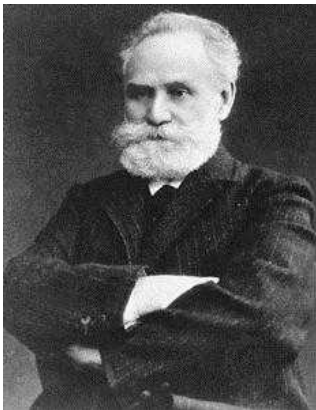
1) Pavlov의 실험

◆ 고전적 조건형성 또는 고전적 조건반사설은 소련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Ivan P. Pavlov, 1849~1936)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이다. 처음에는 그냥 조건반사이론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스키너(B. F. Skinner, 1904~1990)의 작동 조건형성설(operant conditioning)이 나오면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 동물은 생득적(生得的)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갑자기 강한 빛을 눈앞에 비추면 동공을 수축하는 동공반사, 무릎을 망치로 살짝 때리면 다리가 튕겨 오르는 무릎반사,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저절로 나오는 타액반사 등은 유기체의 생리상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경향으로서 이를 반사(反射)라고 부르며, 학습하지 않고서도 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 Pavlov(1927)는 러시아의 성 페테부르크(St. Petelsburg) 군의학교 생리학 교수이자 노벨 생물학상 수상자(1904)로서 원래 개의 소화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소화액 분비에 관한 실험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개에게 음식을 주는 시간을 알리기 위하여 종을 쳤는데, 개가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현상을 발견하고, 연구의 방향을 바꾸어 이에 관한 조직적 연구를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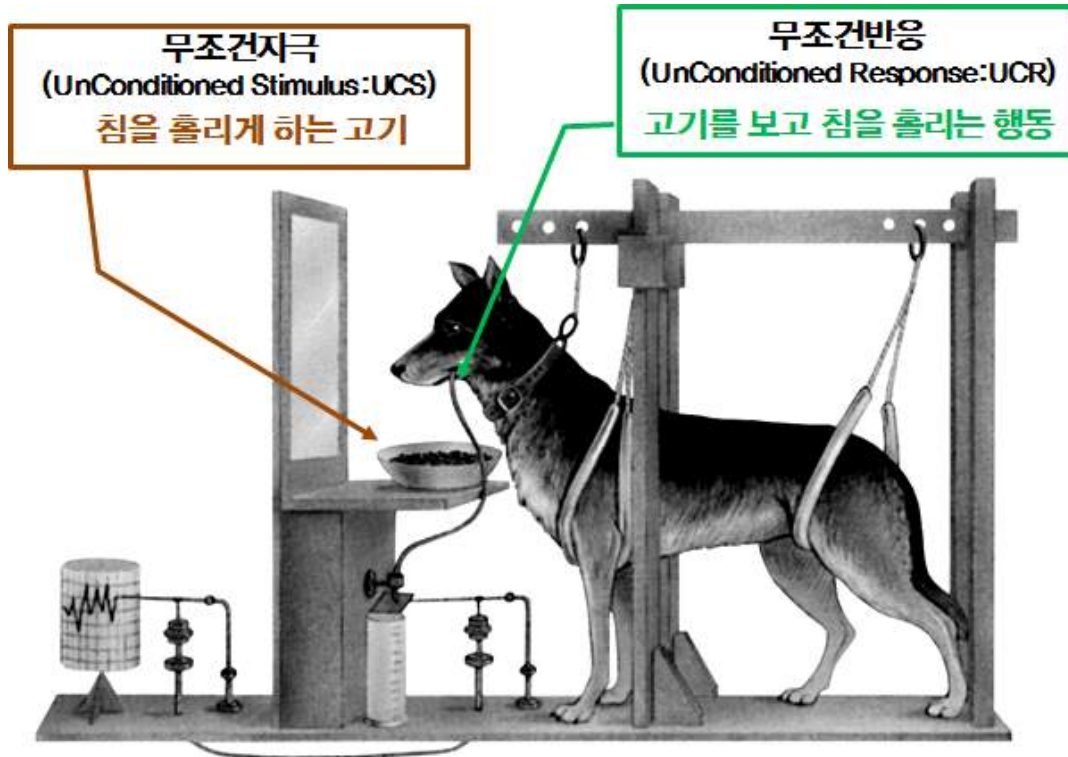
◆ Ivan Pavlov, Pavlov가 고안하여 사용한 고전적 조건형성 실험장치



- Pavlov는 이 실험에서 침을 흘리게 하는 고기를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 : UCS)이라 부르고, 개가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는 행동을 무조건반응(UnConditioned Response : UCR)이라고 불렀다. 무조건반응이란 무조건자극 때문에 유발된 반응을 말한다.

-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개는 종소리만 듣고 음식을 보지 않고서도 침을 흘리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을 조건화(conditioning)이라 하고,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행동을 조건반응(Conditioned Response : CR)이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건형성과정을 고전적 조건형성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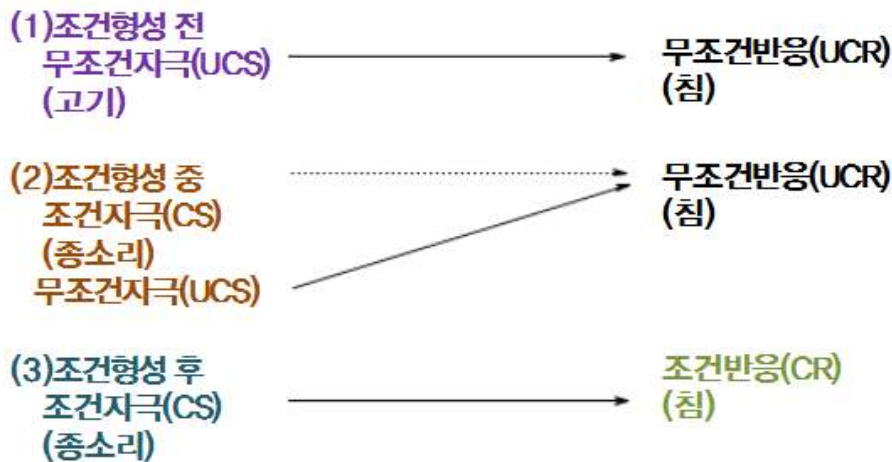
◆ Pavlov가 고안하여 사용한 고전적 조건형성 실험장치



◆ 무조건 반응 : 무조건자극 때문에 유발된 반응

- 고전적 조건형성

- ① 조건화 현상 :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리면 일정기간이 지난 후 개는 종소리만 듣고 음식을 보지도 않고서도 침을 흘리게 되었음
- ② 조건반응 :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행동



2) 고전적 조건형성의 주요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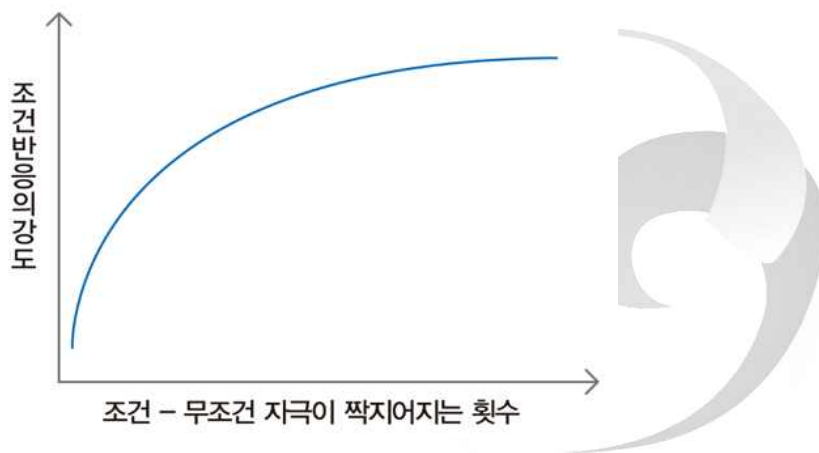
(1) 조건반사의 형성

① 조건반응이 형성되려면, 무조건자극(UCS)과 조건자극(CS)이 짝지어지는 횟수와 두 자극 간의 시간간격이 매우 중요하다.

-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은 짝짓는 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일정한 수준까지는 조건반응의 강도가 급속도로 증가한다.
- 그 횟수가 더욱 많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어느 수준에 이르면 증가를 멈추게 된다.

② 조건반응의 형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건자극(CS)과 무조건자극(UCS)을 짝지어 제시할 때, 두 자극 간의 시간간격이다.

- 조건화가 가장 잘 형성되는 이상적 시간간격은 조건화되는 반응이 무엇인가에 따라 상이하다.



(2) 자극의 일반화

- 어떤 특정의 조건자극에 대한 조건반응은 이 조건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 의해서도 유발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자극의 일반화라고 한다.
- 이것은 조건화가 완전히 형성되기까지는 무조건자극(고기)에 결부된 조건자극(종소리)과 유사한 자극에 대하여 모두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 일반적으로, 두 번째 제시되는 자극이 원래의 조건자극과 비슷하면 할수록 일반화가 잘 일어나고, 다르면 다를수록 일반화의 양은 적어진다. 자극일반화는 자극의 유사성에 대한 반응이다.

(3) 변별

- 조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조건자극과 유사한 모든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지만, 점차 변별력이 생겨서 자극을 변별하며 반응하게 된다.
- 즉, 조건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최초부터 주어졌던 조건자극에 대하여서만 조건반응이 나타나고 유사한 자극에는 조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을 자극변별(stimulus discriminaion)이라고 한다.

예) 최초에 주어졌던 조건자극인 종소리에는 조건반응이 일어났지만 휘파람 소리나 사이렌 소리 같은 자극에는 조건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소거

- 일단 조건반응(CR)이 형성된 후에라도 무조건자극(UCS)은 주지 않고 조건자극(UCS)만을 계속해서 제시하면, 조건반응은 점차 약해지고 마침내는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현상을 소멸 또는 소거(extinction)라고 한다.
- 소거는 일시적 억압현상으로 보여진다.

(5) 자발적 회복과 재조건 형성

- 소거현상에 의하여 조건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 후, 조건자극도 무조건자극도 전혀 제시하지 않다가, 무조건자극을 다시 제시하면 소거되었던 것으로 보이던 조건반응이 다시 회복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자발적 회복(spontaneous recovery)이라고 한다.
- 자발적 회복이 생긴 이후 계속해서 조건자극과 무조건자극을 짝지어 제시하면, 조건반응은 곧 원래의 강도를 되찾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재조건 형성(reconditioning)이라고 한다.
- 재조건 형성은 처음 조건형성될 때보다 시간이 단축되어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소거가 이루어진 후에도 원래 조건형성되었던 것이 어느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6) 이차적 조건형성

- 어떤 조건자극이 일단 조건반응을 유발하는 힘을 획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조건자극은 다른 제2의 자극과 짝 지워졌을 때, 제2의 자극에 대한 무조건자극이 되어 새로운 조건반응을 일으키는 자극력(刺戟力)이 될 수 있다.
- 다시 말하면, 조건화가 형성된 이후에 조건자극을 무조건자극으로 하고, 조건반응을 무조건반응으로 하여 또 다른 조건반응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을 이차적 조건형성(secondary conditioning)이라고 한다.
- 이런 방식으로 제3, 제4의 조건자극을 만들어 낼 때, 이러한 절차로 이루어진 형성을 고차적 조건형성(higher - order conditioning)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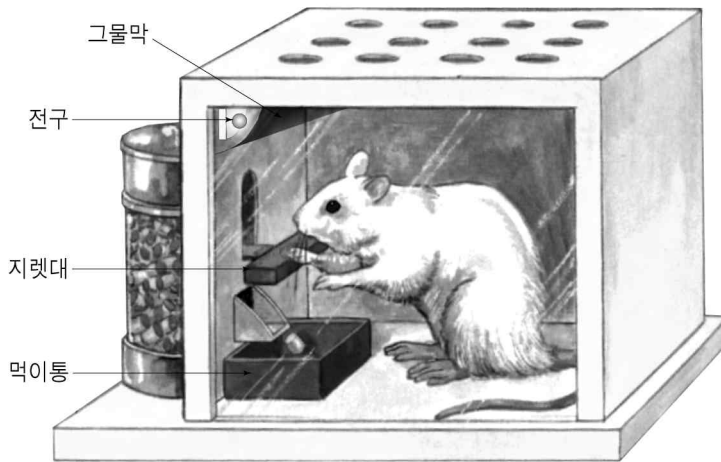
2. Skinner(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이론

1) Skinner의 생애

- ◆ 스키너(Burrhus Frederic Skinner)는 1904년 3월 2일 펜실베이니아의 스키하나에서 태어나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의 아버지는 변호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쾌활하고 아름다웠으며, '선(善)'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작가가 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동물행동을 전공해서 1931년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대학에서 교수와 연구자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2) Skinner의 조작적 조건화 실험

- ◆ Skinner는 스스로 Skinner box라고 명명한 조그마한 실험상자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 Skinner상자는 여러 번 개조하였는 바, 보통으로는 철망마루, 빛(전구), 지렛대 및 먹이통을 갖추고 있다. 동물이 지렛대를 누르면 배식기계가 작동하여 먹이가 먹이통에 나오도록 되어 있고, 실험자에 의하여 조작이 가능한 전구가 지렛대에 부착되어 있다.



- ◆ Skinner는 우선 실험동물인 흰쥐(때로는 비둘기)를 박탈 스케줄(deprivation schedule)에 따라 훈련한다. 박탈 스케줄이란, 흰쥐에게 먹이를 강화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험 전 며칠 간 23시간 동안 먹이를 박탈하고 1일 1회만 먹도록 순응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먹이의 양도 조절하여 자유로이 먹이를 먹을 때의 체중의 80%를 유지시킨다.

◆ Skinner box에 넣은 흰쥐의 행동

- 이렇게 며칠 동안 박탈 스케줄을 거치게 한 다음, 흰쥐를 Skinner box에 넣는다.
- 흰쥐는 상자 안에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다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러 먹이가 먹이통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먹고는, 다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 이때 먹이는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강화시켜 주어, 지렛대 누르는 행동이 증가되었다.

◆ 지렛대 누르는 반응을 통한 흰쥐의 학습과정

- 지렛대 누르는 반응은 먹이라는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반복된 것이며, 다시 누르면 또다시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지렛대 누르는 반응은 증가하게 되었다.
- 이러한 절차가 반복됨에 따라 흰쥐는 지렛대 누르는 반응을 학습하게 된다.
- Skinner는 흰쥐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환경에 스스로 작용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생성해 내는 것을 조작(operant)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절차로 되는 과정을 조작적 조건형성(operant conditioning)이라고 불렀다.

◆ 조작

- 흰쥐가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환경에 스스로 작용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생성해 내는 것
- 이와 같은 절차로 되는 과정 → 조작적 조건 형성

3) 조작적 조건형성의 주요원리
(1) 반응적 행동(respondent behavior)

“반응적”이란 용어는 구체적인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뜻한다.

(2) 조작적 행동

조작적 행동은 환경을 조작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행동이다

(3) 변별 자극

조작적 행동도 특정 자극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둘기를 스키너 상자에 넣고 불이 켜졌을 때에만 원판을 쪼는 행동을 강화한다.

(4) 강화

스키너는 행동의 결과로 일어날 수 있는 강화에는 두 가지,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와 부정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가 있다고 했다. 이 두 가지 강화는 모두 반응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즉 행동을 강화한다.

(5) 벌

벌(punishment)이란 어떤 사람에게 그가 원하는 어떤 것을 빼앗아가거나 또는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줌으로써 반응을 약화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6) 행동의 조성

행동의 조성은 복잡한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형성의 행동조성 방식은 조각가가 조각품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7) 행동의 유지 : 강화 계획

강화는 행동을 조성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강화는 형성된 행동을 유지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현재 보이고 있는 행동의 범위와 그 복합성을 이해하려면 현재의 강화의 조건부(contingencies of reinforcement)를 분석해야 한다. 즉 강화가 일어나는 외적 조건을 알아야 한다.

1. Bandura(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1) Bandura의 관찰학습

- 반두라는 1925년 12월 4일 캐나다 앨버타(Albarta)주의 먼다에서 태어났다.
-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ombia(UBC))을 졸업한 후 미국으로 이주해 아이오와(Iow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stanford)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 그가 인간이 사회적 상황에서 많은 것을 학습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은 Modeling이다.

◆ Modeling에는 3가지 유형의 학습

- ① 모방이다. 모방은 주로 언어학습이다.
- ② 관찰학습이다. 관찰학습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단순히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행동을 획득하는 과정이다.
- ③ 대리학습이다. 대리학습이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봄으로써 자기 자신의 행동결과를 예상하는 학습방법이다.

2) Bandura의 관찰학습 4단계

- Bandura(1977)는 관찰을 통한 학습이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1) 주의집중 단계

- 관찰학습의 첫 단계로서, 모방하려는 모델의 행위에 주의를 집중하는 단계이다.
- 모델로부터 무엇을 학습하기 전에 우선 모델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 사람들이 어떤 모델에 주의를 집중할 확률은 그들의 의존성 자존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 등 성격적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 또한 주의를 받는 자극의 특수성, 복잡성, 그 자극이 제시되는 속도 등도 주의집중에 영향을 준다.

(2) 파지 단계

- 이 단계는 관찰된 내용이 기억되는 단계이다.
- 관찰에서 얻은 정보가 유용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파지되어야 한다.
- 정보의 내용을 파지하려면 모델의 행동에 주의를 함과 동시에 그 행동의 사실적 혹은 분석적 표상이 되어야 한다.
- Bandura에 의하면, 정보는 심상적(imaginal) 방법과 어문적(verbal) 방법의 두 가지 방법으로 상징적인 기호의 형태로 저장된다고 한다.
- 즉 모방할 행동을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든지 영상으로 그려보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예컨대 단순히 관찰만 하고 있거나 한눈을 파는 경우)보다 훨씬 더 쉽게 학습이 일어난다고 말한다.

(3) 재생 단계

- 이 과정은 학습된 것이 어느 정도 수행으로 번역되느냐를 결정한다.
- 우리는 인지적으로는 많은 것을 학습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정보를 행동으로 번역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러므로 모방하려는 행동을 잘 파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것을 실제 실행에 옮겨봄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생단계이다.

(4) 동기화의 단계

- 관찰학습의 마지막 단계는,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동기를 높여 주는 단계이다.
- 관찰을 통해서 학습된 행동은 그 행동이 강화를 받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나, 만일 그 행동이 벌을 받게 된다면 그 행동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 동기화의 단계 : Bandura의 이론에서 강화는 두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① 관찰자로 하여금 모델과 같이 행동하면 자기도 역시 강화를 받는다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는 이미 모델이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강화받는 것을 관찰하였다.

② 강화는 학습을 수행으로 번역되게 하는 유인의 구실을 한다. 관찰을 통해서 학습된 것은 관찰자가 그러한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생길 때 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잠복해 있다.

※강화가 갖는 이 두 가지의 기능은 모두 정보적인데, 하나는 관찰자에게 어떤 장면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면 강화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고, 또 하나는 이미 학습한 것을 활용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

◆ 관찰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는

- ① 관찰자가 모델의 적절한 활동을 관찰하지 못하였거나
- ② 그것을 파지하지 못하였거나
- ③ 신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거나
- ④ 그들이 수행할 적절한 유인물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

3) 관찰학습의 모형

- 관찰학습은 학습자가 어떤 행동을 보았거나 들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관찰학습과정에 따라 5가지 전형(paradigm)을 찾아볼 수 있다.

(1) 직접모방 전형

직접모방 전형은 관찰학습의 가장 간단한 모형이다.

- 이것은 관찰자가 모델의 행위를 관찰하고 모델이 한 행동을 그대로 시행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것을 그 기본전제로 한다.

- 능률적인 사회행동을 학습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찰학습은 극히 효과적인 것으로서, 교사가 아동에게 누구누구처럼 행동하라고 지시하고 그대로 하면 보상을 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2) 동일시 전형

- 동일시 전형(identification paradigm)은 관찰자가 모델의 비도구적인 독특한 행동유형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 모델의 일반적인 행동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 동일시 학습의 초점이다.
- 정신분석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모의 가치체계가 자녀의 양심의 기반을 놓는 것으로서, 아동이 부모를 동일시하여 그 가치관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이에 속한다.
- 아동은 모델(부모)의 정서적 반응, 광범위한 의미체제, 도덕적 가치도 동일시의 과정을 통해서 내면화한다고 본다.

(3) 무시행학습 전형
▶ 무시행학습 전형(1)

- 무시행학습 전형(no-trial learning paradigm)은 행동을 미리 해볼 기회가 없거나 모방에 대한 강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찰자가 학습을 하는 것이다.
- 무시행 학습이 동일시 학습과 다른 점은 모방된 행동이 도구적인 반응이라는 것과, 모델 자신이 흔히 보상을 받는다는 점이다.
- 일단 모델의 특수한 도구적 행동이 모방되면, 모델이 직접 시범을 보이지 않은 관찰자의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상황이 다른 곳에서도 관찰자가 관찰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 무시행학습 전형(2)

- Bandura와 Ross(1963)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모델(실제의 성인, 영화, 만화모델)의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한 아동들이 공격적 행동의 모방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상황에서 공격적 행동을 전혀 관찰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면 공격적 행동이 월등히 강했다고 한다.
- 그런데 모델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난 뒤에 강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을 때 모방을 더 많이 했고, 그 반대로 모델이 자기의 행동의 결과로 벌을 받았을 때 행동이 제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4) 동시학습 전형
▶ 동시학습 전형(1)

- 동시학습 전형(co-learning paradigm)은 모델과 관찰자가 동시에 동일한 과제의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관찰자는 모델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 관찰자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모델이 할 때, 관찰자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촉진(social facilitation)이라고 한다.
- 이와 같이 관찰자의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하는 모델이 있을 때 행동이 촉진되는 현상을 동시학습이라고 한다.

▶ 동시학습 전형(2)

- 동시학습은 관찰자로 하여금 학습과제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무시행 학습과 다르며, 모델의 행동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간에 관찰하게 되고, 관찰한 행동을 그대로 정확하게 복사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모방 학습과도 다르다.

- 예를 들면 학교 학습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이 학습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학습하게 되는 경우와 같이,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득을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 고전적 대리조건형성 전형

▶ 고전적 대리조건형성 전형(1)

- 관찰학습은 작동적 행동의 학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 반응의 습득에도 일어나는 행동이다.

- 타인이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고 그와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학습하는 것을 고전적 대리조건형성(vicarious classical conditioning)이라고 한다.

▶ 고전적 대리조건형성 전형(2)

- 어떤 정서적 반응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조건화되고 그런 반응이 나중에 점차 강화되는 경우가 많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예이다.

- Berger(1962)는 이런 상태를 대리선동이라고 불렀다. 이것은 관찰자가 다른 사람이 무조건정서반응(uncoditioned emotional response)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고 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관찰자의 정서적 반응이 모델의 반응과 같을 때를 감정이입(empathy)이라고 하고, 다를 때를 동정(sympathy)이라고 말한다.

1. Piaget의 이론과 생애

1)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

- Jean piaget(1896~1980)는 인지발달 이론가로서 널리 알려진 심리학자이다.
- 그는 생물학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의지를 복잡한 유기체가 환경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적응해 가는 과정의 특수한 한 형태로 보고 인간의 지각, 학습, 경험 등 인식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였다.
- 그는 유아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어떻게 인지발달을 하는지에 대해 밝힘으로써 인식의 본질을 밝혀 보려고 하였다.

◆ Piaget 인간의 지적능력

- Piaget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란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 본다.

◆ Piaget 인지

- 인지(cognition)라는 의미는 획득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높은 수준의 정신과정을 말한다.
- 인지의 개념 속에서는 지적과정, 지각, 기억, 지능, 학습, 회상, 상상, 추리, 판단능력, 문제해결 등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일련의 정신과정들이 포함된다.
- 그러므로 인간의 심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2) 피아제의 생애

- Piaget는 1896년 스위스의 작은 대학촌인 뉴샤텔(Neuchatel)에서 태어났다.
- 그의 아버지는 세심하고 체계적인 중세 역사가자였다. Piaget는 아버지의 학구열을 이어받아 1918년 21세에 Neuchatel 대학에서 연체동물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 그는 1920년 파리비네(Alfred Binet) 실험실에서 아동의 지능검사시 아동의 틀린 답이 일관성 있는 유형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동의 사고가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
- 그는 1956년 국제발생적 인식론센터를 창설하여 많은 나라로부터 초청한 과학자들과 협력하여 이 연구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였다.
- Piaget는 아동심리학 분야에서만 40권의 저서와 1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고 1980년에 사망하였다.

2. 인지발달 기제

1) 기능적인 면

◆ 조직화

- 조직화(organization)는 행동이나 사고가 각각 분리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행동이나 사고 체계로 묶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

- 아기가 어떤 물건을 손바닥에 놓으면 그것을 쳐다보거나 꼭 쥐거나 하지만 처음에는 이 두 가지 행동을 조직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동시에 수행하지 못한다.

- 점차 아기는 성숙한 경험에 의해 자신이 쥐고 있는 일체를 볼 수 있게 되고, 볼 수 있는 물체를 잡을 수 있다.

- 이러한 조직화는 의식적이거나 의도적인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 적응(adaptation)은 어린이가 내적.외적 경험과 상호작용하여 이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적응과정은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odation)에 의해 이루어진다.

◆ 동화(assimilation) 새로운 경험과 사물이 어린이의 도식 구조 속으로 합병되는 과정 즉,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사고와 행동방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 조절(accomodation)은 이전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요소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상에 대해 좀 더 적절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2) 구조적인 면

◆ 도식(schema)은 유아가 물건을 잡는 것 같은 행동일 수도 있고, 장난감 이름을 알기 전에 머릿속에 장난감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자극의 영상일 수도 있으며, 계획, 기대, 믿음, 규칙 같은 복잡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 어떤 도식은 (예 : 젓꼭지를 빠는 것)은 생득적으로 타고난 것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도식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다.

◆ 조작(operation)은 유아가 일련의 특정 문제를 해결 할 때 보이는 공통성에서 추론된다.

- 조작이란 지적표상이고, 정신적 행위(사고)를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며, 가역 가능한 것이다.

3. 주요개념

1) 도식(schema)

- 도식은 인지적인 구조(cognitive structures)라고 할 수 있다.
- Piaget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몇 개의 반사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 즉,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빨기, 보기, 잡기 등 반사적인 잠재력을 갖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인지구조를 구성해 나간다.
- 이 잠재력을 Piaget는 도식(schema)이라고 불렀다. 도식은 기억되어 있는 '인지적 틀', '지식의 묶음', '이해의 틀', '색인철(index file)', '카테고리(범주)'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다.
- 예) 아기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반사 중에서 젖꼭지와 같이 무엇이든 입에 닿는 것을 빠는 빨기반사(sucking reflex)가 있다. 아기는 빠는 행위를 반복하는 가운데 빨기 도식을 형성하게 된다.

2) 동화(assimilation)

- 동화는 Piaget가 생물학에서 빌어 온 용어로서, 유기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 또는 인지적 구조에 따라 외계의 사물이나 사건에 반응하는 과정이다.
- 즉, 새로운 자극물이나 자극 사건을 이미 가지고 있는 도식이나 행동 양식에 맞추는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이다.
- 예) 유아에게 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멍멍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그 후 유아는 고양이, 양, 소, 말 등 네 발 달린 짐승을 모두 '멍멍이'라고 부르면 이것은 개의 도식에 동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절(accomodation)

- 조절(accomodation)이란 이전의 사고와 행동방식의 요소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상에 대해 좀더 적절한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 유아가 새로운 자극을 만나면 그것을 이미 갖고 있는 도식에 끌어들여 동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때때로 자극은 동화할 수 있는 적절한 도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자극이 갖고 있는 특성과 기존 도식들의 특성 간의 거리가 멀어서 동화되지 못할 수가 있다.
- 이때 바로 인지적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인지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4) 평형화(equilibration)

- 평형화는 인지적 성장과 발달에서 동화와 조절의 인지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Piaget는 평형화(equilibration)라고 하였다.
- 그러나 유아가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기존의 도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평형(disequilibrium)의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 비평형 상태는 언제나 갈등과 긴장을 유발한다.

4. 인지발달 단계

Piaget 인지발달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 계	연 령	특 징
1. 감각운동기	0 ~ 2세	.반사적, 운동적 기능 .지금, 여기의 세계 .감각운동 6단계 .대상영속성 개념
2. 전조작기 전개념기 직관적 사고기	2 ~ 7세 2 ~ 4세 4 ~ 7세	.상징적 사고, 직관적 사고, 자아중심적 사고, 물활론적 사고 .도덕적 실재론, 꿈의 실재론, 보존개념 미획득
3. 구체적 조작기	7세 ~ 11, 12세	.보존개념 획득, 분류와 관계에 대한 논리, 서열화, 유목화 .탈중심화, 자율적 도덕성, 구체적 범위만 사고함
4. 형식적 조작기	11, 12세 ~	.사고에서 전도가 가능함 .사고의 완전한 보편성 .가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 .강한 이상주의의 발달 .추상적 개념 사용, 조합적 사고, 연역적 사고

1. Rogers(로저스)의 현상학적 성격이론

1) 인본주의 심리학

- 인본주의 심리학은 다른 심리학과는 달리 단일의 조직적인 이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이라 말할 수 있다.

◆ Maslow가 명한 “제3의 심리학” 인본주의

- 신프로이드학파 :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데 있다.
- 형태주의, 장의 이론학자 :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그 행동을 규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
- 지각주의, 현상학, 실존주의 심리학 : 개인의 특수성과 통합을 해석한다.

- 칼 로저스는 “인간은 단순히 기계적인 특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요, 무의식적 욕망의 포로도 아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생의 의미를 창조하며 주관적 자유를 실천해 가는 존재이다.”라고 했다.

-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환경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자율성을 부정하는 행동주의와 인간을 악하고 충동적이며 저돌적인 본성을 지닌 음울하고 비관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 회의를 품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묘사하고 있다.

2) Rogers의 생애

- Carl Rogers는 1902년 1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처 오크파크(oak park)에서 5남 1녀 중 4째로 태어났다.
- 1940년 오하이오 주립대학(Ohio state University)의 심리학과 교수로 초빙되었다.
- 1945~1957년까지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 교수와 상담소의 책임을 맡아 일했고, 이 기간 동안 「내담자 중심요법(Client Centered Therapy)」을 출간하였다.
- 1964~1967년 미국심리학회장을 지냈고, 1956년 미국심리학회 우수과학 공로상
- 1972년 미국심리학회 우수 공로자상을 수상했으며, 말년에 그는 인종 간의 긴장완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노력에 열정을 바쳤으며 1987년에 작고하였다.

3) 인간관

- ① 인간의 삶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 조종당하는 피동적 삶이 아니라 각 개인의 자유로운 능동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았다.
- ②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규정한다.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살인, 강간, 이상적 충동, 반사회적 행동 등은 진정한 인간 내적 본성과 화합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정도로 그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 .
- ③ 모든 인간이 자신의 내부에 자기 이해, 자기 개념과 기본적 태도의 변화 및 자기 지향적 행동을 위한 거대한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 ④ 인간을 통합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아는 항상 더 원대한 전체성으로 이동해 간다고 하였다.

4) 주요개념

(1) 현상학적 장

- 현상학적 장이란 경험적 세계(experiential world) 또는 주관적 경험으로도 불리는 개념으로 특정 순간에 개인이 경험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 Rogers는 동일한 현상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개인적 현실(individual reality) 즉, 현상학적 장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 현상학적 이론의 특징

- ① 현상학적 이론에서는 정신분석의 동기적이고 역동적인 개념과 특질론의 기본성향을 거부
- ② 행동주의의 외적 자극의 반응을 강조하는 것도 거부
- ③ 오직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초점
- ④ 개인이 세상에 정보를 부호화하고 범주화하는 내적 과정에 많은 관심

(2) 자아

- 자아(self)는 Rogers의 인본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구성개념이다.

- Rogers는 자아 또는 자아개념(self - concept)을 개인의 현상학적 장이 분화된 부분이며, 'I'나 'me'에 대한 의식적 지각과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 자아의 개념은 현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개인의 개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self image)으로 '현재의 나'라는 존재의 인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능의 인식을 포함하는 것이다.

- Rogers는 자아개념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 즉 현실자아(real self)와 앞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즉 이상적 자아(ideal self)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3) 자아실현 경향

- Rogers는 인간에게는 많은 욕구와 동기가 있지만 그것들은 단지 하나의 기본적 욕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 그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자기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며 실현하는 욕구이다. Rogers는 이러한 욕구를 자기유지(self-maintenance), 자기향상(self-enhancement),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 Rogers는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유지하려는 경향과 성장 잠재력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태어난다고 보고 있다.

2. Maslow(매슬로우)의 인본주의적 성격이론

1) 인본주의적 성격이론의 기본적 전제

- Abraham Maslow의 인본주의적 성격이론의 기본적 전제는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① 각 개인은 통합된 전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 ②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인간의 악하고 파괴적인 요소는 나쁜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창조성이 인간의 잠재적 본성이다.

2) Maslow의 생애

- Maslow는 1908년 4월 1일 뉴욕의 부르크린(Brooklyn)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 그의 부모는 러시아로부터 이민 온 교육받지 못한 유태인이었다.
- 제2차 세계대전은 Maslow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그에게 있어서 전쟁은 인간의 편견, 미움, 추잡 등으로 요약되었기 때문이다.
- 그는 1951년 브렌디스(Brandeis) 대학의 심리학과장으로 임명되어 1961년까지 재임했으며, 그 후 계속 심리학 교수로 재임되었다.
- 그는 62세 되던 1970년 6월 8일에 심장마비로 사망하기까지 미국 심리학회 인본주의 운동의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3) 욕구단계

- Maslow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의미와 만족을 주는 일련의 선천적 욕구들에 의해 동기화되지만, 인간은 완전한 만족의 상태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부족을 느끼는 동물(wanting animal)”로 묘사했다.
- 인간이 한 가지 욕구에 만족했다 할지라도 그 만족상태는 아주 오래 가지 않는다.
- 왜냐하면 한 가지 욕구가 충족되는 순간에 다른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언제나 불만스러우며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 인간생활의 특징이다.

※ Maslow의 욕구위계 구조



(1) 생리적 욕구

-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하며 분명한 것으로 추위나 더위로부터의 보호,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 등이 포함된다.
- 이러한 생리적 욕구는 유기체의 생물학적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기 전에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 있어야 한다.
- 만약 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2)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싶은 욕구와 같은 안전의 욕구(safety need)에 관심을 갖게 된다.
- 안전의 욕구는 환경 내에서의 확실성, 안전, 질서, 고통회피, 보호 등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 성인기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직업생활을 통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적 수입을 확보하고 이와 아울러 퇴직이나 실업, 질병 등에 대비하여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며, 종교를 통하여 안전감을 획득하는 행동 등으로 표현된다.
- 안전의 욕구는 사회의 법, 질서, 권위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더 절박해진다.

(3)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need for belonging and love)는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나타나는 욕구이다.
- 이런 욕구에 의해 동기화된 개인은 타인과 애정의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동반자와 가족이나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있다.
- 이 욕구는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 모든 개인은 사랑을 받고 포용되는 것을 통하여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공허감, 무가치감, 적대감 등을 가지게 된다.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4) 자아존중의 욕구

- 타인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자아 존중의 욕구(self-esteem need)가 나타난다. 자아존중감의 욕구는 자기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을 모두 포함한다.
- 자기존중은 능력, 신뢰감, 개인의 힘, 적합성, 성취, 독립, 자유 등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존경은 명성, 수용, 주목, 평판, 영광과 명예를 말한다.
- Maslow는 가장 건전한 자아존중감은 명성, 지위, 또는 아침보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아존중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타인에 대해 열등의식을 느끼고 자기 비하를 하며, 삶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5) 자아실현의 욕구

- 위의 욕구들이 충분히 만족되면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가 나타난다. 이 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 욕구의 위계에서 상위 욕구일수록 충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예를 들어 생리적 욕구를 85% 충족시키면, 안전의 욕구는 70%, 애정의 욕구는 50%, 자존의 욕구는 40%, 자아실현의 욕구는 10%를 충족하는 식이다.



- Maslow는 욕구위계설에서 예외가 있는 것을 인정하였다. 즉, 욕구위계가 일반성을 가지기는 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자아실현자의 특징

- ① 자아실현자는 현실에 대해 효과적인 지각을 하며 편안해 한다. 그들은 세계를 자기들이 원하거나 필요한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본다.
- ② 자아실현자는 불만 없이 자신의 본성과 다른 사람들을 수용한다. 자아실현자는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 인류 전체의 결함에 대해 똑같이 관대하다.
- ③ 자아실현자는 행동에 꾸밈이 없으며 내적 생활, 사고, 충동에도 꾸밈이 없다. 그들의 행동은 순박하고 자연스럽다.
- ④ 자아실현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외부의 문제들에 크게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문제 중심적이다.
- ⑤ 자아실현자는 자신에게 해롭거나 불편해 하지 않으면서 혼자일 수 있다. 그들은 보통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 ⑥ 자아실현자는 프라이버시와 독립의 욕구로 인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비교적 독립되어 있다. 즉, 자율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구애되지 않는다.

- ⑦ 자아실현자는 자연, 어린아이 등과 같은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경외, 기쁨, 경이, 환희를 느끼며 새롭게 받아들이고 순진무구하게 감사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 ⑧ 절정 경험이라는 신비의 경험을 한다.
- ⑨ 자아실현자는 모든 인간에 대해 강하게 이입된 감정과 애정을 느끼며 동시에 인본주의를 지지한다. 즉 모든 사람과의 일치감, 연대감을 갖는다.
- ⑩ 자아실현자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깊이 인간관계를 맺는다.
- ⑪ 자아실현자는 민주적인 성격 특성을 가진다. 그들은 계급, 교육수준, 정치적 신념, 인종,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우호적이다.
- ⑫ 자아실현자는 수단과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하며, 목적을 수단보다 훨씬 더 중요시한다. 그들은 실제 생활에서 옳고 그른 것을 확실히 구분한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분명한 도덕기준을 가지며, 옳은 일은 하고 그른 일은 하지 않는다.
- ⑬ 자아실현자는 적개심이 없는 철학적인 유머감각이 있다. 예를 들면 링컨의 유머가 자아실현자의 특성을 가진 유머이다. 인간이 어리석게 행동하거나 우주에서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실제로 작은 존재임에도 큰 척할 때 돌려주는 것이 자아실현자의 유머이다.
- ⑭ 자아실현자의 창조성은 때 묻지 않은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하고 광범위한 창조성에 가깝다.
- ⑮ 자아실현자는 문화적응에 저항하고 특정문화를 초월한다. 즉, 이들은 문화에 동화되지 않으려 하며, 사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1. 이상행동의 개념

1) 이상행동이란 무엇인가

- 어떤 행동이 이상행동(abnormal behavior)인가에 대한 대답은 정신의학의 소관이지만, 일반적으로 이상행동이란 심리적 장애 즉,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건강, 성장, 행복한 삶을 저해하는 빛나간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 로젠한과 셀리그만(Rosenhan & Seligman)은 이상행동을 정의하는 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사용하여 어떤 사람이나 행동을 비정상이라고 결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들로 고통, 부적응, 비합리성과 불가해성, 예측불가능성과 통제력의 결핍, 비인습성을 들었다.

(1) 고통

-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을 때 흔히 비정상적으로 간주되며 고통을 심하게 겪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더욱 비정상이라고 한다.
- 그러나 고통이 이상행동의 필요조건은 아니다.
- 즉, 어떤 행동을 이상행동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 고통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예를 들면 조증(mania)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항상 명랑하고, 현실성 없는 포부가 실현될 것으로 확신하며, 희망과 즐거움에 차 있다. 이런 경우에 고통은 없으나 명백한 이상행동을 간주할 수 있다.
- 또한 고통은 이상행동의 충분조건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잃었을 때 고통스러워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다.

(2) 부적응

- 적응적 행동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생존을 증진시키는가, 그 행동이 개인의 안녕(well-being)을 증진시키는가, 그 행동이 사회의 안녕을 증진시키는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중에서도 그 행동이 얼마나 그 사람 자신의 안녕과 사회의 안녕을 증진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와 같은 이상행동은 대인관계와 일을 방해하며 삶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다.
- 이러한 저해의 정도가 심할수록 더 분명한 이상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적응은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 된다.

(3) 비합리성과 불가해성(irrationality and incomprehensibility)

- 어떤 사람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비정상이라고 말한다.
- 이러한 기준에 의해 이상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정신분열증의 주요 증세인 사고 장애이다. 그들은 객관적인 현실에 전혀 기반을 두지 않은 인식과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생각, 한 사고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다른 사고를 이어지는 정신적 과정 등을 가지며 객관적인 이해가 불가능하다.

(4) 예측 불가능성(unpredictability)과 통제력의 결핍

- 사람은 누구나 환경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또 자유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는데 이러한 욕구는 타인에 의해서 예측 가능할 때에만 충족할 수 있다.
- 즉, 예측 가능한 세계에는 일관성과 통제가 존재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위협받는 것처럼 느낀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상적인 통제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간주하고 그런 행동을 이상행동으로 정의한다.

(5) 비인습성(unconventionality)

- 사람들은 자신이 그 행동을 할 의사가 있는가에 따라 그 행동에 대해 인습적인가 또는 비인습적인가를 판단한다.
- 즉, 자기가 할 의사가 없는 행동을 비인습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평가한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도 이상행동의 판단기준이 된다.
- 드물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며 이상행동으로 간주된다.
- 각 문화마다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관적으로 알고 행동의 지침으로 사용하는 규율이 있다. 이러한 규율을 깨뜨리는 행동은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이상행동의 일반적 기준

- ① 인간의 모든 행동과 심리적 특성은 관찰할 수 있고 측정 가능한 통계적 기준이다. 즉, 인간의 이상상태나 행동을 측정해서 그 측정치가 정상범위 안에 들면 정상(normal)이라고 하고, 정상 범위에 벗어나면 이상(abnormal)이라고 한다.
- ② 인간행동에 대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사회규범과 가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 ③ 심리적 증상에 의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불안이나 우울, 주위집중장애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이상이라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으로 보는 기준이다.
- ④ 이상적인 기준이다.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적응상태 또는 성숙한 인간의 특성을 정상이라고 보고 이에 벗어나면 이상으로 보는 입장이다.

3) 이상행동의 분류
(1) 정신증(psychosis)

- 정신증의 특징은 퇴행과 인격의 부조화, 통찰 능력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 가정, 직장 등의 일상생활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나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자아 기능의 심한 손상으로 이해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
- 외형적으로는 병에 대한 인식이 없고 망각과 환각, 착란 증세를 나타낸다.

◆ 대표적인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 조울증
- 망상장애
- 중도의 우울증

(2) 신경증(neurosis)

-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보통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다.
- 그러나 고통스러운 증상이나 증후군과 함께 불안, 우울, 신체 증세를 호소하는 일이 많다.
- 망상, 환각, 사고장애, 기이한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행동이 크게 사회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 신체증세가 나타나도 기질적인 원인이 없이 심각한 스트레스와 같은 외적 원인이나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 불안장애, 강박증, 사회공포증, 광장공포증, 다양한 공포증, 스트레스 증후군 등이 이에 속한다.

(3)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 청소년기부터 나타나서 성인기에 이르면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 감정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한 정서 상태, 지나치게 이상화했다가 쉽게 실망한 대인관계, 예측할 수 없는 행동 패턴 등이 주요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현실감이 있는 듯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족들을 괴롭히고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회적, 직업적, 대인관계 면에서 기능 손상을 나타낸다.
- 성격장애는 분열형 성격장애, 분열성 성격장애, 편집적 성격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등으로 나뉘어진다.

2. 이상행동의 모델
1) 생물학적 모델(biological model)

- ① 세균에서 이상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은 16세기에 유행했던 것으로 심리적 장애가 매독균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성립되었고, 이러한 장애에 대한 치료로 신체에 대한 약물의 적용으로 접근하였으나 현대에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② 원시시대에서나 현대에서나 정신분열증 환자는 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심리적 장애가 유전적으로 전해지는 질병이라고 설명한다.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 한 사람이 정신분열증일 때 다른 한 사람이 발병하는 확률은 보통사람보다 10배 이상 높으며,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이란성 쌍생아보다 5배 이상 발병율이 높다.
- ③ 생화학적 이상에서 이상행동의 원인을 찾는 것으로 정신분열증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증상은 체내의 불균형한 생화학적인 현상에서 원인을 찾아 '도파민 가설'이라고 불리며, 뇌에 도파민이 과다하게 존재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유발된다고 설명한다.
- ④ 생물학적 모델은 이상행동이 뇌의 특정한 영역의 역기능에 의해 초래된다고 본다. 생물학적 모델은 이상행동의 원인에 대한 위의 네 가지 설명에 근거하여, 이상행동을 신체적 질병의 치료와 같은 방식인 약물치료와 물리적 치료인 전기충격치료(E.C.T)로 치료한다.

2) 정신분석적 모델(psychoanalytic model)

- 행동장애 : 모델에 의하면 행동장애란 무의식적 내적 갈등(unconscious internal conflict)의 상징적 표현이다.

- 문제행동의 발생 근거

- ① 성장 초기부터 나타나는 본능적 욕구(id)에 의한 공격성, 성적 충동이 초자아에 의해서 억압되어 무의식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데서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 ② 어린 시절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트라우마(trauma: 상처)가 무의식에 잠재해 있다가 성인이 되어 어떤 사건과 연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믿었다.

- Freud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시장, 극장, 정치유세장, 교회... 등)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광장공포증(agoraphobia)의 원인은 어린시절의 성장과정에서 겪은 심한 고립상태에 대한 불안이며, 우울증 환자의 의존적인 성격은 초기 구강단계에 고착되어 자기 비탄이 우울증으로 발전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다른 정신질환의 원인, 특히 히스테리성 질환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

3) 행동주의적 모델(behavioral model)

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와의 연관성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그러므로 행동주의 이론은 이상행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동이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학습되었다고 본다.

② 실험에 의해서 환경의 어느 부분이 이상행동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

③ 인간을 형성한 환경적 요인을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면 그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행동주의 치료 모델에는 체계적 둔감법, 모델링, 혐오자극, 토큰경제, 홍수법 선택적 긍정적 강화(selective positive reinforcement)와 선택적 처벌(selective punishment) 등이 있다.

4) 인지적 모델(cognitive model)

- 인지적 모델은 인간의 생각하고 믿고 기대하는 능력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잘못된 인식과정을 이상행동의 원인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꿈으로써 이상행동이 치유될 수 있다고 본다.

- 인지적 모델에서는 정신적 사건 즉, 기대, 믿음, 기억 등이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적 사건이 변화되면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게 된다.

① 기대 :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명확히 예측하는 인지과정으로서 미래에 대해 부정적 기대를 가지면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

② 의식과 무의식 :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즉, 슬픔, 분노, 불안이라는 감정의 본질은 상실, 침해, 위협의 평가라는 인지과정에 포함하는 것이다.

③ 귀인(attribution) : 어떤 사건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다. 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행동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는가에 관한 사고이다. 인지적 모델에서 사건이나 행동에 대한 귀인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의 원인으로 돌려진다.

④ 신념 :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인지적 과정이다. 많은 심리적 장애가 비합리적인 신념에서 비롯된다. 완전주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항상 친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비합리적인 신념에는 '반드시', '절대로', '모든', '완전히', '전혀', '파멸적인(catastrophic)', '해야만 한다' 등이 저변에 깔려 있다. 예를 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면에서 완전히 능력이 있고 적절하며 성취적이어야 한다.", "사람은 모든 주요 타자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끔찍하고 파멸적이다.", "인간의 문제는 옳고 정확하며 완벽한 해결책이 있으며, 이런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는 파멸적이다." 등을 들 수 있다.



1. 불안, 기분(정동) 장애

1) 불안장애

- ◆ 불안 : 불안이라는 정서적 상태는 정신병리적 현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정상인의 심리현상에서도 나타나는 정서상태이다.
- ◆ 불안장애 : 신경증이라고도 불리우는 불안장애(anxiety disorder)는 공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불안장애는 노이로제, 정신신경증이라고 불려져 왔다.
 - Freud는 불안이 신경증의 원인이 된다고 믿었다.
 - 즉, 신경증 환자에게는 공포, 강박증, 신경적 증후 등 매우 다양한 이상행동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두 억압된 불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Freud는 믿었다.
 - 이와 같은 정신분석의 입장에 회의를 품은 정신의학자들이 새로운 분류체계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요강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 III, IV)이다.

2) 공포성 불안장애(Phobic Anxiety Disorder)

(1) 광장공포증(agoraphobia)

- 광장공포증은 넓은 장소에 대한 공포를 뜻한다.
- ◆ 광장공포증의 ICD - 10 진단치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심리적 증상이든 자율신경계의 증상이든 불안증상이 일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라야 하며, 피해망상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생기는 공포라든가, 강박장애 때 강박행동이 불가한 처지에서 이차적으로 겪은 불안 등이 아니어야 한다.
 - ② 공포불안은 다음 중 두 개 또는 그 이상에서 한정되어야 한다.
 - ㉠ 군중 속에서 ㉡ 공공장소에서 ㉢ 집을 떠나 여행할 때 ㉣ 혼자 있을 때
 - ③ 공포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현재나 또는 과거부터 있어온 주된 양상이다.

(2) 사회공포증(social phobia)

- 불안이 특수하게 대인관계나 사회적 상황에서 남을 의식하여 생기는 창피한 감정을 핵심으로 형성되면 이를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이라고 한다.
- ◆ 사회공포증의 ICD - 10 진단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심리적, 행태적 증상이든 자율신경계 증상이든 증상은 일차적으로 불안의 발현이어야 하며, 망상이나 강박적 사고 등과 같은 그 밖의 증상에서 나온 이차적인 것이어서는 안 된다.
 - ② 불안은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 국한되어 일어나거나 그 상황에서 특히 우세하게 일어나야 한다.
 - ③ 공포 상황에 대한 회피가 두드러진 양상이라야 한다.

(3) 특정공포증(specific phobia)

- 어떤 특수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국한된 공포증을 말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무서워하는 대상이 하나로 국한되어 있다.

◆ DSM - IV에서는 이 공포증을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 ① 공포증, 동물형(고양이, 쥐 등)
- ② 공포증, 상해형(천둥, 높은 곳 등)
- ③ 공포증, 자연환경형(피, 주사 등)
- ④ 공포증, 상황형(비행기, 폐쇄된 장소 등)
- ⑤ 기타형으로 세분한다.

3) 기타 불안장애(Other Anxiety Disorders)

(1) 공황장애(panic disorder)

- 공황장애는 특징적으로 공황발작이 아무런 예고 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① 객관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하고
- ② 발작이 미리 알려진, 예측 가능한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 ③ 발작과 발작 사이에 예기 불안이 흔하긴 하지만 불안증상에서 비교적 해방된 상태이어야 한다.

(2)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 DSM - IV의 정서에 따르면 이는 다양한 신체증상이 동반되고 과도하고 만연된 걱정으로 이 때문에 유의하게 사회적, 직업적 손상을 남기고 본인은 매우 고통스럽다.

- 범불안장애의 ICD - 10 진단지침은 다음과 같다.

- 환자는 한 번에 수주일 동안, 그리고 대개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일차적인 불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이와 같은 증상에는 대체로 다음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근심(장차 닥쳐올 불행에 대한 근심, "낭떠러지에서 있는 듯한 느낌", 집중력 곤란, 구갈 등)
- ② 운동성 긴장(안절부절 못함, 긴장성 두통, 전율, 마음을 놓지 못함, 이완의 불가능)
- ③ 자율신경 기능의 항진(두중감, 발한, 빈맥 또는 빈 호흡, 위 상부 불쾌감, 어지러움, 구갈 등)

4) 강박장애(Obsessive - Compulsive Disorder)

- 강박 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 강박장애의 ICD - 10 진단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그 증상들은 그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충동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 ② 비록 환자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다른 증상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잘 참을 수 없는 생각이나 행동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 ③ 그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 그 자체는 기분 좋은 것이 아니어야 한다. (긴장이나 불안의 단순한 해소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유쾌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④ 생각, 영상(image) 또는 충동이 불유쾌하게 반복되어야 한다. 포함되는 것 : anankastic neurosis, obsessional neurosis, obsessive-compulsive neurosis.

5)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Reaction severe stress, and Adjustment Disorders)

(1) 급성스트레스장애(acute stress disorder)

-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서 반응의 마비, 소외, 결핍에 대한 객관적인 느낌, 주변에 대한 자각의 감소(예 : 멍한 상태), 현실감 손실, 이민증, 해리성 기억상실(예 : 외상을 부분적으로 회상하지 못함) 등 해리성 증상 중 세 가지 이상의 증상이 적어도 2일간, 그리고 길게는 4주간 지속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 DSM - IV에서는 이 장애에서 증상의 최소 발현기간을 1개월로 정하였고, 새로운 진단기준인 급성스트레스장애를 소개하였는데 2일에 4주간 증상이 지속되는 환자를 말한다.

(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죽음의 위협이나 심각한 상해,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신체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의 목격, 가족이나 친지의 예기치 못한 죽음이나 심각한 장애 및 이들이 경험한 죽음이나 상해에의 위협 등 극심한 외상적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된 후 이 사건들에 대한 반응으로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 이러한 외상은 전쟁경험, 자연재앙, 폭력, 강간 및 심한 사고를 포함한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ICD - 10 진단지침은 다음과 같다.

- ① 환자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고통을 줄 수 있는 예외적으로 위협하거나 재해적인 성격을 띤 스트레스성 사건이나 상황에 노출되어야 한다. (짧거나 또는 길거나 함)
- ② 스트레스 인자와 연관되거나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끊임없는 과거 장면의 재현, 생생한 기억, 재생되는 꿈 또는 고통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인자를 끊임없이 기억하려 하거나 배제하려는 점이 있어야 한다.
- ③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되기 전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스트레스 인자와 비슷하거나 연관된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 ④ 아래 사항들이 나타나야 한다.
 - ㉠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된 시기의 중요한 일면을 기억하지 못함
 - ㉡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되기 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증가된 심리적 예민감이나 각성 등의 지속적인 증상을 다음 사항 중 두 가지 이상 보여야 한다.
 - ㉢ 잠들거나 수면 유지하는 것이 곤란함
 - ㉣ 안절부절 또는 분노발작
 - ㉤ 집중의 어려움
 - ㉥ 과조심
 - ㉦ 과장된 놀람반응

6) 기분(정동)장애(Mood(Affective) Disorder)

◆ 기분장애 : 기분장애는 근본적으로 심한 우울증에서 조증에 이르는 일련의 감정(emotion)을 포함하는 기분의 병리상태이다.

- 기분이 극단적으로 우울한 상태를 우울증(depression)이라고 하며 극단적으로 들뜬 기분상태에 있는 경우를 조증(mania)이라고 한다.
- DSM - IV에서는 우울장애를 주요 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 기분저하장애(dysthymic disorder)로 분류하고 양극성 장애를 I형 양극성 장애(bipolar I disorder), II형 양극성 장애(bipolar II disorder), 순환성 기분장애(cyclothymic disorder)로 분류하고 있다.

(1) 우울증 삽화(Depressive Episode)

- 우울증이란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에 대하여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절망하는 즉, 사는 맛을 알지 못하게 되는 병이다.
- 실제로 성인 10명 중 1명은 일생 동안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며,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일생 동안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30%에 달한다고 한다.
- 그러나 대다수의 환자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단지 10~25%만이 전문가로부터 치료를 받는다고 한다.

(2) 조증삽화(Manic Episode)

- 조증은 기본적으로 들뜬 기분과 육체적·정신적 활동 양과 속도의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조증은 그 정도에 따라 경조증, 급성 조증, 정신 착란성 조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경조증(hypomania)은 경한 정도의 조증이며, 기분과 행동의 이상이 순환성 기분장애(cyclothymia)에 포함시키기에는 지속적(최소한 여러 날)이고 현저한 상태이다.
- 특징적인 증상
 - ① 억제할 수 없는 언변
 - ② 수면욕구의 저하
 - ③ 과대성(grandiosity)
 - ④ 지나친 낙관주의

(3)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affective disorder)

- 양극성 정동장애는 기분과 활동 수준 장애의 삽화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것으로 어떤 삽화는 기분의 고양과 활력 및 활동의 증가(경조증이나 조증)를 나타내고, 어떤 삽화는 기분의 저조와 활력 및 활동의 감소(우울증)가 나타나기도 한다.
- 특징적으로 삽화와 삽화 사이에는 대부분 완전한 회복이 있다. 조증 삽화만 되풀이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가족력, 발병 전 성격, 발병연령, 예후 등이 우울증 삽화가 있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므로 양극성으로 분류한다.
- 양극성 정동장애는 과거에 최소한 한 번의 조증이나 경조증 삽화가 있어야 하며, 그 분류는 현 삽화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의 삽화가 우울증일 경우에는 우울증의 정도 및 증상에 따라 진단을 세분하고 있다.

(4) 순환성 기분장애(cyclothymia)

- 이 장애의 특징은 지속적인 기분의 불안정으로서 가벼운 우울증과 가벼운 기분 고양의 기간이 수없이 나타난다. 기분의 동요가 비교적 가볍고 기분이 고양되더라도 유쾌한 정도일 수 있기 때문에 순환성 기분장애 환자는 병적이라고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기분 순환증의 ICD - 10 진단지침은 다음과 같다.

- 핵심적 임상특징은 기분의 지속적인 불안정으로서 가벼운 우울증과 가벼운 기분 고양의 수많은 기간을 포함하면서 그 어떤 기간도 양극성 정동장애나 반복성 우울장애의 기준을 충족시킬 정도로 심하게 지속되지 않는다.
- 이 말은 기분 동요의 개별적인 삽화가 조증이나 우울증 삽화에 기술한 그 어떤 범주에 대한 기준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5) 기분저하증(dysthymia)

- 기분저하증은 매일 같이 거의 하루 온종일 우울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는 만성적 질환이다.
- 1980년대 기분저하증이라는 말이 소개되기 이전에 이 질환은 우울신경증(depressive neurosis) 또는 신경증적 우울증(neurotic depression)으로 분류되었으며, 이 진단은 1970년대에 가장 흔한 정신과적 진단이었다. 기분저하증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보다 더 흔하며, 젊고 미혼인 경우와 경제적 수입이 낮은 경우에 더 흔하다.
- 또한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약물남용 등의 정신과적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2. 정신분열증(schizophrenia)
1) 원인

◆ 정신분열증 원인의 규명 가설

- 정신분열증의 원인의 규명에서 중요한 문제로, 이 장애가 단일한 원인에 의한 "단일질환(single disease entity)" 가설
-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지만 이들 원인의 최종공통결근(final common pathway)이 정신분열병이라고 지칭되는 특정한 증후군으로 표현된다는 "복합질환(multiple disease entities)" 가설
- 정신분열병의 다양한 증상은 서로 다른 병태생리학적 과정에 의하여 나타나며 한 환자가 하나 이상의 질병 과정을 가질 수 있고 각각의 질병과정은 정신분열병에서 관찰되는 임상적 이질성을 구성한다는 "다영역 정신병리학(multiple dimensions of psychopathology)" 가설 등에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는 현재로서 알 수가 없다.

2) 진단지침

-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단 기준은 ICD - 10과 DSM - IV이다.

◆ 정신분열병의 ICD - 10 진단지침은 다음과 같다.

- 진단기준 : 아래에 언급하는 ①~④의 증상군 중 어느 한 군에 속하는 최소한 한 개의 명확한 증상을 보여야 한다.

- 또는 덜 명확한 경우, ⑤~⑨의 증상군 중 최소한 두 군에 속하는 증상들이 한 달 또는 그 이상에 걸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뚜렷하게 존재해야 한다.

3) 진단지침 증상군

① 사고의 방향, 주입 또는 탈취 또는 전파

② 신체 또는 사지의 움직임, 또는 특정한 사고, 행위 혹은 감각 등에 분명히 관계되는 조종망상, 영향망상, 피동망상, 망상지각

③ 환자의 행동에 대하여 일일이 평가하거나 자기들끼리 환자에 대해 토론하는 환각 음성 또는 신체의 어떤 부위로부터 오는 다른 유형의 환각 음성

④ 문화적으로 부적절하고 전혀 있을 법 하지 않을 지속적인 망상, 즉 종교적, 정치적 주제 또는 초인적인 힘과 능력(예: 날씨를 조절할 수 있다거나 외계인과 교신을 하고 있다는 등)

⑤ 모든 형태의 지속적인 환각이 명확한 정감내용 없이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또는 반쯤 형성된 망상을 동반할 때, 지속적인 과대평가된 관념을 동반할 때, 혹은 그런 환각이 수주 또는 수개월 동안 매일 일어나며 계속된 경우

⑥ 사고 흐름의 단절, 또는 중간 삽입으로 인한 연상의 지리멸렬, 부적절한 말, 혹은 조어 등을 초래하는 경우

⑦ 긴장성 행태 즉 흥분, 자세유지 또는 납굴증, 거부증, 혼미 등

⑧ 음성증상, 즉 뚜렷한 무감동, 언어의 결핍, 감정반응의 둔마 또는 부조화(대개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수행 능력이 초래하는 것). 이들은 우울증이나 항정신병 약물투여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⑨ 관심의 상실, 목표상실, 게으름,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태도, 사회적 위축 등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측면의 개인적인 형태와 질의 지속적이고도 의미 있는 변화

4) 유형
(1) 망상형(paranoid type)

-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과 같은 망상이나 환청을 주된 특징으로 하며, 혼란된 말이나 행동, 둔마된 정동 등은 두드러지지 않다.
- 이들은 상대방에게 긴장되어 있고 의심이 많고 숨기는 것이 많다는 인상을 주고 때로는 상대방에게 적대적이고 공격적일 수도 있다.
- 지능은 정신병으로 장애를 받지 않으며 때로는 그런대로 사회생활을 적절히 영위하기도 한다.
- 즉, 20대 혹은 30대 후반까지 사회생활이 나쁘지 않아서 많은 환자들이 결혼을 하였고, 직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다른 유형보다 퇴행이 덜 일어난다.

(2) 파괴형(hebephrenic type)

- 파괴형에서의 망상과 환청은 지리멸렬하다.
- 이 유형은 발병 연령이 빠르고, 서서히 시작한다.
- 원시적이고 조직화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특징으로 하며, 부적절한 감정반응이 두드러지며, 현실과 접촉이 극도로 나쁘다.
- 예를 들면 물골이 지지분하고 주책 없고 어린애 같으며, 길길거리고 거울을 쳐다보고 웃는 등 부적절한 감정반응과 괴상한 짓을 한다.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항상 망상형에 비하여 정신병리의 가족력이 높고, 병전적응이 나쁘고, 예후도 나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긴장형(catatonia type)

- 정신운동성 장애가 특징적이며, 극단적인 운동과다와 혼미 또는 자동적 복종과 거부증 등의 양극단이 교대로 나타날 수 있다.
- 혼미형 긴장형(stuporous catatonia)은 겉으로 보서는 혼미상태에 있으며, 자발적인 운동이 극도로 감소되어 있다.
- 이들은 침묵상태를 유지하며, 거부증, 상동증, 매너리즘, 반항어, 반항행동 등을 특징적으로 보인다.
- 이들은 극도의 운동저하 상태에 한 참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극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다.
- 흥분형의 긴장증(excited catatonia)에서는 극도로 흥분되어 있으며,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고 뭔가 행동을 하고 있다.
- 이들의 언어는 지리멸렬하며, 행동은 외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기보다는 내적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들은 대체로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그냥 놔두면 자해 또는 타해를 가하거나 탈진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신체적 구속(physical restraint)이 필요하다.

(5) 치료

- ① 어떤 원인에서 정신분열증에 걸렸던 간에 환자는 각각 특이한 개인적.가족적.사회적 환경에 처한 인간이므로 모든 치료는 환자를 중심으로 개별화되어야 한다.
 - ② 비록 약물치료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왔다 하더라도 환자의 발병에 심리사회적인 원인이 크게 자리잡고 있으므로 심리사회적인 치료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 ③ 정신분열병은 인간존재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의 장애인만큼 어느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 비록 약물치료가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지만 심리사회적인 치료가 회복을 앞당기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 입증되었다. 따라서 정신분열병의 치료는 심리사회적 치료를 겸비한 약물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1. 인격, 신체형, 섭식장애

1)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 인격장애

- 인격장애(personality disorders)는 성격장애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으로 개인 인격상의 특징들이 보통 사람들에게 관찰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매우 경직되고 비적응적이어서 사회적응상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인의 주관적인 고통을 거의 수반하지 않는다.

- 인격장애는 한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권에서 보통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각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 특히 타인과의 인간관계 형성방식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동양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드물게는 주관적 고통을 수반할 수도 있다.

◆ A 집단 cluster

(1) 편집성 인격장애(Paranoid Personality Disorder)

- 편집성 인격장애 환자의 기본적 양상은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과 의심이다.
- 이런 인격양상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서 출현한다.
- 이들은 남이 자신을 속이고 해치려 하고 곧잘 음해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 매우 사무적이며 능률적으로 보이기도 하나, 대인관계에서 내심으로는 불안과 갈등이 많다.
- 만성 정신분열병 환자나 망상장애 환자의 가족 가운데 발병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자보다 남자에게 흔히 발병한다.

(2) 분열성 인격장애(Schizoid Personality Disorder)

- 이 인격장애의 기본적인 양상은 대인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적대감이나 공격성 같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감정표현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 매우 내성적이며 지나치게 백일몽에 몰두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는 욕구가 없고 이성교제도 드물며,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 남이 볼 때 좀 괴상하고 고립되어 있으며 외로운 사람처럼 보인다.

(3) 분열형 인격장애(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

- 분열형 인격장애의 기본적인 임상특징들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관계와 대인관계 장애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왜곡과 지각적 왜곡을 흔히 보이고 있으며, 행동상 괴짜 같은 면을 보인다.
- 이들은 타인과 가까운 대인관계를 맺지 못하며 위축된 면을 보인다. 관계관념을 보이기도 하고 심령술이나 독심술과 같은 초능력의 소유자라는 마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괴상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때로는 일시적으로 환시나 환청 등이 가볍게 나타나기도 한다.
- 불안, 우울, 기타 다른 언짢은 기분(dysphoric mood) 때문에 불편을 느껴 치료를 원하는 일이 있으나, 인격장애 자체 때문에 치료를 원하는 일은 거의 없다. 상당수가 우울증 삽화를 보인다.

◆ B 집단 cluster
(1) 반사회적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상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사회적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점이 비사회성 인격장애인의 기본적 양상이다.
- 많은 경우 이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남의 감정이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으며, 남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는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다.
- 이들이 후회하는 경우란 자신의 비사회적 혹은 반사회적 행위의 결과로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양심의 가책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 가족의 부양이나 안녕에 대한 책임감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은 정서적 불안정성이며, 그 밖에 자신의 자아상, 목표, 내적 신호(성적인 것을 포함) 등이 불분명하거나 혼란스럽고, 보통 만성적인 공허감이 있다.
- 상대방을 지나치게 이상화(idealization)시키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평가절하(devaluation)하는 등 격렬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때문에 정서적 위기를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 버림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 노력 그리고 일련의 자살위협이나 자해행동을 통하여 자신과 가까운 주변사람들을 조종하려는 경향이 중요한 임상 특징이다.

(3) 히스테리성 인격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

- 히스테리성 인격장애의 핵심적인 증상은 광범위하고 지나친 정동성과 타인의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다.
- 이런 행동 양상은 초기 성인기에 나타나며 주로 여성에게서 발생한다.
-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자신이 남의 관심의 초점이 되기 위해 마치 연기하듯이 행동이나 감정의 표현 등에서 극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한다.
-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상황에서는 불편하고 자신이 초라하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 이들은 성적으로 도발적이고 유혹적인 경향이 있으나 실제 성생활에서는 불감증이 많다.

(4)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의 기본적인 임상특징은 전반적인 과대성, 타인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emathy)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 이들은 자기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과대감(grandiose sense)에 젖어 있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남의 업적이나 능력을 과소평가한다.
- 이들은 거만하고 잘난 체 하며, 자신은 우수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어서 남들도 그렇게 알아주기를 기대한다.

◆ C 집단 cluster
(1) 회피성 인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

- 회피성 인격장애의 필수 증상은 사회적 위축, 부적절함,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과민성으로, 성인기 초기에 출현하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 이 환자들을 비난, 꾸중 또는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대인관계를 회피한다.
-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싶어하고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를 비웃고 받아주지 않으며 따돌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는 한 대인관계를 회피한다.
- 이들은 자존심이 매우 낮으며,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생활은 매우 제한되고 위축되게 된다.

(2) 의존성 인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

- 이 환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모든 면에서 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며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은 남에게 맡겨버리고 남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역할에 만족한다.
- 이런 의존적이고 굴종적인 태도는 남의 보살핌을 받으려는 욕구와 남의 도움 없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 이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으며 의존할 상대가 없이 혼자 있을 때 가장 불안해한다. 이들은 어떤 일의 책임자가 되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기어이 피한다.

(3) 강박성 인격장애(Obsessive Compulsive Personality Disorder)

- 강박성 인격장애 환자의 증상으로는 질서정돈주의, 완벽주의, 마음의 통제, 대인관계통제 등인데 이런 인격적 특성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개방성 및 효율성이 상실되어 있다.
- 이런 양상은 대개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며, 여러 상황에 출현한다.
- 이들은 너무 정확한 것을 추구하는 까닭에 사태의 전반적인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
- 이들의 대인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로 유지되고 있어서 자기가 윗사람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듯이 아랫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한다.

2) 신체형 장애(Somatoform Disorder)

- 신체형 장애란 명백한 병리적 소견이 없고 병태 생리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신체적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다.
- 신체형 장애의 환자들은 심한 신체적 증상들 때문에 사회 및 직업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고 감정적 고통이 수반된다.
- 이와 같은 신체적 증상의 시작, 강도(severity) 및 지속기간 등에 심리적 요인 또는 갈등이 크게 관여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신체형 장애는 DSM - IV에서 임상적 효용에 따라 신체화 장애, 미분화 신체화 장애, 전환장애, 동통장애, 건강염려증성 장애, 신체추형 장애 및 불특정신체형장애 등으로 분류된다.

3) 섭식장애(Eating Disorders)

(1)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

- 체중과 음식에 몰두해서 체중감소를 위한 행동과 독특한 음식 다루기, 체중증가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무월경, 환자 스스로 유발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속시키는 체중감소, 심각한 신체상(body image)의 장애, 잔인한 정도로 날씬해지려는 추구 등을 특징으로 하며, 종종 기아 상태에까지 이르는 병이다.
- 식욕상실은 다소 드물고 대개 병의 경과 중반까지는 생기지 않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며 대개 청소년기에 시작한다.

(2) 신경성 대식증(Bulimia Nervosa)

- 다량의 음식을 단시간 내에 재빨리 참을 수 없는 듯이 먹어 치우는 폭식(binge eating)과 체중조절에 지나치게 골몰하는 것이 특징이며, 복통과 구역질이 날 때까지 먹고 나서는 체중증가를 막으려고 토하고 이어서 죄책감, 우울, 자기 혐오감으로 괴로워한다.
- 또한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며, 먹기 쉬운 고칼로리 음식을 먹으며, 정상체중을 유지하기도 한다.
- 신경성 식욕부진증보다 흔하고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며 12~35세 사이에 생기나 대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발병하며 (평균나이 18세) 식욕부진증에 비해 상류층에 많다.

2. 성 도착증(Paraphilias)

1) 성 도착증

◆ 성도착증

- 성 도착증은 강력한 성적 충동과 함께 성적 흥분을 위하여 행위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상상, 대상, 행동 또는 방법을 사용하는 성적 장애이다.

◆ 특징

-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최소 6개월 이상), 소수의 인구에게서만 나타난다.
- 성도착증의 50% 이상은 18세 이전에 발병하고 남자에게서 많다.
- 도착행위는 15세~25세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이후에 감소한다.
- 50세 이후에는 고립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도착행위가 드물다.

2) 여성물건애(Fetishism)

- 성적 흥분과 만족을 위하여 여성의 브래지어, 내의, 슬립, 팬티, 스타킹, 헤어핀, 밴드, 손수건 등과 같은 이성의 몸과 친밀히 연관될 수 있는 여성의 옷가지 등을 주대상으로 의존하는 경우이다.
- 드물게는 신체의 일부분인 머리카락, 눈썹, 손톱, 음모 등을 수집하고 이를 성적 공상이나 혼자서의 성행위에 사용한다.
- 극치감은 자위로써 얻으며 대개 사춘기 시절에 시작되며 만성화 경향이 있다.

3) 의상 도착증(Fetishistic Transvestism)

-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이성의 속옷을 수집 보관하고 입는 경우이다.
- 이성의 복장을 입고 있을 때 자위행위로서 극치감을 얻는다. 만약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면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 의류에 속하는 성애성 물건을 단순히 입는데 그치지 않고, 반대의 성으로 보이기 위해 입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성물건애와 구별된다.
- 시간이 지나면 일부 사람들은 영원히 여자로서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한다.

4) 노출증(Exhibitionism)

- 예기하거나 경계하지 않고 있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픈 강한 충동을 갖거나 실제로 노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적 흥분은 노출의 기대에서 일어나며 극치감은 그러한 일이 있는 동안이나 그 후의 자위행위로서 경험한다.
- 주로 정서적 스트레스나 위기를 겪을 때만 나타나며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이상의 성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 발병은 사춘기 이전에서 중년 사이에 일어난다.

5) 관음(Voyeurism)

- 노출증과는 반대로 타인의 성행위나 성기를 반복적으로 훑쳐봄으로써 성적 만족을 갖는 경우이다.
- 그러나 보는 사람은 그 대상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고 극치감은 보통 자위행위로서 경험한다.
- 이것은 암소공포증(Scoptophilia)으로도 알려져 있기도 하다.
- 첫 번째 관음 행동은 대개 어린 시절 동안 일어나며, 남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6) 소아성애증(Pedophilia)

- 사춘기 전의 소아(대개 13세 이하)와 성행위 또는 그 공상이 성적 흥분에 되풀이 애용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 환자가 16세 이상일 때이거나 상대방보다 최소 5세 이상일 때 진단된다.
-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도착증 중 가장 흔한 유형이다.
- 소아성애증은 여성들에게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며 95%는 이성애적(heterosex)이며, 중년 이후에 잘 일어난다.

7) 성적가학증(Sexual Sadism)

- 성적 흥분을 위하여 타인에게 심신의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다음 3가지 특징이 있다.
 - ① 동의하지 않는 상대자에게 심신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줌으로써 성적 흥분을 얻는다.
 - ② 합의된 상대자와는 독특한 모욕과 거짓 혹은 신체상의 가벼운 상처를 반복해서 일으킨다.
 - ③ 합의된 상대자의 신체 상처는 심하고 영구적이며 혹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일 수도 있다. 강간, 난폭한 성행동, 성적 살인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

8) 성적피학증(Sexual Masochism)

- 성적파트너로부터 괴로움을 당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찾는 도착증이다.
- ① 모욕, 구타, 채찍질, 묶음, 기타 고통을 당하는 방법이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 애용되거나, 또는 유일한 방법이 될 때
- ② 성적 흥분을 얻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행동에 의도적으로 몸을 내맡기는 경향이 있을 때
- 성적 피학증을 가진 사람들의 약 30% 정도는 가학적 환상도 함께 가지고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많고 성인 초기에 주로 시작된다.
- 경과는 만성적이다.



1. 체계의 개념과 기능

1) 체계의 개념

- 사회체계 이론의 기본적 관점은 '체계(system)'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대상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 Anderson과 Carter는 체계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되는 요소들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전체를 일컫는다고 하였다.
- Buckley는 체계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인과적인 관계 속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성요소들의 복합체계라고 하였다.
- 체계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구성요소나 변수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상호 의존하고 작용하면서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Martin과 O'connor는 체계 5가지 속성

- ① 조직화(organization),
- ② 상호인과성(Mutal causality),
- ③ 항구성(constancy),
- ④ 공간성(spatiality),
- ⑤ 경계선(boundary)

2) 체계의 기능

- Parsons는 체계는 사회체계이든 그 아래의 하위체계이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1) 적응기능

적응(adaptation)기능은 체계가 존속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의 변동에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2) 목표달성기능

목표달성(goal attainment)기능은 체계가 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경주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합기능

통합(integration)기능은 체계가 구성요소의 활동을 조정 및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상유지기능

현상유지(pattern maintenance)기능은 체계가 자신의 기본적인 유형을 유지하고 세대를 계승하면서 재생산해 가는 것을 말한다.

2. 주요개념

1) 경계

- 사회체계의 경계(boundary)란 체계를 외부환경으로부터 구분하는 일종의 테두리를 말한다.
- 사회체계의 경계는 사회적인 구조이므로 경계를 유지하는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 Kuhn과 Bean은 경계는 행정지역, 정치적 성향, 법적 정의, 인종처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할 수도 있으나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열등하다고 낙인찍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정해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 Chess와 Norlin은 사회체계에서 경계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을 한다고 한다.

- ① 체계의 정체성을 규정
- ② 주위환경과의 내적, 외적 교환을 통제한다.

2)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1) 개방체계(ope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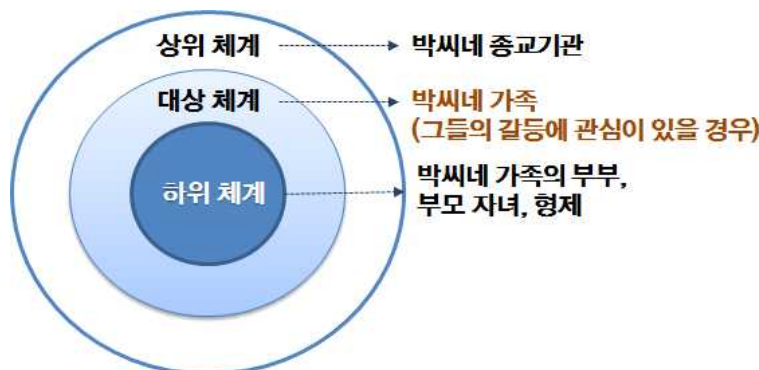
- 체계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
- 체계 내에서 정보와 자원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체계 안과 밖으로 자유롭게 에너지를 통과

(2) 폐쇄체계(closed system)

- 하나의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련성이 없는 자급자족적인 실체로 인식하는 것
- 체계의 내적 구조와 기능에만 관심
-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고려하지 않음

3) 대상체계, 상위체계, 하위체계

- 사회 체계는 부분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 대상체계(subject system) : 분석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사회체계
예) 박씨네 가족의 갈등에 관심이 있을 경우 박씨 가족이 대상체계가 되는 것
- 상위체계(supra-system) : 대상체계의 외부에 있으면서 그 체계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위
예) 박씨네 가족의 하위체계로 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체계 등을 들 수 있다



4) 의사소통과 피드백

◆ 의사소통 :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이며, 개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는 축적적인 상호교환이다.

◆ 상호작용 :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연속적이고 상호적인 일련의 접촉이다.

- 의사소통은 공유(sharing)의 과정이며, 상호보완적 과정이다. 체계는 환경과 상호작용할 때 정보를 주고받는데 이때 상호작용은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작용과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

◆ 피드백(feed back) : 정보의 투입에 대한 반응으로 작용하며, 연속적인 행동을 수정하도록 그 행동의 결과를 새로운 정보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 Buckley는 사회체계는 목표와 관련된 피드백을 외부환경으로부터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적지향적이라고 한다.

◆ 피드백의 종류

- 부정적인 피드백 : 부정적인 피드백은 체계가 목표를 성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주어서 목표와 조화를 이루도록 수정하게 함.

- 긍정적인 피드백 : 긍정적인 피드백은 체계와 목표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그와 같은 행동이 요청된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5) 투입, 전환, 산출

◆ 상승작용

- 체계 내부나 체계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함으로써 체계 내의 에너지양이 증가하는 현상.
 - 이는 체계가 힘들을 연합할 때 발생.

◆ 엔트로피(entrophy)

- 반대로 체계가 소멸해 가거나, 무질서해지고 비조직화되는 과정.

- 체계가 외부로부터 정보와 에너지를 받아들여 필요로 하는 자원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투입 - 전환 - 산출이라고 함.

◆ 투입(input)

- 체계가 환경으로부터 에너지, 사물, 정보 등을 받아들이는 과정.

◆ 전환(through-put)

- 체계가 자신에게 적절하게 투입된 에너지를 변형시키고 재조직화하는 과정.

◆ 산출(output)

- 체계 내에서 변형된 에너지를 환경으로 방출하는 것.

◆ 과업관련 투입

- 그 사회체계가 관심을 갖는 지각된 욕구, 문제 혹은 기회로 인해 발생하는 것.
- 사회복지기관의 예)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과업관련 투입.

◆ 유지관련 투입

- 사회복지기관의 예) 사회복지사 또는 돕는 데 필요한 기타 자원.

◆ 구조

- 체계의 투입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순서.
- 예) 역할, 공식적인 행정적 준비, 가치, 시간, 예산, 계획안, 공간, 다른 체계들과의 유대 등.

◆ 상호작용(interaction)

- 실제 행동 그 자체
- 수평적 상호작용 :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예 : 가족 내의 부모자녀, 형제관계)
- 수직적 상호작용 : 경계를 넘어 두 체계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예 : 자녀와 학교교사, 부모와 직장상사나 조직의 상사의 관계)

◆ 산출(output)

- ▶ 과업산출
 - 과업관련 투입이 처리된 결과.
 - 예) 사회복지 기관인 경우 원조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종결된 결과.
- ▶ 유지산출
 - 예)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기관과 접촉함으로써 습득한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
- ▶ 소모
 - 사회복지기관과 접촉함으로써 습득한 대인관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예로 들수 있다. 소모는 과업산출과 유지산출을 낳는 데서 자원의 비효과적, 비효율적 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
 - 예) 사회복지사의 탈진(burnout)
 - ▶ 산출은 다시 다른 체계의 투입을 통해 환경으로 내보내진다.

6) 균형, 항상성, 안정상태

◆ 균형(equilibrium)

- 외부환경으로부터 새로운 에너지의 투입 없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체계의 속성.

◆ 항상성(homeostasis)

- 환경과 지속적인 상호교환을 하는 체계.
- 안정적이지만 역동적인 균형을 이룸.
- 예) 우리 몸은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체내의 자동조절 장치가 작동하므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된다.

◆ 안정상태(steady state)

- 부분들 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고, 쇠퇴해서 붕괴되지 않도록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
- 안정상태는 환경과의 교환, 적응을 위해 구조를 변경시킬 수 있는 개방체계에 속한다.

3. 사회체계의 역동성
1) Parsons의 사회체계

- Parsons는 모든 사회체계가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여 구조적으로 분화된다고 보았다.
- 수직축은 도구 - 완성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단 - 목적 차원을 의미한다.
- 이 두 축으로 사회체계가 안정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될 네 가지 기능상 문제를 규정하는 모형을 만들었는데 목적달성, 통합, 적응, 형태유지라는 네 가지 기능상의 문제를 나타낸 모형이다.

2) 사회체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방안
(1) 목적달성의 문제

- 사회체계는 상위체계의 기대를 충족시키도록 과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만족스러운 진전을 해야 한다.
- 완성적 차원 : 목적달성 문제는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회를 모색.
- 외적 차원 : 체계의 목적을 파생시킨 기회나 욕구가 상위체계에 있음.

(2) 통합의 문제

- 사회체계는 구성원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 체계의 유지라는 목적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진전을 해야 한다.
- 완성적 차원 : 체계 자체의 욕구 충족이라는 목적에 관련.
- 외적 차원 : 체계 자체의 욕구.

(3) 적응의 문제

- 사회체계는 과업산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위체계를 목적달성에 용이하게 변화시켜야 한다.
- 도구적 차원 : 상위체계 조정
- 외적 차원 : 상위체계의 변화 시도

(4) 형태유지의 문제

- 사회체계 자체에서 발생하는 변화 뿐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상위체계 하에서 체계 자체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해야 한다.
- 도구적 차원 : 체계가 완성적 차원인 목적달성과 통합을 성취하도록 핵심적인 기조를 유지.
- 내적 차원 : 체계 내 구성원 간의 핵심인 구조적 특성의 유지.
- 체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이동의 과정이 있으면서 동시에 역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을 유지해야 한다.

1. 생태학적 체계의 개념

1)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이론

◆ 생태학적 이론

-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인간과 환경 간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진 진보적이고 상호적인 적응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 즉, 생태학적 이론에서는 유기체를 환경과 분리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을 이분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양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둘 수 있게 해준다.
- 생태학적 이론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보완성을 설명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환경과 인간을 하나의 총체로 간주하고 있다.

◆ 인간발달

-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인간발달은 '인간이 자신의 환경을 지각하고 다루는 방식에서 지속적인 변화'라고 정의하면서 세 가지 기본전제를 제시.
 - ① 발달하는 개인을 단순히 환경의 영향을 받는 백지상태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재구성하는 존재인 성장하는 역동적 실제로 간주.
 - ② 환경도 상호조절 과정을 요구하면서 발휘하기 때문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상호호혜성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 간주.
 - ③ 생태학적 환경의 개념은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장면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닌 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장면들의 상호연결과 개인이 속해 있지 않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영향까지 포함.

2. 생태학적 기본가정

1) 개요

- 생태학적 이론은 생태학, 동물행동학, 자아심리학, 스트레스이론, 형태심리학, 역할이론, 문화인류학, 인본주의 심리학,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일반체계이론, 권력관계의 역동이론과 같은 다양한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
- 생태학적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과 환경은 분리될 수 없으며, 동시에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 생태학적 이론의 핵심적 가정은 개인과 환경이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상호교류(transaction) 즉,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 교환은 개인 - 환경 단위 내에서 변화를 시킨다.

2) 생태학적 관점의 기본가정(Greene)

- (1)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능력은 타고난 것이다.
- (2) 유전적 및 다른 생물학적 요인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 (3) 개인 환경은 인간과 환경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단일체계 즉, 호혜적 관계를 형성한다.
- (4) 적합성이란 적응적 개인과 양육적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상호적 인간 - 환경과정이다.
- (5) 사람은 목적지향적이다. 인간은 유능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개인이 환경에 대해 갖는 주관적 의미가 발달의 열쇠이다.
- (6) 사람은 자연스러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7) 성격은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 (8) 긍정적인 변화는 생활경험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
- (9) 생활상의 문제는 전체적인 생활공간 내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 (10) 내담자를 원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생활공간에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생태학적 환경

1) 인간발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 브론펜브레너는 개인의 생태학적 환경을 소속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거대체계로 구성하였다.
- 이 네 개의 체계들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 그는 생태학적 환경을 한 구조가 그 다음 구조 속에 끼워지게 되어 있는 일련의 겹구조로 보고 각 구조와 구조 간의 상호교류를 설명하였다.

◆ 소속체계(미시체계(microsystem))

- 가족이나 학급, 친구들과 같이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 즉, 활동, 역할, 대인관계 등의 유형을 말한다.

◆ 중간체계(mesosystem)

- 소속체계 간의 연결망에 해당된다. 따라서 중간체계들로 구성된 체계이다.

◆ 외부체계(exosystem)

- 두 가지 이상의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연결성과 과정으로서, 이 중의 최소한 한 가지 체계는 부모의 직장과 같이 개인을 둘러싸고 있지 않은 체계이다.
- 즉,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를 말한다.
- 아동의 경우 부모의 직장, 형제가 속한 학급, 부모의 친구들, 교육청 등이 외부체계가 된다.

◆ 거시체계(macrosystem)

- 민족 집단체계와 같이 특정 문화의 유형이나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 즉, 개인이 소속한 문화나 하위문화로 개인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사회적, 경제적, 법적, 종교적 체계이다.
- 거시체계는 소속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라는 환경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어린 시절에는 소속체계만이 중요한 사회환경이나 성장하면서 외부체계와 거시체계들이 점점 더 인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4. 가족

1) 사회환경으로서 가족체계

- 가족은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가장 친밀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환경이다.

◆ 로즈의 체계로서의 가족의 특성

- ① 가족구성원은 가족 내에서 상호의존 상태에 있는 다양한 위치를 가진다.
- ② 가족과 가족 외부체계를 구분하는 경계의 두께는 그 엄격함과 침투성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 ③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상호작용 패턴을 나타내는 적응과 균형을 추구하는 단위이다.
- ④ 가족은 더 큰 사회체계를 대표하는 외부체계의 요구 그리고 가족성원들의 내적 욕구와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과업수행 단위이다.

2) 가족의 형태

(1) 핵가족

- 핵가족은 가장 보편적인 가족형태로서 부부와 미혼인 직계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가족 구성이 부모와 자녀의 2세대로 한정된다.

▶ 가정 내적 문제점

- 가정내적 문제점으로는 가족기능의 축소, 가족결합의 약화, 가족구성원 생활태도의 개성화, 가족구성원 상호 간 사회적 관심과 생활태도에서의 차이로 인한 갈등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

▶ 가정 외적 문제점

-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배우자 선택으로 인하여 가족성립조건이 불안정하고 주위 친족 및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이 없으므로 위기 시 가족이 쉽게 해체되어 버리는 점.

(2) 확대가족

- 확대가족이란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가족을 말한다.

- 확대가족은 종적, 횡적으로 연결되어 형성되며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는 가족형태이다.

▶ 종적으로 확대된 직계가족(stem family)

- 장남이 본가에 남아서 부모를 모시면서 가계를 계승하고 차남부터 분가하는 가족형태이다.

▶ 횡적으로 확대된 방계가족

- 같은 세대의 형제들이 결혼한 후에 부모와 다시 동거하는 가족형태이다.

▶ 수정확대가족이란 비록 지리적으로 떨어져 살고 있으며 자율적이지만 핵가족 외의 친족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유지하고자 하는 가족을 말한다.

(3) 노인가족

- 노인인구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2000년에는 전체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0%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였다.
- 노인 인구부양비율이 1980년의 6.5%에서 2000년에는 9.4%, 2021년에는 18.4%로 증가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가족은 1994년 현재 재가노인 중에서 61.5%가 가족이나 친척들과 동거하고 있으며 38.5%는 부부 또는 독신 노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 또한 이들 노인가구의 지역 분포를 보면 도시지역(28.7%)보다 농촌지역(52.2%)에서 노인 단독 가구의 비율이 높다.

(4) 한 부모 가족

- 한 부모 가족은 별거, 사별, 미혼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한쪽만 있거나, 법적 또는 현실적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가족이다.
- 한 부모 가족은 1971년에 4.2%에서 1987년 7.9%, 1989년에는 10.8%로 증가추세에 있다.
- 한국 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편부모 가족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71.1%, 가사일 11.6%, 정서적 문제 10.4%, 자녀양육의 문제 4.9%, 대인관계의 문제는 0.5%인 것으로 나타났다.
- 편모가족이 편부가족보다 더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한 부모는 더 우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곤란이 심화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재혼가족

- 재혼가족은 가장 복잡한 가족 형태를 이룬다.
- 재혼가족은 적어도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한 명 이상의 배우자와 한 명 이상의 자녀들로 구성된 가족이다.
- 재혼가족의 부부는 계부모로서의 기능, 자녀양육관, 금전관리에 대해 미리 고려해야 한다.
- 이러한 영역들에서 재혼한 부부와 그 자녀들이 가치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
-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급증한 관계로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 남녀를 불문하고 이혼자의 90% 이상이 재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한 부모 가족이 언젠가는 재혼가족이 된다.

3) 가족체계의 역동성
◆ 가족체계가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리스)

- 가족이 성격 형성의 생물학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연결하는 사회제도이며, 동시에 아동이 적응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단, 제도, 역할 등을 배우게 되는 사회체계라고 설명하였다.
- 사회체계론적 관점에 의하면 가족 내의 구조가 변하면 가족구성원들의 위치, 역할, 기능이 변하게 되므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행동도 변한다.

- 미누친(minuchin)은 개인의 문제는 그 가족체계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가족 내 하위체계 간 경계선의 기능으로 가족원의 문제를 진단하였다.

◆ 가족구성의 속성

① 속박된 경계선(enmeshed boundary)

- ▶ 속박된 경계선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 관계가 지나치게 밀접하고 강력해서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고 과잉 염려를 하는 것을 말한다.
- ▶ 이런 가족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경계선이 매우 개방적이고, 거리감이 없으며, 결속력이 강하다. 따라서 한 가족구성원의 행동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절대적이어서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자아의식은 발달하기 어렵다.

② 유리된 경계선(disengaged boundary)

- ▶ 유리된 경계선을 가진 가족은 경계선이 폐쇄적이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없다.
- ▶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은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거의 없고 가족구성원 간에 서로 독립되고 분리된 감정을 갖고 있다.
- ▶ 이런 사람들은 가족 내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 밖에서도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 대부분의 가족체계가 갖는 경계선의 기능은 이 양극을 잇는 연속상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설명.
- 미누친과 그의 동료들은 비행아동의 가족을 조사한 결과 그 특징이 지나치게 속박된 가족이거나 유리된 가족 또는 속박과 유리가 번갈아 일어나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 사회환경으로서의 집단체계

1) 집단의 개념

◆ 집단

- 일반적으로 집단은 한 개인으로서 서로 인식하고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실체로서 집단에 대한 의식을 갖고, 구성원의 집단과 관련된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표현적인 행동이 지배적인 두 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 조직형태로 정의된다.
- 하트포드(Hartford)는 집단이란 두 사람 이상이 공동목적이나 관심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인지하고, 감정을 공유하며, 집단기능을 위해 규범을 만들고, 행동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며, 응집력을 발전시키므로 타 집단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2) 사회체계 관점에서 집단의 특성

- 사회체계 관점에서 집단의 특성을 Chess와 Norlin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집단의 크기는 작다. 최소한의 크기는 두 명이며 최대의 크기는 명시될 수 없으나 집단구성원끼리 서로 대면적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점에서 최대크기는 제한된다.
- ② 집단의 최소한의 역할분화 수준이 특징이다.
- ③ 모든 집단 구성원은 공통된 집단 정체성을 가지며 집단을 하나의 실체로 지각한다. 집단은 집단구성원의 개성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사회화 및 사회통제 기능을 수행한다. 집단은 구성원들의 집단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체계를 포함한 하위문화를 가진다.
- ⑤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은 구성원의 내적 혹은 자연적 상태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3) 집단 발전과정의 특성

- 와이즈만은 집단의 발전과정을 다섯 가지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 ① 집단은 환경에 적응한다. 적응 대상은 집단의 외적체계이다.
- ② 집단은 목표지향적 행동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적응적 행동을 능가하는 활동, 감정 및 상호작용을 발전시킨다. 이것이 내적체계가 된다.
- ③ 내적체계가 정교해지면서 유대, 응집력, 규범, 역할 및 지위 등이 발달한다.
- ④ 피드백으로 인해 집단의 적응은 환경과 더불어 발달하는 내적 체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⑤ 집단은 집단 구성원들의 기능을 수정한다.

2. 집단체계의 유형

1) 기본 개념

◆ 사회적 관계의 두 가지 기본적 유형을 대비시키기 위한 개념

- 퇴니스는 사회적 관계의 두 가지 기본적 유형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게마인 샤프트(Gemeinshaft)와 게살사프트(Gesellschaft)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 게마인 샤프트 관계는 절친한 친구의 관계와 같은 것이고, 게살사프트 관계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2) 쿨리의 사회적 관계 유형화

- 쿨리는 원초집단과 이차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형화하였다.
- 즉, 혈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원초집단(primary group)과 목적달성을 위한 인위적인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이차집단(secondary group)으로 분류하였다.

3) 구성동기에 기초한 집단 유형화

◆ 자연적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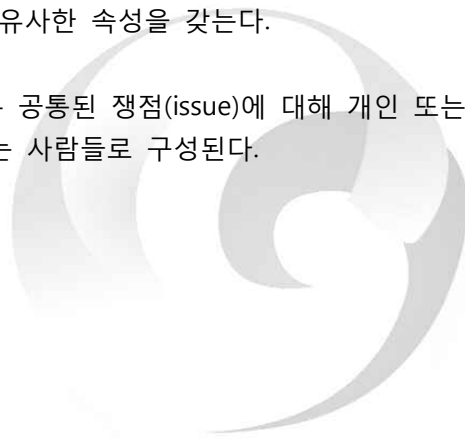
- 자연적집단(natural group)은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으로 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 또래 혹은 갱집단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자연적 집단은 보통 공식적 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 형성된 집단

- 형성된 집단(formed group)은 치료팀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다.
- 형성된 집단은 보통 공식적 규칙과 일련의 과업을 갖는다.
- 형성된 집단은 이차집단과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

◆ 자조집단

- 자조집단(self-help group)은 공통된 쟁점(issue)에 대해 개인 또는 환경에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3. 집단구성원의 행동역할

1) 과업역할

- (1) 주도자(initiator contributor) : 문제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접근방식,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가능한 해결책을 숙련해서 제안한다.
- (2) 정보수집가(information seeker) : 다른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사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 (3) 의견수립가(opinion seeker) : 태도, 가치, 감정과 같은 보다 질적인 형태의 정보를 요청한다.
- (4) 정보제공자(information giver) : 전문가로부터 나온 사실들을 포함해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 (5) 의견제공자(opinion giver) : 의견, 가치, 감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6) 상세한 설명자(elaborator) : 다른 사람들이 지적인 사항들에 관해 예를 들거나 다른 말로 설명해 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이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 (7) 조정자(coordinator) : 아이디어의 적절성 여부와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관련성을 지적하며 집단구성원이나 하위집단의 활동을 조정한다.
- (8) 방향제시자(orienter) : 진행사항들을 요약하고 집단의 목표를 고려해서 필요할 때 초점을 다시 잡아준다.
- (9) 평가자.비평가(evaluator-critic) : 집단과업과 관련된 집단기능의 기준에 비추어 집단의 성취를 평가한다. 집단의 노력을 논리성, 실현가능성, 방법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 (10) 활력원(energizer) : 집단이 활동이나 결정을 하도록 자극하고 질적, 양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하도록 자극하거나 환기시키는 행동을 한다.
- (11) 절차전문가(procedural technician) :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담당한다. 자료를 나눠주거나 자리를 정돈하고 기계를 조작하는 일이 이에 해당한다.
- (12) 기록원(recorder) : 안건과 집단의 의사결정 사항 그리고 토의의 결과를 기록하는 비서기능을 하는 행동을 한다.

2) 사회정서적 역할

- (1) 격려자(encourager) : 다른 집단구성원의 기여를 칭찬하고, 동의하며, 수용한다. 온화하고 의견일치를 주로 보인다.
- (2) 조화자(harmonizer) : 집단구성원들 간의 차이를 중재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화해시키며,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파란을 진정시켜 갈등상황에서 긴장을 해소시키는 행동을 말한다.
- (3) 타협자(compromizer) : 갈등에 관련되었을 때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거나 과오를 시인하며 집단의 조화를 위해 자신을 조정하거나 집단의 의사를 따르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하여 타협하는 행동을 한다.

- (4) 감독자와 촉진자(gatekeeper and expediter) : 절차를 수립하고 구성원들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려는 행동을 한다.
- (5) 기준설정자(standard setter) : 집단과정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토의를 요청한다.
- (6) 집단관찰자 및 논평가(group observer and commentator) : 집단의 역동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들을 지적하고 필요한 경우 변화를 요청한다.
- (7) 추종자(follower) : 다른 구성원들이 내놓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집단의 진행을 따라간다.

3) 개인적 역할

- (1) 공격자(aggessor) : 다른 구성원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다른 구성원의 행동이나 감정을 배척하며, 집단에 기여하는 사람을 질투한다.
- (2) 방해꾼(blocker) : 이유 없이 혹은 비합리적인 이유로 집단토의에서 반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규합하여 집단을 방해한다.
- (3)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recognition seeker) : 열등한 위치에 있는 구성원으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자신의 업적이나 행동을 과잉 선전해 관심을 집중시키려 한다.
- (4) 원조 추구자(help seeker) : 열등감, 부적응, 혼란 등으로 인해 불안해 하며 다른 구성원이나 전체 집단으로부터 동정을 구하는 행동을 한다. 의존적인 행동을 주로 한다.
- (5) 국외자(playboy) : 집단 밖의 여러 가지 사건을 끌어들인다. 집단과정에서 냉소, 무관심, 수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 (6) 독재자(dominator) : 집단과정에서 자기과시와 위압적 행동을 하며 권위나 우월감을 내세우는 행동을 한다.

4) 집단을 통한 사회화의 세 가지 종류

- 집단체계는 그 구성원 개인의 동기, 태도,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추종하는 유형은 무조건 따른다.
- ② 동일시하는 유형은 집단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들어 집단의 견해를 채택한다.
- ③ 내면화하는 유형은 집단이 그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집단의 견해를 채택한다.
- 사회체계로서 집단이 인간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의 역동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5) 노든(Northern)은 집단의 역동성

- (1) 역동적인 힘의 작용을 일컫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사람들 간의 접촉이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 사회적 상호작용의 핵심인 커뮤니케이션은 정보, 느낌, 태도 등이 전달, 수신, 해석, 반응되는 복잡한 사회적 과정이다.
 - 개방된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집단의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증가시킨다.

(2) 집단목적은 집단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욕구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3) 집단감정은 집단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견이나 사실 뿐 아니라 감정의 긍정적, 부정적 표현이 전달되는 것이다.

- 즉 긍정적 유대 - 사랑, 애정, 공감, 온정, 동일시를 나타내나 부정적 감정 - 증오, 적개심, 혐오, 공포, 편견, 무관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4) 집단구조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서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전달하면서 그 관계의 구조가 발달한다.

- 즉, 지위와 역할이 분화되며 하위집단이 형성된다. 하위집단의 형성은 '끼리끼리 모인다'와 '서로 다른 사람끼리 끌린다'는 상반되는 논리로 흔히 설명된다.

(5) 집단규범은 집단이 기대하는 행동의 기준인데 이 규범이 발달하는 과정은 집단이 무엇에 가치를 부여하고 수용하는가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동일시에서 시작된다.

(6) 긴장은 인간의 발달에 본질적이다. 갈등이 개인,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이 건설적이지 않고 파괴적일 수 있으나 대부분 갈등이 집단관계에서 건설적인 힘이 되고 상호작용에 대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7) 응집력은 구성원들 상호 간에 집단에 대해 끌리는 것을 말한다. 보통 집단의 매력은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집단의 응집력이 강할수록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1. 사회환경으로서 조직체계

1) 파슨즈(parsons)의 조직

- "조직(organization)이란 특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구축된 사회적 사회체계 또는 인간집단이다."라고 하였다.
- 회사, 군대, 학교, 병원, 조합, 교회, 교도소 등이 조직에 포함되며 부족, 계급, 인종집단, 친목집단, 가족은 조직에서 제외된다.
- 조직의 특징은
 - ① 분업, 권력, 의사소통의 책임
 - ② 조직의 협동노력을 통제해서 목표로 지향시키는 권력의 집중
 - ③ 구성원의 교체이다.

2) 굴드너(Gouldner)의 조직

- 조직체는 하나의 체계로서 유기적인 속성을 가진다.
- 구조적 변화는 합리적인 작용에 의해서라기보다 조직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위협에 대한 누적적, 비계획적, 적응적 반응의 결과이다.
- 조직체의 욕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의 달성이다.
- 또한 굴드너(Gouldner)는 폐쇄체계에 해당하는 합리적 모형과 개방체계에 해당하는 자연적 체계모형으로 조직을 구별하였다.

2. 조직의 유형과 인간행동

1) 조직의 유형

- 파슨즈(Parsons)는 개별조직과 사회전체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체계이론의 기본틀을 조직에 적용하여 각 조직이 사회의 유지 발전에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에 따라 생산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잠재적 형태의 조직으로 구분하였다.
 - ▶ 생산조직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적응의 기능을 하는 조직 (예 : 기업조직)
 - ▶ 정치조직에는 사회의 목적 달성 기능을 하는 조직 (예 : 정당이나 국회와 같은 조직)
 - ▶ 통합조직에는 사회의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조직 (예 : 군대와 같은 조직)
 - ▶ 잠재적 형태 유지조직에는 사회화를 담당하는 조직 (예 : 교회나 학교 같은 조직)
- 블라우와 스코트(Blau and Scott)는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누가 가장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였다.
 - ▶ 호혜조직은 노동조합과 같이 조직구성원 모두가 상호이익을 얻게 되는 조직(예 : 노동조합)
 - ▶ 기업조직은 조직의 소유자가 이익을 독점하는 것
 - ▶ 봉사조직은 조직의 이용자가 가장 이익을 얻게 되는 것(예 :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조직)
 - ▶ 공익조직은 일반대중이 조직 화동이 대상이 되는 것(예 : 군대나 경찰)

- 에치오니(Etzioni)는 조직을 강제적인 조직, 자발적인 조직, 공리적인 조직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 ▶ 강제적 조직이란 조직구성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물리적 힘을 사용하거나 음식을 주거나 박탈함으로써 강제적으로 조직에 참여하게 하고, 강제적으로 조직의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조직체이다. (예 : 감옥이나 군대)
 - ▶ 자발적 조직이란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는 조직 (예 : 종교나 정치, 자원봉사 또는 전문직 단체 등)
 - ▶ 공리적인 조직

2) 조직과 인간행동

- 프레스터스(Presthus)는 관료적 조직의 구성원인 개인이 조직에 적응하는 양상에 따라 상승형(upward mobile), 무관심형(indifferents), 모호형(ambivalents)이라는 세 가지 행동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 상승형
 - 조직에서 비교적 상위직에 많다.
 - 이들은 낙천적이며 조직 내의 생활에 만족한다.
 -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충성심이 높고, 조직이 하는 일에 전적으로 긍정적이며, 조직을 행동의 준거틀로 삼는다.
 - ▶ 무관심형
 - 조직 내의 하위직에 주로 많다.
 - 이들은 조직이 좌절감을 제공하는 체계라고 간주한다.
 - 조직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고 조직 밖의 일에 더 흥미를 갖는다.
 - 조직의 가치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직에 충성심도 없다.
 - ▶ 모호형
 - 수적으로는 가장 적은 유형으로 참모직에 주로 많다.
 - 조직에 의한 조정과 통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베닝거와 스프래들리의 탈진 5단계
 - 1 단계 : 초기의 일에 대한 만족 단계
 - 2 단계 : 에너지의 고갈 등이 나타나는 단계
 - 3 단계 : 증상이 만성적이 되며 직장가 가정에서 기능이 저하되는 단계
 - 4 단계 : 문제에 압도당하기 시작하여 탈진의 상태가 생활을 지배하는 단계
 - 5 단계 : 일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활이 심각한 방향으로 쇠퇴하는 단계

3. 사회환경으로서 지역사회와 기능

1) 사회환경으로서 지역사회

- ▶ 지역사회
 - 지역공동체(human community)
 - 생물학적 용어
 - 생물의 어떤 종이 지역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한데 모여 생활하는 모습

- ▶ 지역사회의 사용
 - 사회 생태학에서도 인간의 삶의 지역성.공간성을 띤 측면에서 다를 때, 이 지역사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 인간의 공동생활은 생물학적인 삶에 그치지 않고, 문화, 동일시,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생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 ▶ 커뮤니티
 - '커뮤니티(community)'를 '공동체'로 볼 때는 지리적인 공간 속의 주민 뿐 만 아니라 친목회나 기관들의 협의회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는 개인 혹은 기관들의 결합체도 포함.
 - '커뮤니티(community)'를 '지역사회'로 볼 때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인 생활권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통된 이해관계, 문화 등을 형성하여 공통의 경험과 공동생활을 향유하는 일정 지역의 범위"로 정의.

- ▶ 체계로서 지역사회의 특징
 - 워렌(Warren)은 체계로서 지역사회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① 물리적 또는 지리적 장소에 근거한 사회적 조직 형태이다.
 - ② 공통된 지역에 살거나 동일시된 사람들에 초점이 주어진다.
 - ③ 상호의존은 공통된 욕구, 공통된 문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 ④ 지역사회는 개인을 전체사회에, 전체사회를 개인에게 연결하는 중간체계이다. 개념상 지역사회는 전체사회의 하위체계이다.

2) 지역사회의 기능

- ▶ 하위체계들이 지역과 관련된 기능
 - ① 생산(production).분배(distribution).소비(consumption)의 기능.
 - ② 사회화(socialization)의 기능은 사회가 향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사회적 가치, 행동양태 등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전달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 ③ 사회통제(social control)는 공동체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범에 동조하도록 규제하는 과정이다.
 - ④ 상부상조(Mutual support)는 사회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능이다. 이는 가족, 친구, 이웃, 보건 및 복지조직에 의해 제공된다.

▶ 도시공동체의 진화과정 5단계.

- 1단계는 인구 5만 명 이내를 수용하는 사방 2km의 지역으로, 중심지에서 변두리까지 도보로 10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 2단계는 인구 5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사방 6km의 지역으로, 도보로 30분 이상 걸리지 않는다.
- 3단계의 도시는 지하철이나 고가철도에 의존하여 영역을 넓힌다. 이 단계의 도시는 잠시 동안은 만족스러웠으나 불편이 심해서 자동차 교통수단에 적응하기 위한 초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 4단계는 수많은 도시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는 현대도시이다.
- 5단계는 네 번째 단계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병리를 안고 있는 거대도시(megalopolis)이다.

4. 문화

1) 문화의 정의

- 전경수는 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삶이며,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와 행위를 이루어 내는 전체 과정의 사고와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이다"라고 하였다.
- 타일러(Tylor)는 "문화란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이 습득한 모든 능력과 습성의 복합적인 총체이다"라고 하였다.
- 윌리엄스(Williams)는 문화를 땅을 가꾸고 식물을 경작하고 동물을 키우는 행위, 마음을 가꾸는 것, 사회의 발전과정, 특정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의미 가치와 삶의 방식, 의미를 만들어 내는 의미화의 실천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주요개념

▶ 문명

- ① 문명(civilization)은 한 개인이 행동에서 보이는 일정한 품위를 함축
 - ② 도시화된 국가 수준의 사회에 대한 약호처럼 사용
 - ③ 미개 또는 야만이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발전 (18C 프랑스 사상가들)
- 또한 문명화되었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문명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쁜 뜻으로 이해함으로써 문명이 사회를 평가하는 판단기준을 제공하였다.
 - 따라서 문명은 물질적으로 생활이 편리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발달하여 세상이 진보한 상태로 한정한다.

▶ 문화변용(acculturation)

- 독립된 문화를 지닌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한쪽 또는 양쪽의 문화체계에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 상이한 문화를 지닌 개인 혹은 집단이 접촉했을 때 이들 당사자 간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 문화생태학(cultural ecology)

- 인간 사회가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변형시키는 방식들에 관한 연구를 의미한다.
- 문화생태학은 인간과 환경 간 관계를 중시한 생태학을 바탕으로 문화를 환경에 대한 적응 체계로 간주하고 문화의 특정 영역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 여기서 환경은 자연적인 환경 뿐 아니라 제도나 풍습과 같은 사회적 환경을 포함한다.

▶ 문화층(layers of culture)

- 개인이 접하는 문화의 여러 수준을 의미한다.
- 한 개인은 국가, 지역, 종교, 언어, 성별, 사회계층, 조직 등과 같은 다양한 수준에서 문화를 복합적으로 형성함과 동시에 각 수준의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 이것은 인간이 여러 유형의 집단이나 조직과 같은 생활현장에서 층층이 각 수준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3) 문화의 특성

(1) 보편성

- 문화의 보편성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인 문화 형태가 있음을 말한다.
- 문화는 우리의 감정적·도덕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생활의 주요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문화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뜻에서 문화는 그것이 문화 사회이건 미개 사회이건 간에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
- 사람은 독특한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그 개인은 국가, 조직, 가족 등의 성원들이 추구하는 문화를 수용함으로써 공통의 문화를 지닌다.

(2) 상징성

- 문화의 상징성은 모든 문화가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속으로 품고 있는 의미가 따로 있음을 말한다.
- 그래서 문화를 “사람들의 경험을 해석하고 행동을 유도, 규제하는 의미와 상징의 체계”로 정의하기도 한다.
- 예를 들면 각 나라나 지방자치 단체가 꽃이나 나무, 각 학교의 교기 등을 내세우는 것을 들 수 있다.

(3) 학습성

- 문화의 특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 문화의 학습성은 문화가 특정한 사회에서 살아온 자들의 삶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개인에게 학습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런 맥락에서 문화는 일시적으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언제나 특정한 부류들에 의한 ‘사회적인 상속’으로 전승되어, 전통 혹은 유산이 되어 온 것으로 강조된다.

(4) 역동성

- 문화의 역동성은 문화가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문화 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 간에도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문화의 역동성은 문화마찰(culture conflict), 문화변용(acculturation), 문화변화(culture change), 문화접촉(culture contact), 문화진화(culture evolution)등과 같은 용어에서 볼 수 있다.
- 문화는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새로운 문제는 변화된 행동과 신념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는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5) 다양성

- 문화의 다양성은 인간사회의 문화 형태가 매우 상이함을 말한다.

예)

- 인도에서는 소를 우상화
-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개고기를 먹음
-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
- 티베트에서는 형제들이 한 부인을 공동소유하는 일처다부제의 결혼형태
- 어떤 가정에서는 한 여자가 일곱 남편을 거느리는 가정으로 구성된 것
- 뉴기니아(New Guinea)섬의 바나르족의 경우에 첫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첫 아이의 아버지는 신부 아버지의 가까운 친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남편의 성을 따르고 재산을 상속받음
- 캄보디아에서는 뱀을 신성시하는 것